



2025학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와 ㈜플인사이트와 협업 연구를 한 결과 보고서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순수한 연구결과이며 실제 현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며 이외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목차 CONTENTS

목 차

I. 결과요약 및 제언	1
① 응답자 특성	3
② 조사결과	5
③ 제언	66
II. 조사개요	73
① 배경 및 필요성	75
② 조사설계	77
③ 조사내용	78
④ 분석방법	79
1) 자료 처리 및 분석	79
2) 척도 계산	79
⑤ 응답자 특성	80



목차 CONTENTS

III. 조사결과	85
① 학내 인권 상황 인식	87
1)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종합	87
❖ ‘학내 인권 상황 인식’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1
②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102
1)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종합	102
2) 차별 피해 경험	104
3)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114
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123
5)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131
❖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1
③ 인권침해 대응	144
1) 인권침해 대응 방법	144
2) 인권침해 대응 결과	150



목차 CONTENTS

- ❖ ‘인권침해 대응’ 부분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5
- ④ 인권센터 157**
 - 1) 인권센터 이용 경험 157
 - 2) 인권센터 이용 의향 162
 - 3)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역할 168
 - 4) 인권교육 경험 170
- ❖ ‘인권센터 인식 및 인권교육 경험’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82
- ⑤ 대학원 생활 186**
 - 1) 자녀 유무 186
 - 2)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188
 - 3) 경제적 부담 수준 193
 - 4)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195
 - 5)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197
 - 6) 수행 업무 평가 207
- ❖ ‘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10



목차 CONTENTS

⑥ 연구환경 및 건강	214
1) 연구실 건물 문제점	214
2) 연구 환경 만족도	217
3) 건강 상태 평가	219
4) 안전교육 경험	221
5) 실험실 소속 및 유해인자 취급 여부	223
6)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225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	228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인지와 건강검진 실시	231
❖ 연구환경 및 건강 요약 및 시사점	235
IV. 결론 및 제언	239
① 연구결과 요약	241
1) 학내 인권 상황 인식	241
2)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241



목차 CONTENTS

3)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242
4) 인권센터 인식 및 인권교육 경험	242
5) 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243
6) 연구환경 및 건강	244
② 제언	246
1) 대학원생 자치권 확대를 통한 인권 보호 및 참여 거버넌스 구축	246
2) 대학원생의 노동 환경 개선	247
3) 대학원생 건강권 보장 및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248
4) 취약 집단 중심 맞춤형 인권 보호 정책 마련	249
5) 인권교육 실효성 강화	250
6) 인권센터의 실질적 구제 기능 강화 및 신뢰 회복	251
V. 부록	253
① 설문지	255
② 부록표	290



목차 CONTENTS

표 목차

[표 1] 조사 내용	78
[표 2] 응답자특성 I	83
[표 3] 응답자특성 II	84
[표 4]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종합	88
[표 5]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	90
[표 6] 개인 인권 존중 수준	92
[표 7]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	94
[표 8]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	96
[표 9]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98
[표 10]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	100
[표 11]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종합	103
[표 12] 차별 피해 경험①	106
[표 13] 차별 피해 경험②	107
[표 14] 차별 피해 경험③	108
[표 15] 차별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110
[표 16] 차별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①	112
[표 17] 차별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②	113



목차 CONTENTS

[표 18]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①	116
[표 19]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②	117
[표 20]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119
[표 21]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피해 장소(복수응답)①	121
[표 22]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피해 장소(복수응답)②	122
[표 23]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①	124
[표 2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②	125
[표 25]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127
[표 26]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①	129
[표 27]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②	130
[표 28]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①	133
[표 29]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②	134
[표 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③	135
[표 3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137
[표 32]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①	139
[표 3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②	140
[표 34] 인권침해 대응 방법①	145
[표 35] 인권침해 대응 방법②	146
[표 36]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①	148
[표 37]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②	149



목차 **CONTENTS**

[표 38]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①	151
[표 39]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②	152
[표 40] 인권침해 대응 후 가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	154
[표 41]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경험	158
[표 42] 인권센터 이용 만족도	160
[표 43] 인권센터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161
[표 44] 인권센터 이용 의향	163
[표 45]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①	166
[표 46]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②	167
[표 47]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역할(복수응답)	169
[표 48] 인권교육 경험	171
[표 49] 인권교육 후 인권 중요성 인식 정도	173
[표 50] 인권교육 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	175
[표 51]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①	177
[표 52]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②	178
[표 53]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복수응답)①	180
[표 54]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복수응답)②	181
[표 55] 자녀 유무	187
[표 56]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 이용 경험	188
[표 57]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_수유실	190



목차 CONTENTS

[표 58]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_학내보육센터	192
[표 59] 경제적 부담 수준	194
[표 60]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196
[표 61]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198
[표 62] 업무 계약서 작성 여부	200
[표 63] 업무 계약서 제공 언어	202
[표 64]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	204
[표 65] 업무량 근무시간 준수	206
[표 66] 수행 업무 평가①	208
[표 67] 수행 업무 평가②	209
[표 68] 연구실 건물 문제점①	215
[표 69] 연구실 건물 문제점②	216
[표 70] 연구 환경 만족도	218
[표 71] 건강 상태 평가	220
[표 72] 안전교육 경험	222
[표 73] 실험실 소속 및 유해인자 취급 여부	224
[표 74]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①	226
[표 75]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②	227
[표 7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복수응답)①	229
[표 7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복수응답)②	230



목차 CONTENTS

[표 7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인지와 건강검진 실시 232
 [표 79]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234

부록표 목차

[부록표 1] 소속대학별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종합 290
 [부록표 2] 소속대학별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 291
 [부록표 3] 소속대학별 개인 인권 존중 수준 292
 [부록표 4] 소속대학별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 293
 [부록표 5] 소속대학별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 294
 [부록표 6] 소속대학별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295
 [부록표 7] 소속대학별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 296
 [부록표 8]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종합 297
 [부록표 9] 소속대학별 차별 피해 경험① 298
 [부록표 10] 소속대학별 차별 피해 경험② 299
 [부록표 11] 차별 피해 경험_1)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00
 [부록표 12] 차별 피해 경험_1)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01
 [부록표 13] 차별 피해 경험_2)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02
 [부록표 14] 차별 피해 경험_2)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03



목차 CONTENTS

[부록표 15] 차별 피해 경험_3)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04

[부록표 16] 차별 피해 경험_3)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05

[부록표 17] 차별 피해 경험_4) 병력(질병, 질환)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06

[부록표 18] 차별 피해 경험_4) 병력(질병, 질환)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07

[부록표 19] 차별 피해 경험_5)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08

[부록표 20] 차별 피해 경험_5)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09

[부록표 21] 차별 피해 경험_6) 인종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10

[부록표 22] 차별 피해 경험_6) 인종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11

[부록표 23] 차별 피해 경험_7) 출신 지역(외국인은 출신국가)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복수응답)① 312

[부록표 24] 차별 피해 경험_7) 출신 지역(외국인은 출신국가)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복수응답)② 313

[부록표 25] 차별 피해 경험_8)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기타 그 밖의 학력인정)를 이유로 차
 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14

[부록표 26] 차별 피해 경험_8)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기타 그 밖의 학력인정)를 이유로 차
 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15



목차 **CONTENTS**

[부록표 27] 차별 피해 경험_9) 출신 학과 또는 전공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 응답)① 316

[부록표 28] 차별 피해 경험_9) 출신 학과 또는 전공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 응답)② 317

[부록표 29] 차별 피해 경험_10)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18

[부록표 30] 차별 피해 경험_10)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19

[부록표 31] 차별 피해 경험_11)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20

[부록표 32] 차별 피해 경험_11)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21

[부록표 33] 차별 피해 경험_12)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22

[부록표 34] 차별 피해 경험_12)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23

[부록표 35] 차별 피해 경험_13) 임신·출산 또는 육아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복수응답)① 324

[부록표 36] 차별 피해 경험_13) 임신·출산 또는 육아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복수응답)② 325

[부록표 37] 차별 피해 경험_14)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복수응답)① 326

[부록표 38] 차별 피해 경험_14)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복수응답)② 327

[부록표 39] 차별 피해 경험_15)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28



목차 **CONTENTS**

[부록표 40] 차별 피해 경험_15)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29

[부록표 41] 차별 피해 경험_16) 지도교수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30

[부록표 42] 차별 피해 경험_16) 지도교수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31

[부록표 43] 차별 피해 경험_17) 대학원생자치기구(원우회 등)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32

[부록표 44] 차별 피해 경험_17) 대학원생자치기구(원우회 등)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33

[부록표 45] 차별 피해 경험_18)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 및 지원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34

[부록표 46] 차별 피해 경험_18)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 및 지원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35

[부록표 47] 소속대학별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① ······ 336

[부록표 48] 소속대학별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② ······ 337

[부록표 49]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38

[부록표 50]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39

[부록표 51]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2) 옷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간섭 또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40

[부록표 52]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2) 옷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간섭 또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41



목차 **CONTENTS**

[부록표 53]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3)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42

[부록표 54]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3)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43

[부록표 55]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4)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44

[부록표 56]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4)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45

[부록표 57]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5) 수업 및 학업과 관련된 행사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46

[부록표 58]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5) 수업 및 학업과 관련된 행사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47

[부록표 59]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6)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48

[부록표 60]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6)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49

[부록표 61]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7)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50

[부록표 62]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7)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51



목차 **CONTENTS**

[부록표 63]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8) MT, OT, 연구실 모임, 사은회 등과 같은 학내 행사에서 장기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52

[부록표 64]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8) MT, OT, 연구실 모임, 사은회 등과 같은 학내 행사에서 장기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53

[부록표 65]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9)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54

[부록표 66]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9)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55

[부록표 67]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0)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56

[부록표 68]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0)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57

[부록표 69]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1)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58

[부록표 70]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1)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59

[부록표 71]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2)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60

[부록표 72]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_12)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61

[부록표 73] 소속대학별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① 362



목차 **CONTENTS**

[부록표 74] 소속대학별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② 363

[부록표 75]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64

[부록표 76]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65

[부록표 77]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2)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66

[부록표 78]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2)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67

[부록표 79]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3)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68

[부록표 80]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3)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69

[부록표 81]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4) 성적(grade), 금품 등 대가를 이유로 성적 제안 또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70

[부록표 82]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4) 성적(grade), 금품 등 대가를 이유로 성적 제안 또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71

[부록표 83]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5)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의 표현 또는 제안(사적 전화, 같이 자자 등)을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72

[부록표 8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5)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의 표현 또는 제안(사적 전화, 같이 자자 등)을 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73

[부록표 85]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6)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74



목차 **CONTENTS**

[부록표 86]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6)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75

[부록표 87]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7) 사진·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76

[부록표 88]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7) 사진·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77

[부록표 89]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8)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 및 성관계 촬영 사진을 유포 또는 유포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78

[부록표 90]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8)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 및 성관계 촬영 사진을 유포 또는 유포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79

[부록표 91]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9)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합성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80

[부록표 92]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9)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합성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81

[부록표 93]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0)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포나 유포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82

[부록표 9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0)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포나 유포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83

[부록표 95]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1)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84

[부록표 96]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1)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 385

[부록표 97]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2)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 386



목차 **CONTENTS**

[부록표 98]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2)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87

[부록표 99]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3)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88

[부록표 100]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3)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89

[부록표 101]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4) (온·오프라인 포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90

[부록표 102]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4) (온·오프라인 포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91

[부록표 103]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5)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악의적/고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복수응답)① 392

[부록표 10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15)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악의적/고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복수응답)② 393

[부록표 105] 소속대학별 학업 및 연구 피해① 394

[부록표 106] 소속대학별 학업 및 연구 피해② 395

[부록표 107]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복수응답)① 396

[부록표 108]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복수응답)② 397

[부록표 109]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2)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398



목차 CONTENTS

[부록표 11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2)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399

[부록표 11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3)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00

[부록표 112]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3)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01

[부록표 11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4) 내 연구 관심과 상관없는 지도교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02

[부록표 114]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4) 내 연구 관심과 상관없는 지도교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03

[부록표 115]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5) 지도교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04

[부록표 116]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5) 지도교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05

[부록표 117]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6)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06

[부록표 118]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6)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07

[부록표 119]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7)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08

[부록표 12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7)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09

[부록표 12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8)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목차 **CONTENTS**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10

[부록표 122]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8)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11

[부록표 12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9) 아이디어나 논문(페이퍼) 내용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복수응답)① 412

[부록표 124]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9) 아이디어나 논문(페이퍼) 내용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복수응답)② 413

[부록표 125]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0) 타인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한 경험(예. 논문 대필, 논문 가로채기 등)이 있다(복수응답)① 414

[부록표 126]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0) 타인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한 경험(예. 논문 대필, 논문 가로채기 등)이 있다(복수응답)② 415

[부록표 127]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1)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16

[부록표 128]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1)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17

[부록표 129]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2) 부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18

[부록표 1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2) 부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19

[부록표 13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3) 직접적으로 또는 관행에 따라 논문, 졸업작품, 추천,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의 제공(선물, 금품, 논문 대필, 성적 접촉 등)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420

[부록표 132]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3) 직접적으로 또는 관행에 따라 논문, 졸업작품, 추천,

2025학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목차

CONTENTS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의 제공(선물, 금품, 논문 대필, 성적 접촉 등)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421
[부록표 13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4) 정규 수업 과정 외 개인 레슨 등을 이유로 유료 수업을 수강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422
[부록표 134]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4) 정규 수업 과정 외 개인 레슨 등을 이유로 유료 수업을 수강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423
[부록표 135]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5)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24
[부록표 136]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5)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25
[부록표 137]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6) 실험결과 및 데이터 조작 등 연구윤리 위반을 지시·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①	426
[부록표 138]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6) 실험결과 및 데이터 조작 등 연구윤리 위반을 지시·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복수응답)②	427
[부록표 139]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7)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①	428
[부록표 14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17)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복수응답)②	429
[부록표 141] 소속대학별 차별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430
[부록표 142] 소속대학별 차별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	431
[부록표 143] 소속대학별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432
[부록표 144] 소속대학별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	433



목차 **CONTENTS**

[부록표 145] 소속대학별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434

[부록표 146] 소속대학별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 435

[부록표 147] 소속대학별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436

[부록표 148] 소속대학별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 437

[부록표 149]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대응 방법 438

[부록표 150] 소속대학별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① 439

[부록표 151] 소속대학별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② 440

[부록표 152]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① 441

[부록표 153]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② 442

[부록표 154]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대응 후 가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 443

[부록표 155]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대응 후 가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 444

[부록표 156] 소속대학별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경험 445

[부록표 157] 소속대학별 인권센터 이용 만족도 446

[부록표 158] 소속대학별 인권센터 이용 의향 447

[부록표 159] 소속대학별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① 448

[부록표 160] 소속대학별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② 449

[부록표 161] 소속대학별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역할(복수응답)① 450

[부록표 162] 소속대학별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역할(복수응답)② 451

[부록표 163] 소속대학별 인권교육 경험 452

[부록표 164] 소속대학별 인권교육 중요성 인식 정도 453



목차 CONTENTS

[부록표 165] 소속대학별 인권교육 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	454
[부록표 166] 소속대학별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①	455
[부록표 167] 소속대학별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②	456
[부록표 168] 소속대학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복수응답)①	457
[부록표 169] 소속대학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복수응답)②	458
[부록표 170] 소속대학별 자녀 유무	459
[부록표 171] 소속대학별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이용 경험	460
[부록표 172] 소속대학별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_수유실	461
[부록표 173] 소속대학별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_학내보육센터	462
[부록표 174] 소속대학별 경제적 부담 수준	463
[부록표 175] 소속대학별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464
[부록표 176] 소속대학별 업무 계약서 작성 여부	465
[부록표 177] 소속대학별 업무 계약서 제공 언어	466
[부록표 178] 소속대학별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	467
[부록표 179] 소속대학별 업무량·근무시간 준수	468
[부록표 180] 소속대학별 수행 업무 평가①	469
[부록표 181] 소속대학별 수행 업무 평가②	470
[부록표 182] 소속대학별 연구실 건물 문제점①	471
[부록표 183] 소속대학별 연구실 건물 문제점②	472
[부록표 184] 소속대학별 연구 환경 만족도	473



목차 CONTENTS

[부록표 185] 소속대학별 건강 상태 평가	474
[부록표 186] 소속대학별 안전교육 경험	475
[부록표 187] 소속대학별 실험실 소속 및 유해인자 취급 여부	476
[부록표 188] 소속대학별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①	477
[부록표 189] 소속대학별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②	478
[부록표 190] 소속대학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복수응답)①	479
[부록표 191] 소속대학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복수응답)②	480
[부록표 192] 소속대학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인지와 건강검진 실시	481
[부록표 193] 소속대학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482

2025학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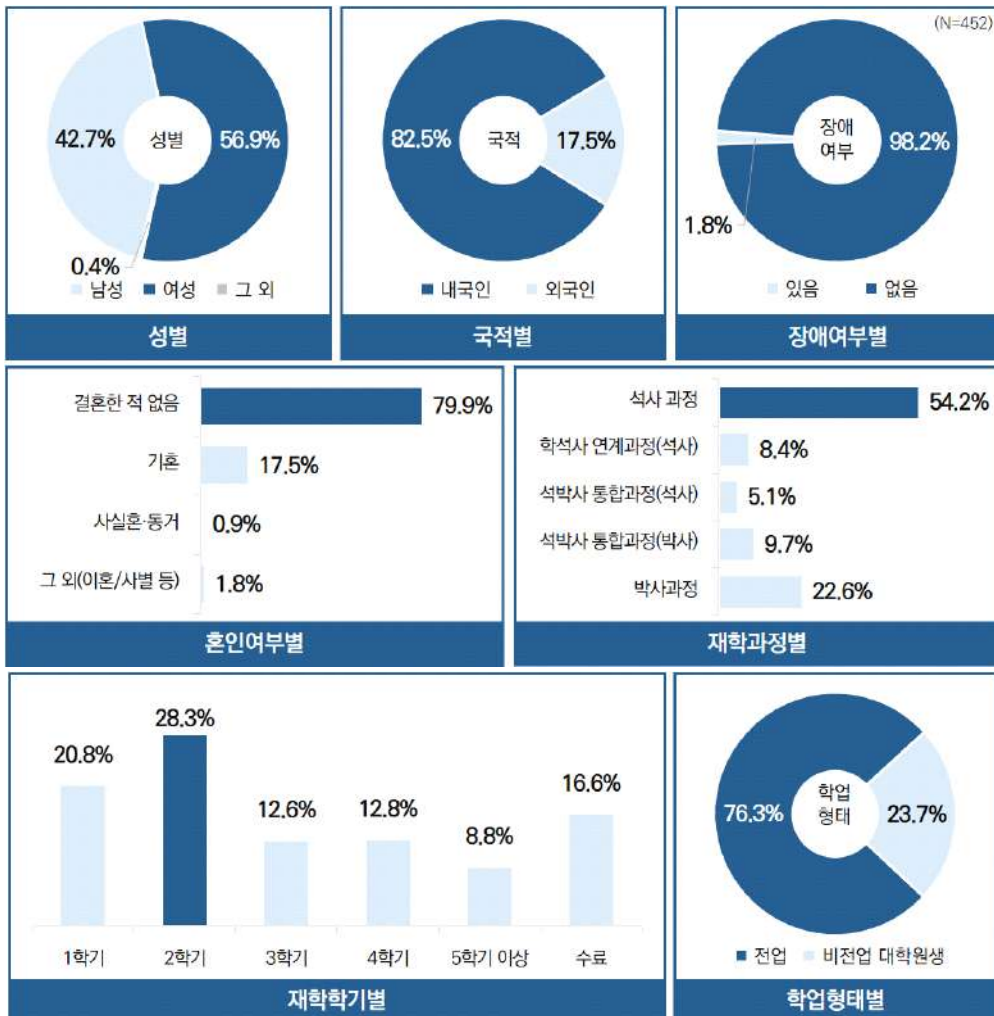
1. 응답자특성
2. 조사결과
3.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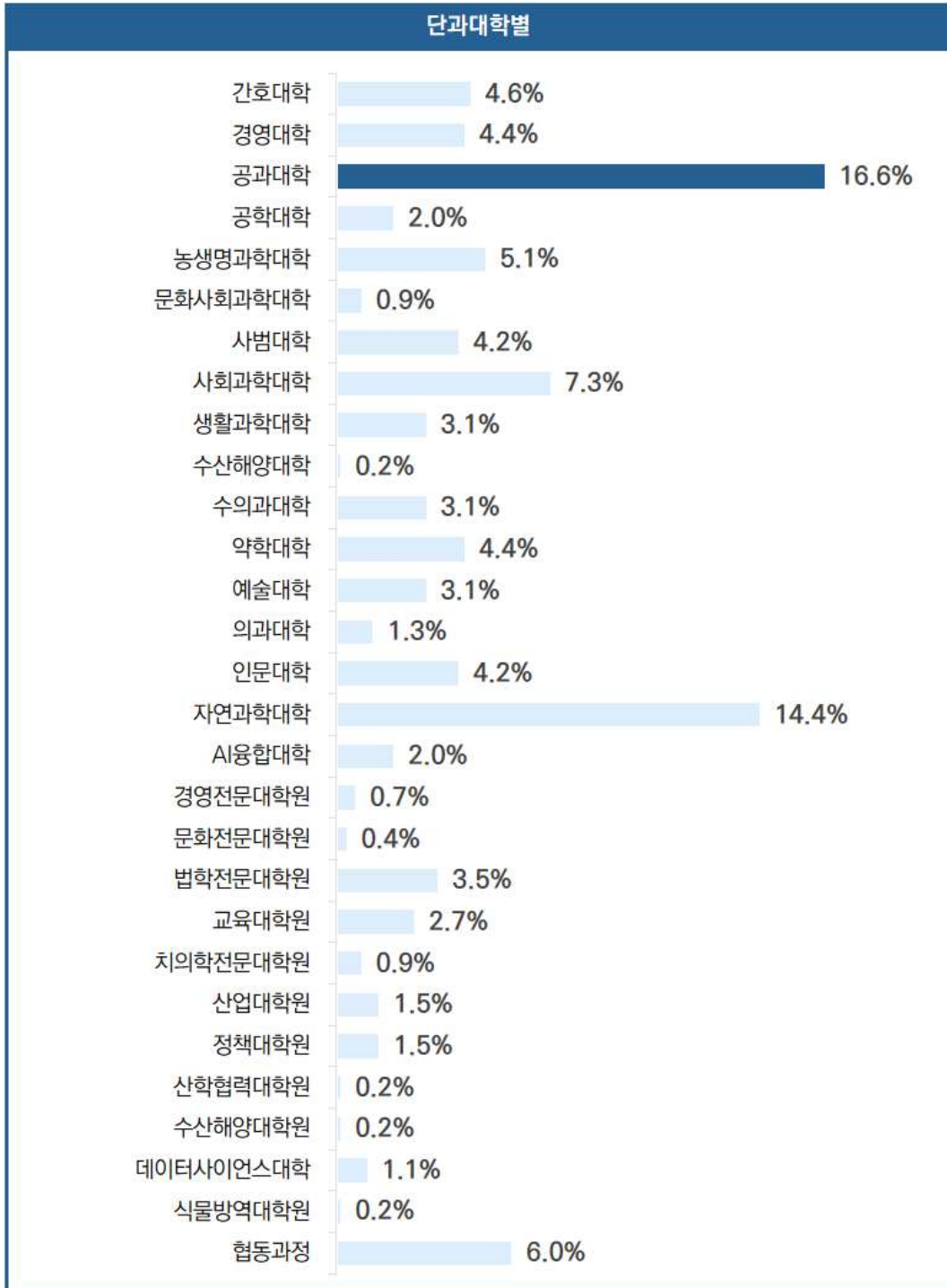


결과요약 및 제언

① 응답자 특성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불성실 응답과 미완성 응답을 제외한 총 504명의 응답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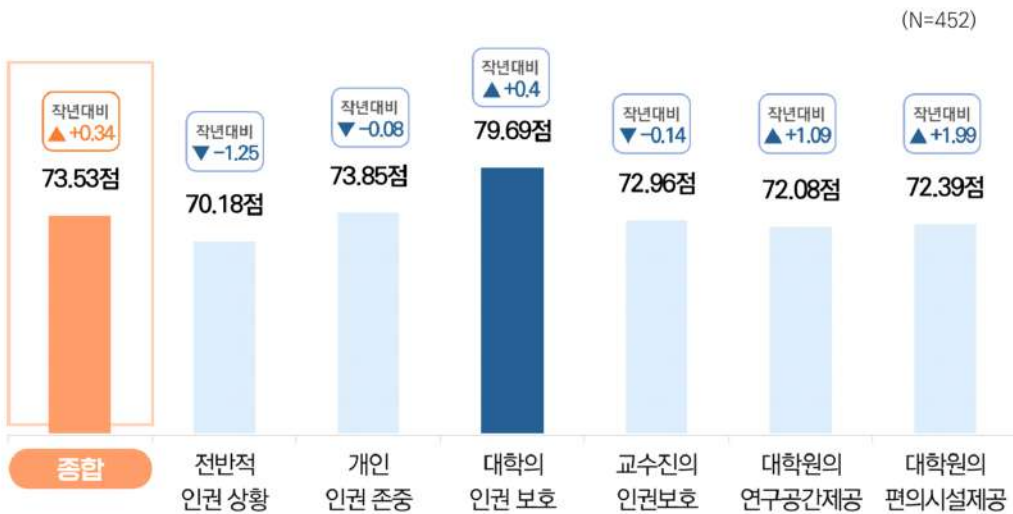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종합

- 전남대학교의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종합점수는 73.53점으로, 2024년에 비해 0.34점 증가함
-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종합 점수가 79.69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노력에 대한 종합 점수가 전년도 대비 1.99점 증가함
 - 남성(77.89점)은 여성(70.51점)보다 학내 인권 상황 인식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79.08점)은 학내 인권 상황 인식에 대한 종합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 4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66.78점)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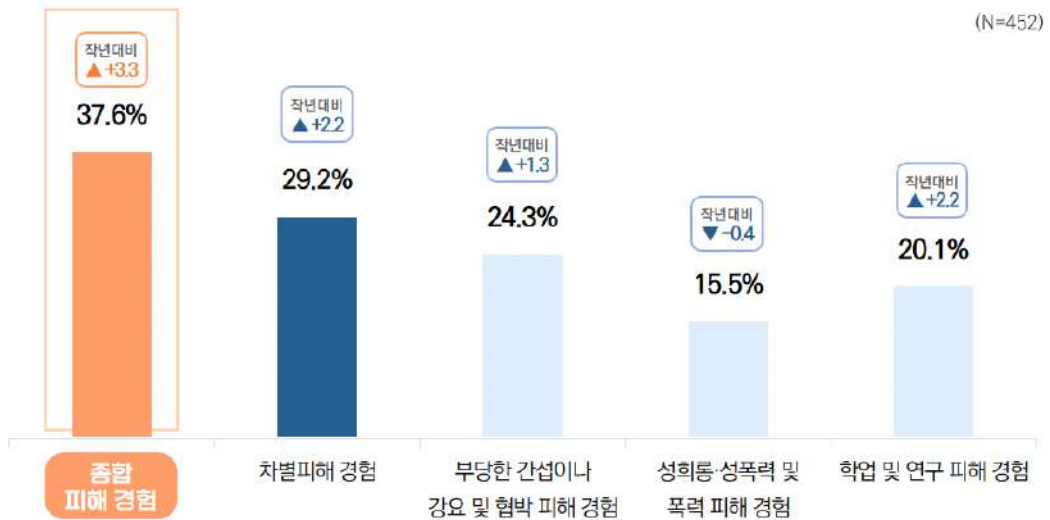
요약 및 시사점

- ▶ 학내 인권 상황 인식은 2024년 73.19점에서 2025년 73.53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인권보호 노력이 79.69점(2024년 79.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개별 지도교수의 의존도를 보여줌. 이어 개인 인권 존중 수준(73.93점→73.85점),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73.10점→72.96점),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70.40점→72.39점),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70.99점→72.08점),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71.43점→70.18점) 순으로 나타남
- ▶ 모든 항목이 70점 이상으로,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학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은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70.99점→72.08점)과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70.40점→72.39점)으로 제한적 부분에 그침
- ▶ 특성별로 여성보다 남성, 내국인보다 외국인, 사실혼-동거 상태, 장애가 없는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재학학기별로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대체로 학내의 인권 상황 및 인권 존중과 관련한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남
- ▶ 여성은 개인 인권 존중, 대학의 인권 보호, 편의시설연구환경 제공 노력 전반에서 일관되게 낮은 평가.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 간 학내 인권 상황 인식 관련 모든 항목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평균 점수가 낮아 대학원의 인권 환경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에게는 거의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 재학 학기별로 1학기가 학내 인권 상황 인식 관련 항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4학기가 최저로 대학원 생활이 지속될수록 인권 인식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비전업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 항목을 제외하고 전업 대학원생보다 학내 인권 상황 인식 관련 항목의 평균 점수가 낮음
- ▶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과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의 평균 점수가 낮아 대학의 환경 및 편의시설 등 불편을 야기하는 물적자원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2)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종합

- 2025년 대학원 생활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이며, 전년도 대비 3.3%p 증가함
- 인권침해 유형 중 차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24.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20.1%),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15.5%) 순으로 높음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 및 국적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43.6%)이 남성(29.0%)보다 경험 비율이 더 높고, 외국인(44.3%)이 내국인(36.2%)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박사 과정(43.1%)과 5학기 이상 재학(47.5%), 비전업 대학원생(43.9%)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39.9%)이 경험 대학원생(31.7%)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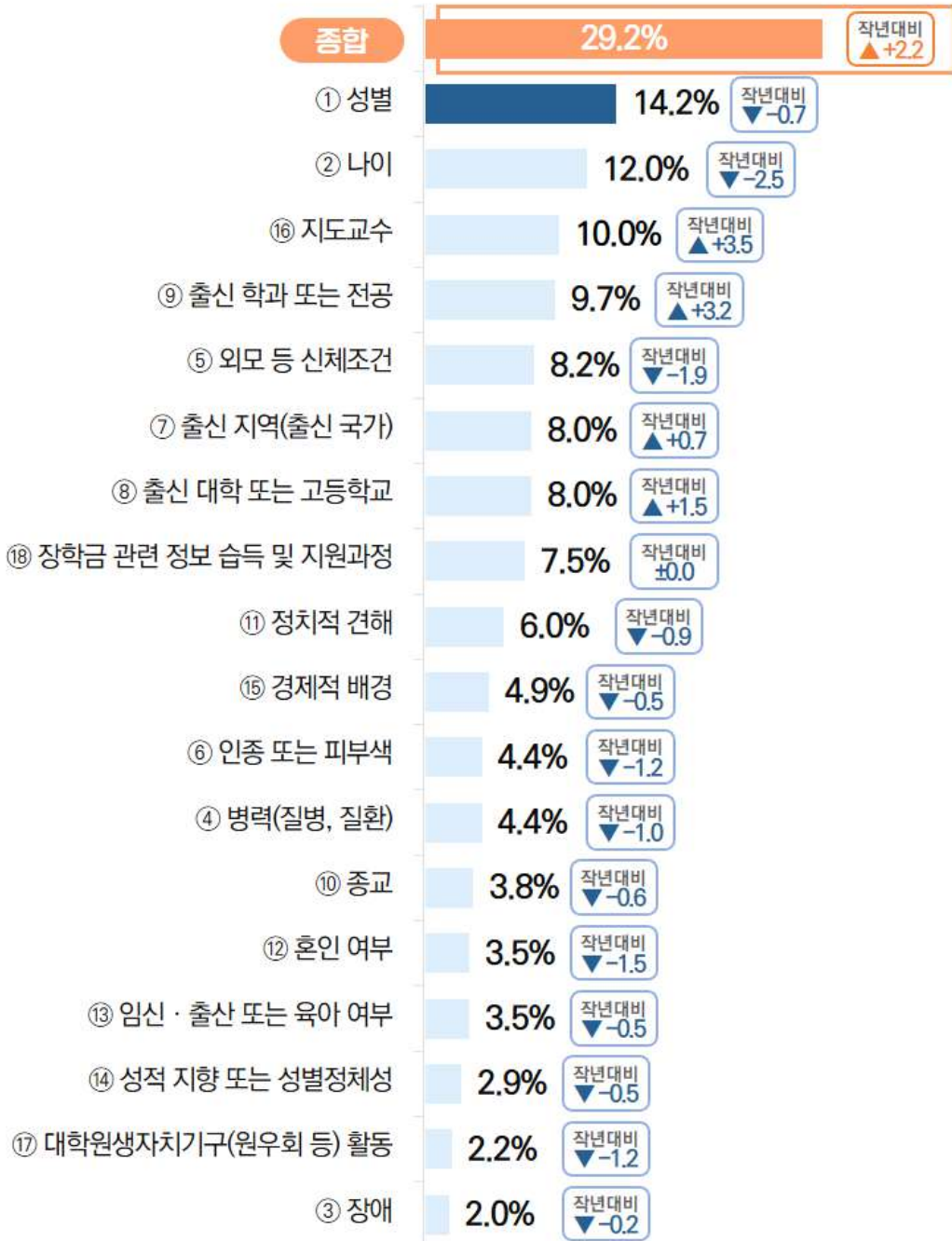




차별 피해 경험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번이라도 차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29.2%로, 전년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 중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나이(12.0%), 지도교수(10.0%) 등의 순으로 높음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지도교수를 이유로 차별(+3.5%p)과 출신 학과 또는 전공을 이유로 한 차별(+3.2%p)에 대한 경험 비율이 다른 차별 피해 유형 대비 높게 상승했으며, 반면 나이(-2.5%p), 외모 등 신체조건(-1.9%p), 혼인 여부(-1.5%p) 등은 감소함
 - 성별 및 국적에 따라 차별 피해 경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34.2%)이 남성(21.8%)보다 경험 비율이 더 높고 외국인(39.2%)이 내국인(27.1%)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75.0%)은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28.4%)보다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박사 과정(38.2%), 4학기 재학(39.7%), 비전업 대학원생(34.6%)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31.9%)이 경험 대학원생(22.2%)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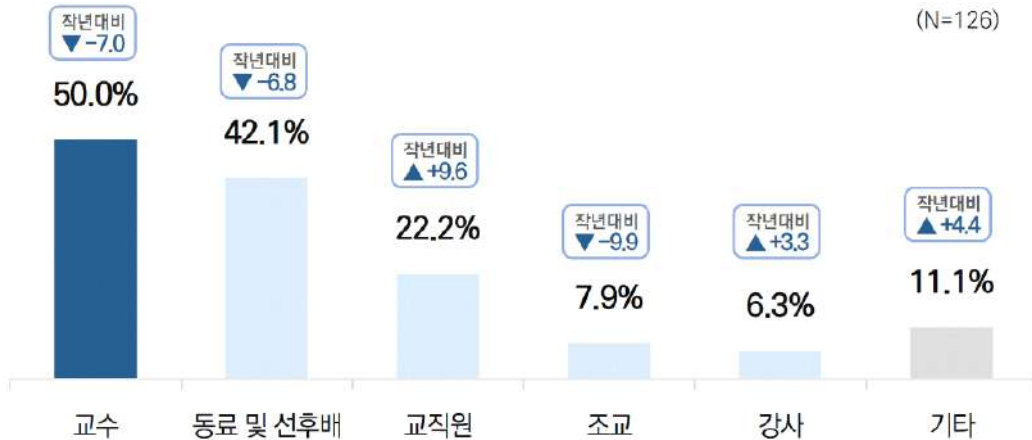
(N=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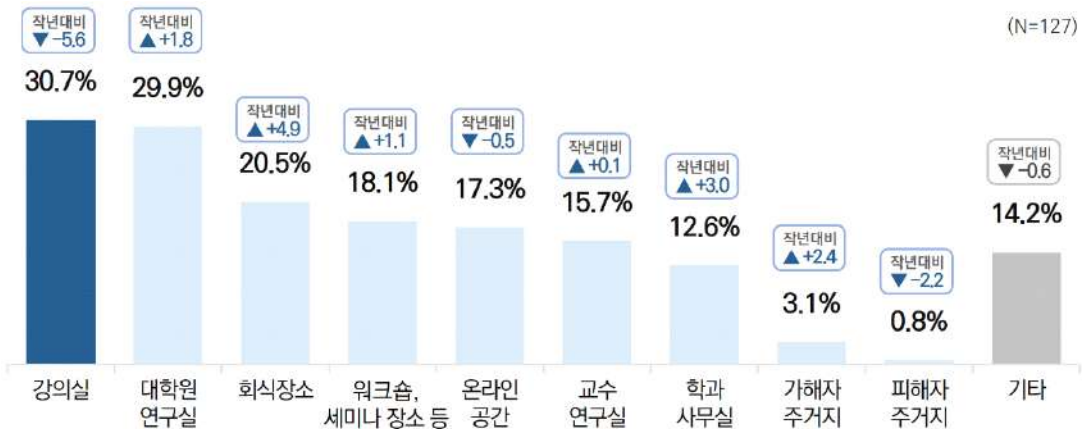
차별 피해 가해자

- 차별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50.0%)이 교수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동료 및 선후배(42.1%), 교직원(22.2%) 등의 순으로 높음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교직원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여성(51.2%)은 남성(47.6%)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았고, 내국인과 기혼 대학원생은 교수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한 반면, 외국인과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가장 많이 지목함
 -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68.8%), 비전업 대학원생(52.9%),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53.6%)에서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차별 피해 장소

- 차별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30.7%가 강의실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대학원 연구실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9.9%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 차별 피해 장소로 회식장소를 지목한 비율이 4.9%p 증가했으며, 반면 강의실을 지목한 비율은 5.6%p 감소하였음
 - 남성은 강의실(35.7%),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33.7%)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34.7%), 외국인인 강의실·회식장소(각 24.1%)를 가장 많이 지목함
 - 비전업 대학원생(40.0%)은 전업 대학원생(33.7%)보다 강의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고, 인권교육 경험자는 강의실(42.9%), 미경험자는 대학원 연구실(30.3%)을 가장 많이 지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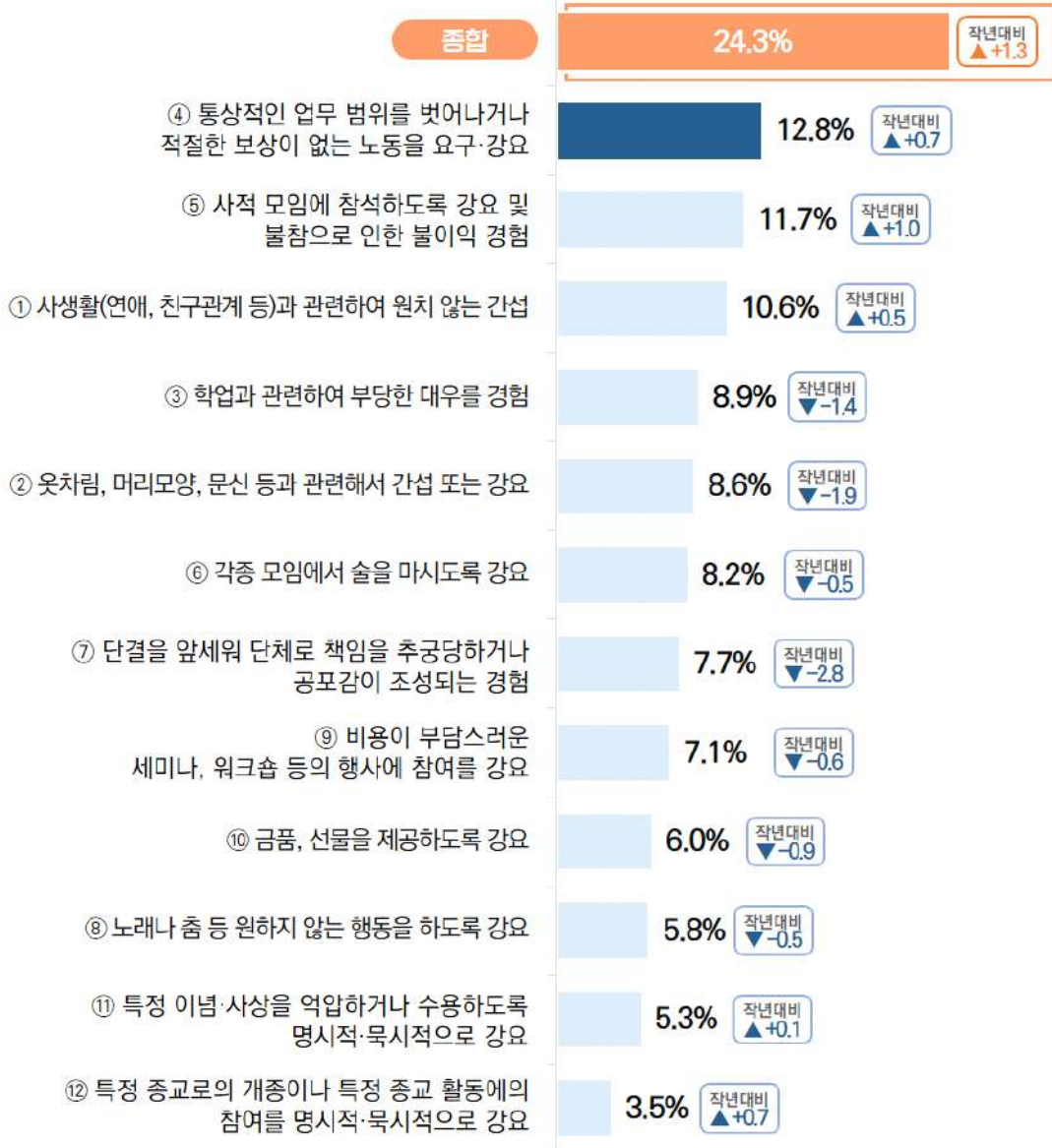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 실태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번이라도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24.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경험 비율이 1.3%p 증가함
- 세부 항목 중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강요'로 인한 피해 경험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및 재학 특성에 따라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 비율이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28.0%)이 남성(19.2%)보다 높고, 박사 과정(29.4%)과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31.6%)에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피해 유형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과 내국인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 요구·강요'와 '사적 모임 참석 강요 및 불이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은 '외모·복장 관련 간섭', '보상 없는 노동 요구', '학업 관련 부당 대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25.2%)이 경험 대학원생(22.2%)보다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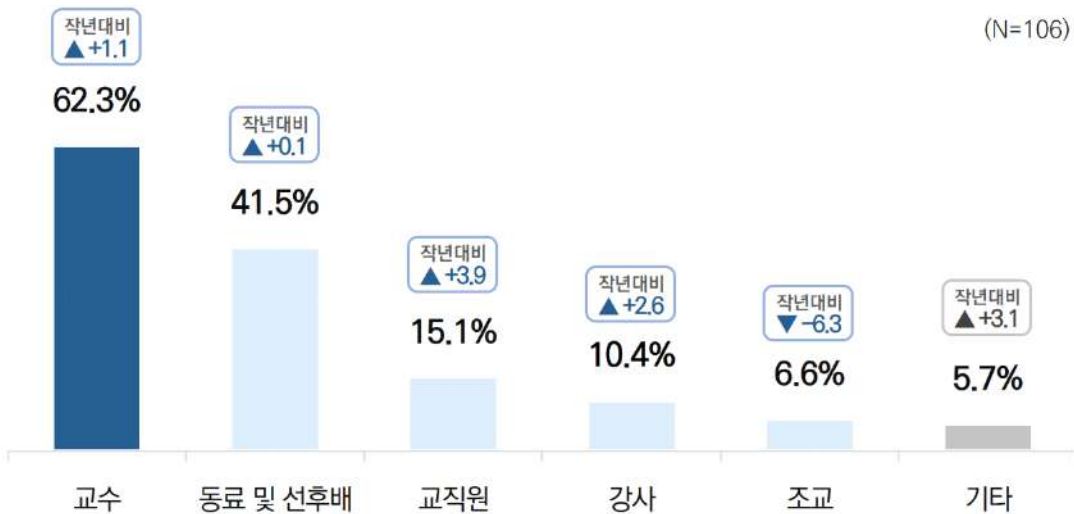
(N=452)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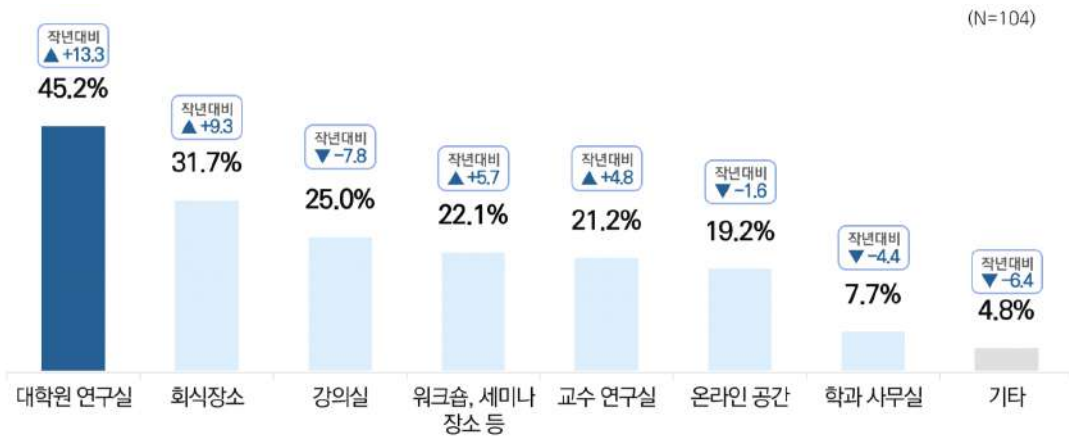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62.3%)이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동료 및 선후배가 41.5%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교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3.9%p 증가한 반면, 조교를 지목한 비율은 -6.3%p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67.4%)은 교수를, 외국인(47.1%)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석사)(55.6%)이 다른 집단과 달리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75.0%)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장소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5.2%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회식장소(31.7%), 강의실(25.0%),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22.1%), 교수 연구실(21.2%), 온라인 공간(19.2%) 등의 순임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장소로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비율이 13.3%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남성(38.9%)은 회식장소를, 여성(49.3%)과 내국인(48.3%)·장애가 없는 대학원생(46.5%)은 대학원 연구실을, 외국인(35.3%)은 온라인 공간을 가장 많이 지목한 것으로 나타남
 - 재학 특성 및 학업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석사)(50.0%)과 비전업 대학원생(36.4%)은 회식장소를 주요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수료생은 대학원 연구실(81.0%) 지목 비율이 특히 높았고, 5학기 이상 재학생(41.7%)은 교수 연구실을 주요 피해 장소로 응답함
 - 인권교육 경험별로는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은 인권교육 경험 대학원생보다 강의실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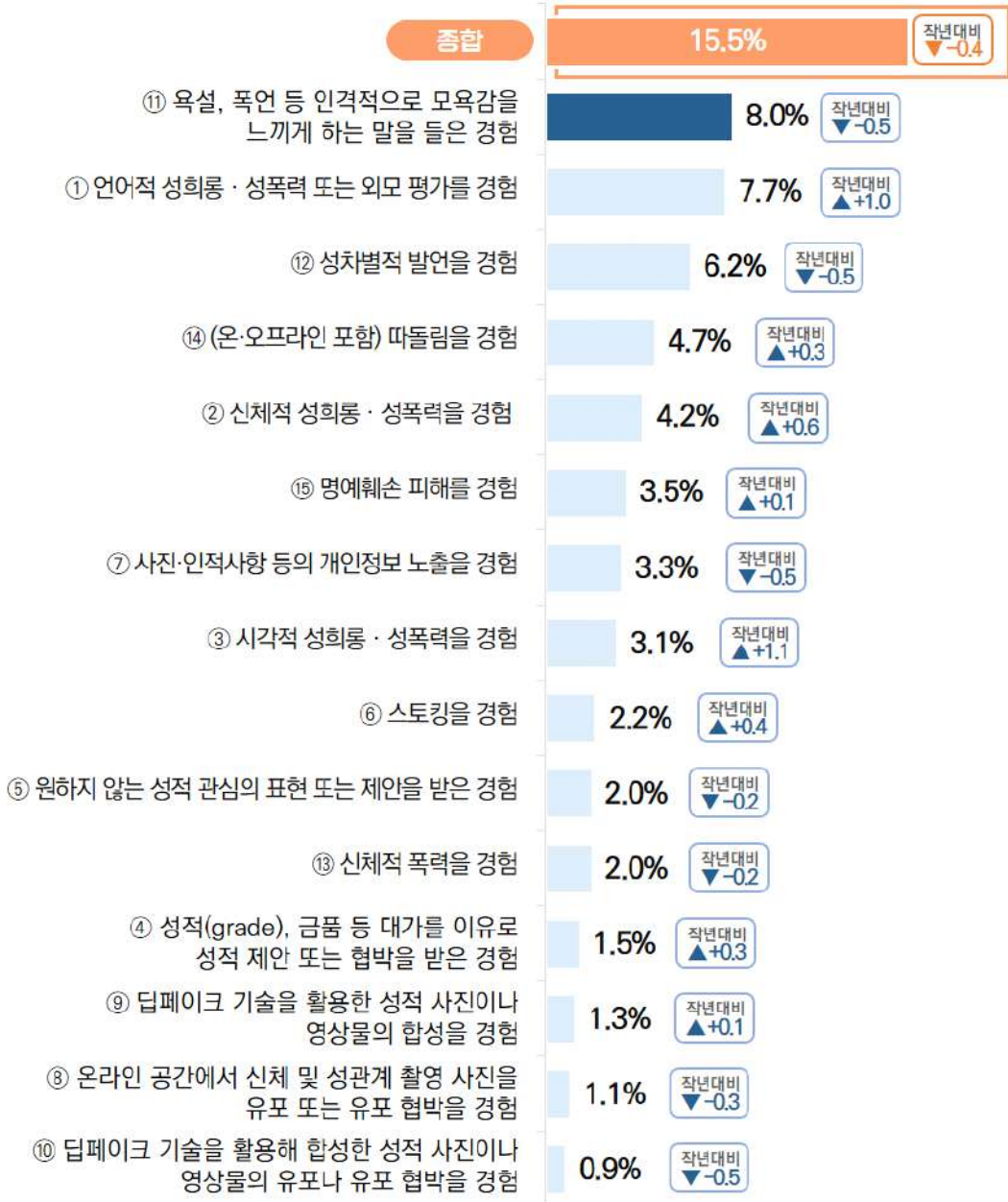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실태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성폭력 및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15.5%로, 전년도 대비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 중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로 인한 피해 경험이 8.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및 혼인여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16.3%)이 남성(14.0%)보다 높고,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16.6%)이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11.4%)보다 높게 나타남
 - 주요 피해 유형은 남성은 '욕설·폭언 등 모욕감 유발 발언'(9.3%), 여성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7.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박사 과정(18.6%)과 4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24.1%)에서 피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16.3%)이 경험 대학원생(13.5%)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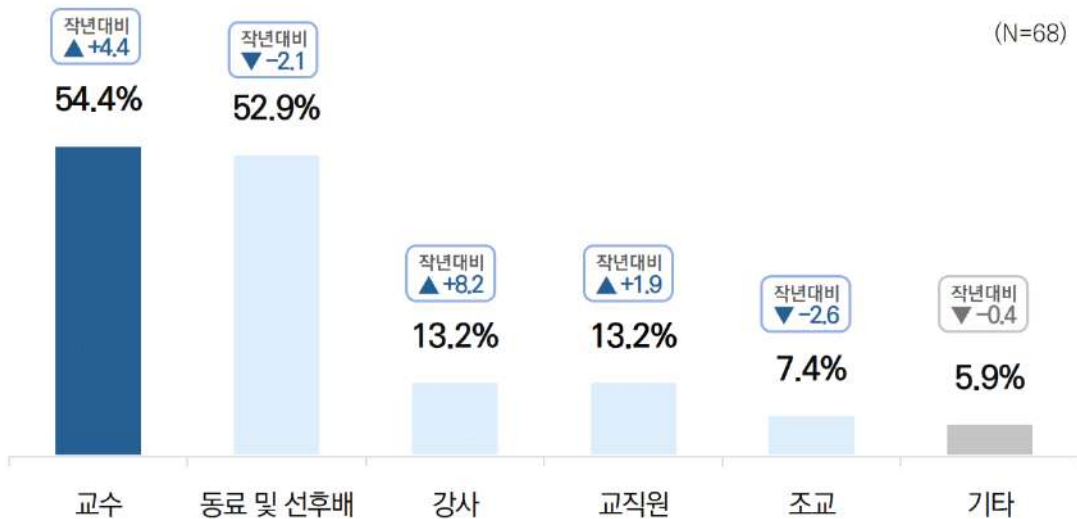
(N=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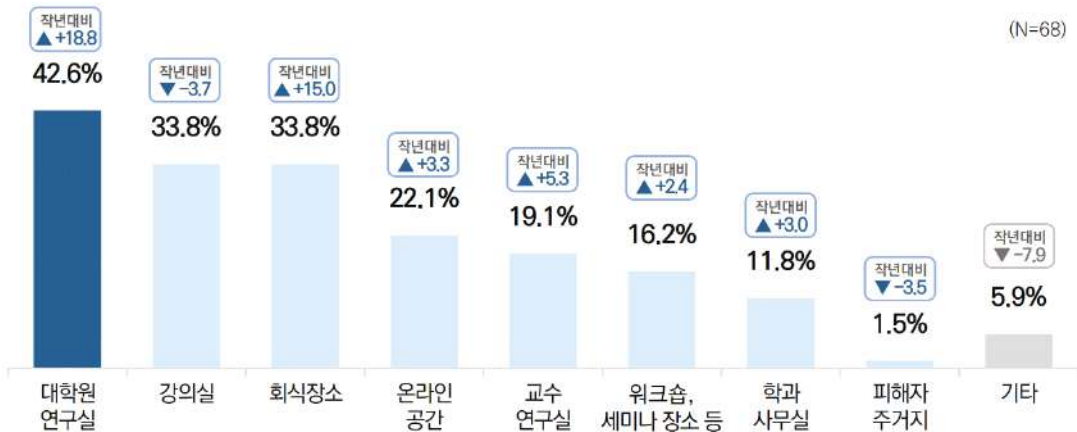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가해자

- 성희롱·성폭력 및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4.4%)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동료 및 선후배(52.9%)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가해자로 강사(+8.2%p)와 교수(+4.4%p), 교직원(+1.9%)을 지목한 비율이 증가함
 - 남성(53.8%)과 내국인(58.9%), 기혼 대학원생(55.6%)은 ‘교수’를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한 반면, 여성(58.5%)과 외국인(66.7%),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58.6%)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가장 많이 지목함
 - 석사 과정(66.7%)과 비전업 대학원생(66.7%),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58.8%)에서는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 대학원생(58.5%)과 인권교육 경험 대학원생(70.6%)에서는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장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2.6%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강의실과 회식장소가 각 33.8%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장소로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비율이 18.8%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남성은 대학원 연구실·강의실(각 38.5%),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46.3%)을 피해 장소로 가장 많이 지목했고,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50.0%)을,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50.0%)을 가장 많이 지목한 것으로 나타남
 - 수료생은 대학원 연구실(61.5%)을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업 대학원생은 대학원 연구실(45.3%), 비전업 대학원생은 강의실(40.0%)을 지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 교육 경험자는 강의실(35.3%), 미경험자는 대학원 연구실(47.1%)을 가장 많이 지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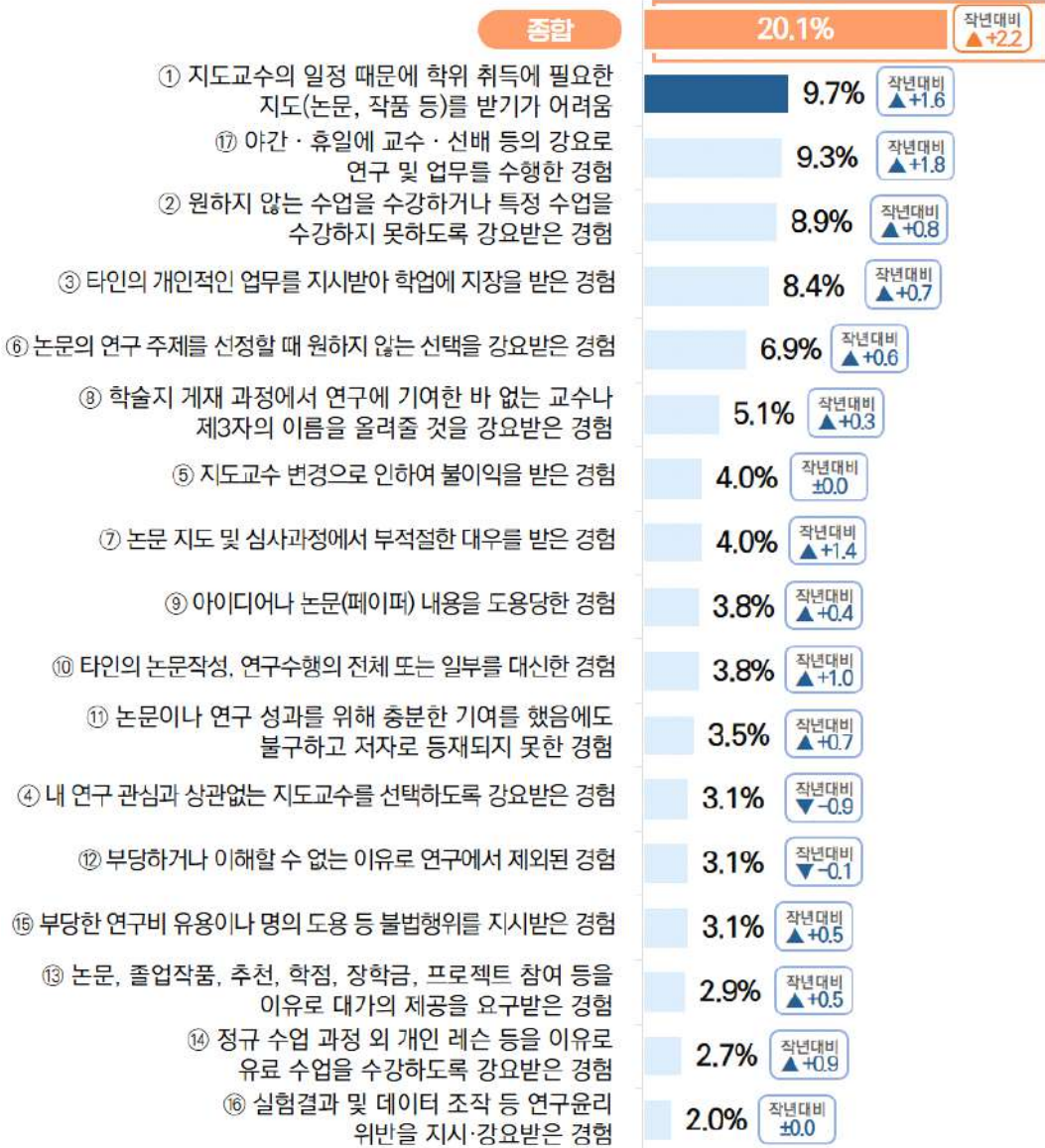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실태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번이라도 학업 및 연구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20.1%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2.2%p 증가함
- 세부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의 비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여성(22.2%)이 남성(16.6%)보다 높고, 재학·학업 특성에 따라서는 박사 과정(26.5%)과 4학기 재학(31.0%)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21.2%)이 경험 대학원생(17.5%)보다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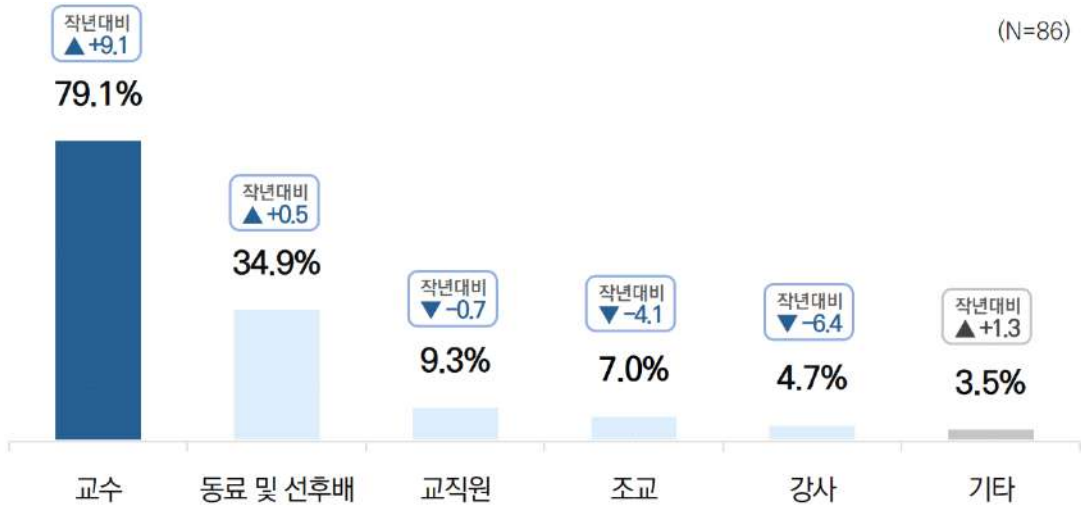
(N=452)





학업 및 연구 피해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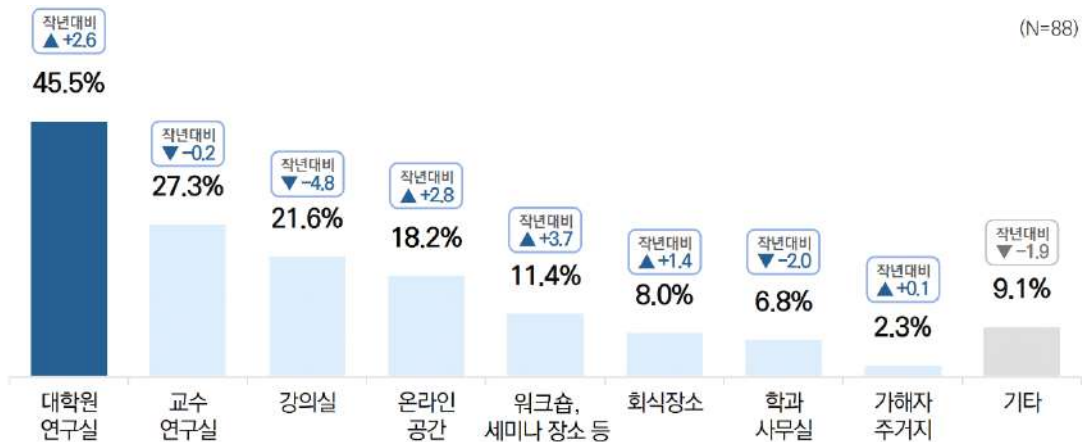
- 학업 및 연구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79.1%)이 교수로부터 학업 및 연구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동료 및 선후배(34.9%) 등의 순으로 높음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학업 및 연구 피해 가해자로 교수를 지목한 비율이 9.1%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성별·국적·혼인여부·학업형태 및 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교수를 지목한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84.9%), 내국인(82.2%), 기혼 대학원생(91.7%), 비전업 대학원생(84.2%), 인권교육 경험자(90.5%)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학업 및 연구 피해 장소

- 학업 및 연구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5.5%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교수 연구실(27.3%), 강의실(21.6%), 온라인 공간(18.2%) 등의 순임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학업 및 연구 피해 장소로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을 지목한 비율이 3.7%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음
 - 여성(51.9%)이 남성(31.3%)보다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비율이 높았고, 내국인(50.7%)과 전업 대학원생(55.9%), 인권교육 경험자(57.1%) 역시 대학원 연구실을 가장 많이 지목한 반면, 외국인(38.5%)은 온라인 공간, 비전업 대학원생(50.0%)은 강의실을 가장 많이 지목함
 - 재학학기별로는 1학기에서 4학기로 갈수록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5학기 이상 재학생(75.0%)은 교수 연구실을, 수료생(66.7%)은 대학원 연구실을 주요 피해 장소로 지목함





요약 및 시사점

- 대학원 생활 중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37.6%로, 2024년(34.3%) 대비 3.3%p 증가함. 이는 대학원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함. 유형별로는 차별 피해 경험이 29.2%(2024년 2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 24.3%(2024년 2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20.1%(2024년 17.9%),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15.5%(2024년 15.9%) 순으로 나타남
- 차별 피해의 이유로는 성별(1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나이(12.0%), 지도 교수(10%), 출신 학과 또는 전공(9.7%), 외모 등 신체조건(8.2%), 출신 지역 또는 국가·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각 8.0%),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 및 지원과정(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높은 차별 경험 비율을 보였음. 특히 외국인은 외모 등 신체조건과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 각각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비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의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차별 행위 가해자는 교수(50.0%)와 동료 및 선·후배(42.1%)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직원(22.2%)의 비율은 2024년(12.6%) 대비 크게 증가함. 이는 차별 행위가 교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료 및 행정 인력을 포함한 대학원 관계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외국인은 동료 및 선·후배(51.7%)를 주요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차별 피해 발생 공간은 주로 강의실(30.7%)과 대학원 연구실(29.9%)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화식 장소(20.5%)에서의 발생 비율이 4.5%p 증가함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유형 중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강요'(12.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 및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11.7%),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간섭'(10.6%)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28.0%)이 남성(19.2%)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비율이 높았으며, 내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행위의 가해자는 주로 교수(62.3%)와 동료 및 선·후배(41.5%)가 주를 이루었음. 다만 외국인은 동료 및 선·후배(47.1%)의 비율이 교수(35.3%) 보다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은 교수와 동료 및 선·후배를 각각 60.0%로 동일하게 지목함. 피해 발생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5.2%)이 가장 높았고, 이어 화식 장소(31.7%), 강의실(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원 연구실(31.9%→45.2%)과 회식 장소(22.4%→25.0%)에서의 피해 비율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함

- 특성별로 성별에 따라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49.3%), 남성은 회식 장소(38.9%)를 주요한 피해 공간으로 지목함. 국적별로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48.3%),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35.3%),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40.0%), 장애가 없는 학생은 대학원 연구실(46.5%)의 비율이 높았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8.0%),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7.7%),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6.2%) 등이 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7.4%)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9.3%)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행위 가해자는 주로 교수(54.4%)와 동료 및 선·후배(5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교수(50.0%→54.4%), 강사(5.0%→13.2%), 교직원(11.3%→13.2%)의 비율이 증가함. 다만 외국인(66.7%), 장애가 있는 학생(100.0%), 석박사 통합과정(박사)(71.4%), 4학기 재학 중(64.3%), 인권교육 경험자(70.6%)는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피해 발생한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2.6%)과 강의실·회식 장소(각각 33.8%), 온라인 공간(22.1%) 등의 순이었으며, 대학원 연구실(23.8%→42.6%)과 회식 장소(18.8%→33.8%)에서 발생한 비율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함
- 특성별로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46.3%), 남성은 강의실(38.5%)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50.0%),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50.0%), 장애가 있는 학생은 대학원 연구실과 온라인 공간(각각 50.0%), 장애가 없는 학생은 대학원 연구실(42.4%), 석사 과정은 강의실(50.0%)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업 및 연구 피해 유형은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의 비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9.3%),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8.9%),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8.4%),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6.9%),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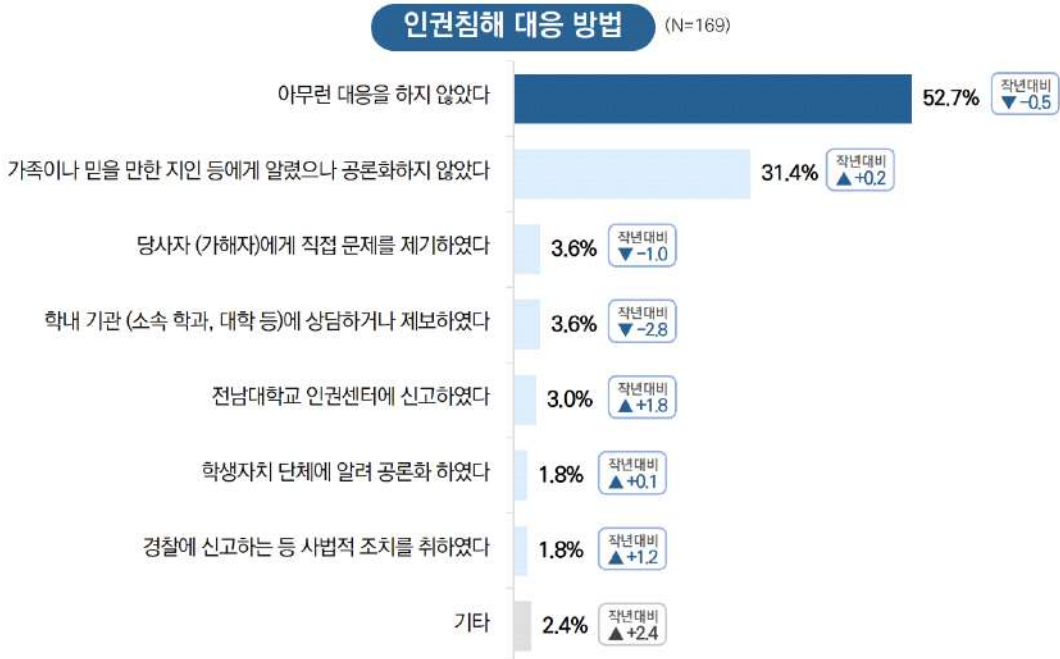
결과 요약

- 특성별로 여성(22.2%)이 남성(16.6%)보다 전반적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내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가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작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업 및 연구 피해 행위 가해자는 교수(79.1%)가 가장 높았으며, 동료 및 선·후배(34.9%), 교직원(9.3%), 조교(7.0%), 강사(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다만 장애가 있는 학생은 동료 및 선·후배(10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5.5%)이었으며, 교수 연구실(27.3%), 강의실(21.6%), 온라인 공간(18.2%), 워크숍·세미나 장소(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학원 연구실(42.9%→45.5%)과 온라인 공간(15.4%→18.2%)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함. 다만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38.5%), 5학기 이상 대학원생은 교수 연구실(75.0%), 비전업 대학원생은 강의실(50.0%)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높았음

3) 인권침해 대응

인권침해 대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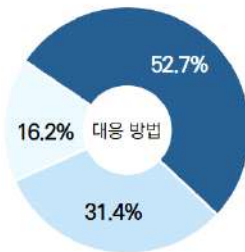
- 인권침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대학원생 중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하는 대응 방법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52.7%), 가족이나 믿을만한 지인들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31.4%)고 응답함
- 결국 인권침해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주변인에게만 알리고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84.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 비전업 대학원생(65.2%)과 석박사 통합과정(박사)(72.2%)에서 타 집단에 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가족 지인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33.3%)과 내국인(35.8%), 전업 대학원생(37.4%),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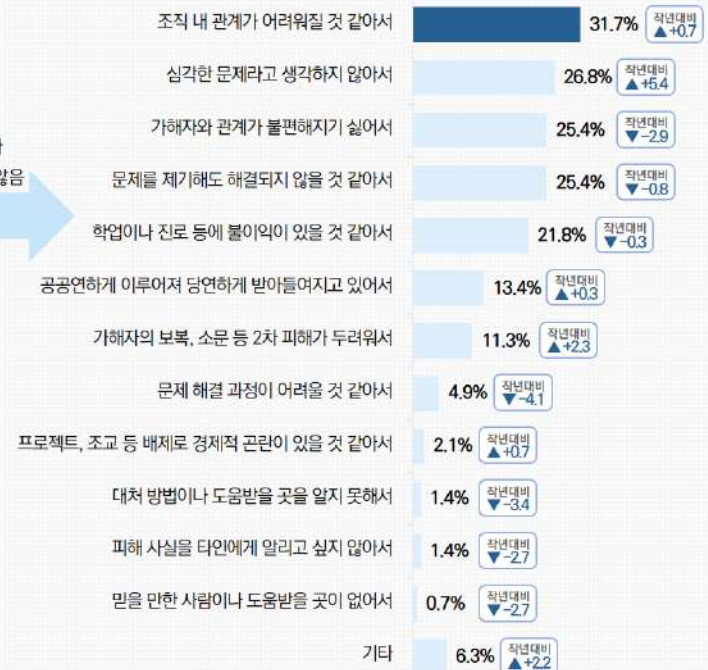
-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로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1.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은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35.6%), 여성과 내국인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3.7%, 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45.8%)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조직 내 관계 악화 우려는 일부 집단에서 두드러졌으며, 내국인(30.5%)과 기혼 대학원생(45.0%),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31.6%), 1학기 재학생(52.9%), 비전업 대학원생(35.1%)에서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조직 내 관계(31.7%)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25.4%) 악화를 우려해 대응·공론화를 하지 않은 비율이 합계 57.1%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원 조직과 공간의 폐쇄적·위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학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제기나 인권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의 진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대응하지 않음
 ■ 공론화 하지 않음
 ■ 문제제기 함

대응하거나 공론화 하지 않음 84.1%

대응하지 않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 (N=142)





인권침해 대응 결과 I

■ 피해자가 경험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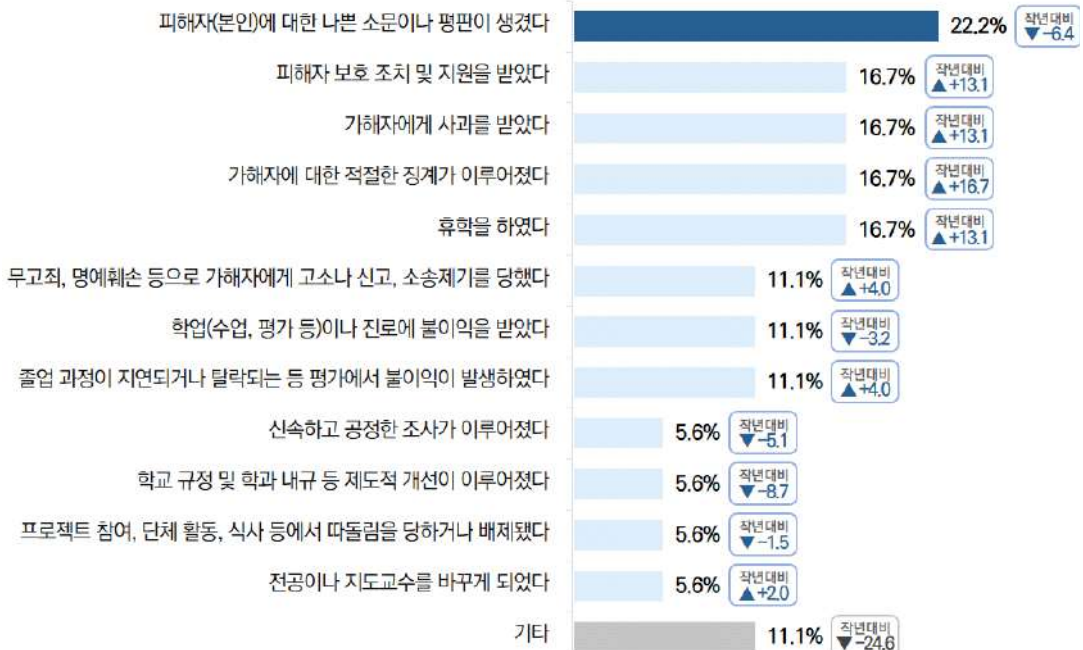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학원생 중 22.2%가 피해자가 경험한 일로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고 응답함
- 2024년(71.4%) 대비, 2025년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경험한 항목들의 합이 83.4%로 12.0%p 증가하여,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	22.2%
휴학을 하였다	16.7%
학업(수업, 평가 등)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았다	11.1%
졸업 과정(논문, 작품, 시험 등)이 지연되거나 탈락되는 등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11.1%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고소나 신고, 소송제기를 당했다	11.1%
프로젝트 참여, 단체 활동, 식사 등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제됐다	5.6%
전공이나 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다	5.6%

- 내국인(36.4%)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42.9%)은 ‘휴학을 하였다’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비전업 대학원생(60.0%)은 전업(21.7%)보다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평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66.7%)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미경험 대학원생(26.7%)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평판’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

(N=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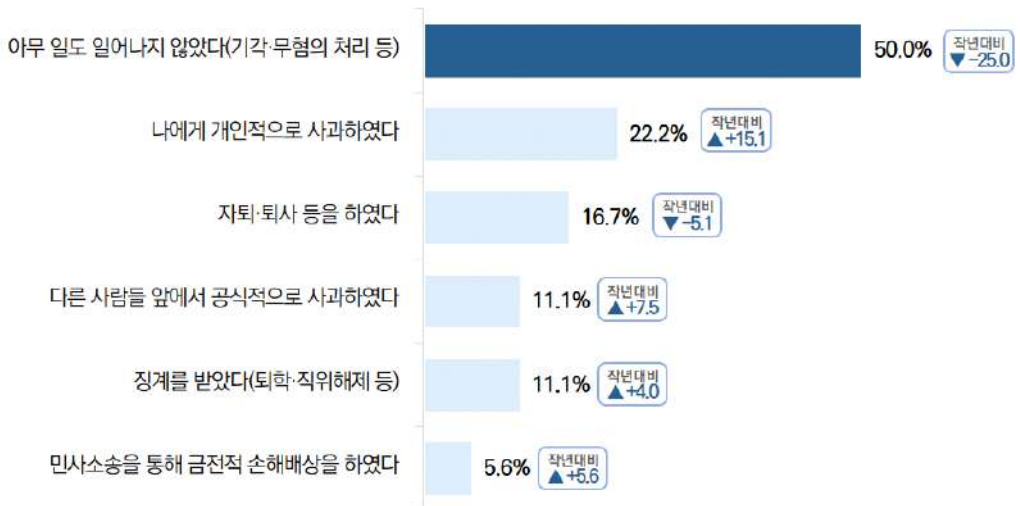


인권침해 대응 결과 II

■ 가해자가 경험한 일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학원생 중 50.0%가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반면, 가해자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증가함(+15.1%p)
 -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55.6%), 내국인(54.5%), 기혼 대학원생(75.0%), 비전업 대학원생(66.7%), 인권교육 경험자(66.7%)에서 높게 나타남
 - 한편 1학기 재학생(80.0%)은 다른 집단과 달리 ‘가해자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인권침해 대응 후 가해자가 경험한 일 (N=18)



요약 및 시사점

-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52.7%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및 믿을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가 31.4%로 나타나 전체의 84.1%가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음. 이러한 비율은 2024년(84.4%)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년도 대비 학내 기관(소속 학과, 대학 등)에 상담하거나 제보(6.4%→3.6%)한 비율은 감소했으며, 인권센터 신고(1.2%→3.0%) 비율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 이는 공식적 기구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성별로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수료 상태, 비전업 대학원생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또한 외국인은 학내 기관 및 인권센터 등 학내 기관을 활용해 대응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1.7%)로 전년도(31.0%)와 유사하게 나타남. 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6.8%),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25.4%),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25.4%), ‘학업이나 진로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전년도(9.0%)와 비교해 ‘2차 피해(소문보복 등)가 두려워서’(11.3%)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위험하거나 두려운 선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여성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3.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30.5%)를 남성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31.1%),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1.1%)를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외국인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5.8%),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7.5%)의 응답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50.0%), 장애가 없는 학생(31.6%)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실제로 인권침해에 대응한 이후 피해자가 경험하는 결과는 문제 제기가 위험하거나 두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험은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22.2%)였으며, 전년도(28.6%)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는 인권침해 대응이 개인의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보다 비공식적 제재와 낙인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학업(수업, 평가 등)이나 진로에 불이익(11.1%),



휴학 경험(16.7%), 지도교수나 전공 변경(5.6%), 졸업 및 평가 지연이나 탈락(11.1%) 등이 확인되어, 문제 제기가 가해자의 책임 강화가 아니라 피해자의 학업 경로 수정과 후퇴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더 나아가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고소나 신고, 소송제기를 당했다'(11.1%로)는 비율이 2024년(7.1%) 대비 증가해, 문제 제기가 법적·제도적 위험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경험은 5.6%로 2024년(10.7%)보다 감소했으며, '학교 규정 및 학과 내규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응답도 5.6%로 2024년(14.3%) 대비 크게 줄어들었음. 그러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받았다'·'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경험은 각각 16.7%로 2024년(각각 3.6%) 대비 증가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6.7%로 2024년의 0%에서 상승하고 있어 일부 긍정적 변화도 확인되고 있음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75.0%)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해자 2명 중 1명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전년도와 비교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다'(7.1%→22.2%),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3.6%→11.1%), '징계를 받았다'(7.1%→11.1%)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 이후 일부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 내국인, 기혼 상태, 비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4) 인권센터 이용 및 역할기대, 인권교육

인권센터 발생 시 신고 경험 및 만족도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전체 응답자 452명 중 3명에 해당됨
- 전년도 대비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 비율이 0.3%p 증가함
 - 남성(1.0%)은 여성(0.4%)보다, 외국인(1.3%)이 내국인(0.5%)보다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박사 과정(2.0%)과 5학기 이상 재학생(2.5%)에서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경험자(0.8%)가 미경험자(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13.3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인권센터 이용 만족도는 26.67점 감소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체감도와 신뢰 수준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상담·조사·후속 조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대비 만족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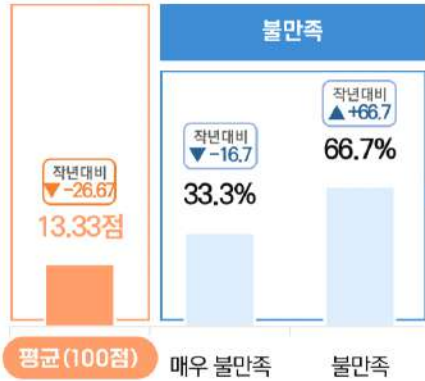


(N=452)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



(N=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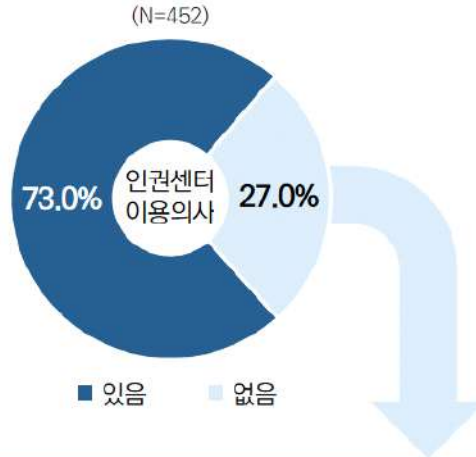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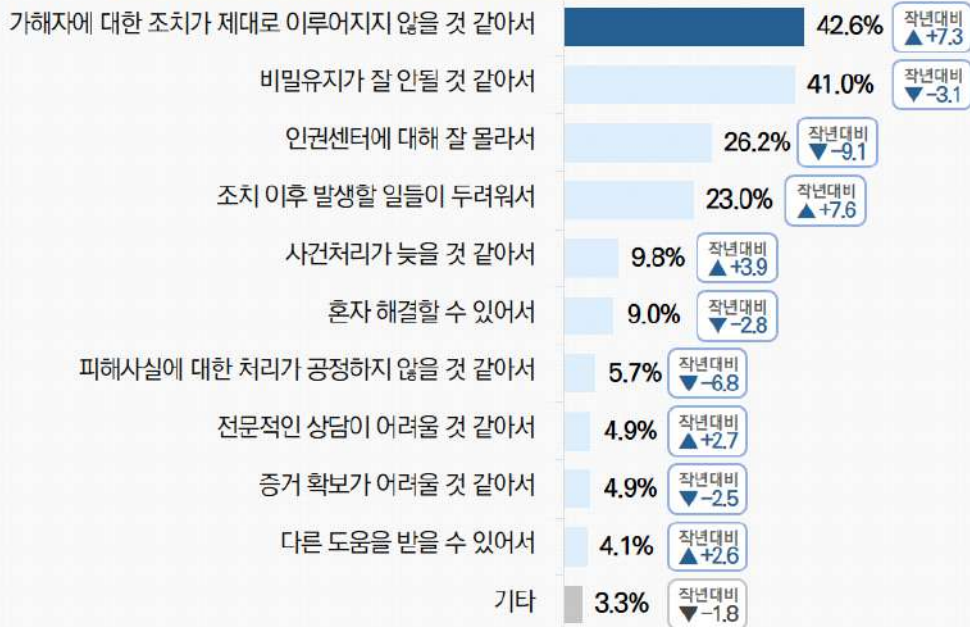
- “비밀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 “사건처리 담당자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 “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인권센터 이용 의향

- 향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0%로 나타남
 - 성별·국적·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78.2%)이 여성(69.3%)보다, 외국인(79.7%)이 내국인(71.6%)보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80.2%)이 미경험 대학원생(70.2%)보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석사)(91.3%)과 1학기 재학생(80.9%)에서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 여부별로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3.2%)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62.5%)보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2.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41.0%)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조치 이후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서’(+7.6%p) 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7.3%p)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반면,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9.1%p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미이용 사유로 나타났으며, 남성(31.0%), 여성(48.1%), 내국인(47.2%),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43.4%), 전업 대학원생(45.1%),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44.0%)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여성은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48.1%), 외국인과 기혼 대학원생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43.8%, 44.4%), 5학기 이상·수료생은 ‘비밀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전업 대학원생은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각 41.9%)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별로는 미경험 대학원생에서 ‘비밀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44.3%), 경험 대학원생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4.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비밀유지 위험 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비와 같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인권센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무력감을 시사함. 또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2%로 전년 35.3% 대비 개선되었으나, 인권센터의 인지도 제고 및 위상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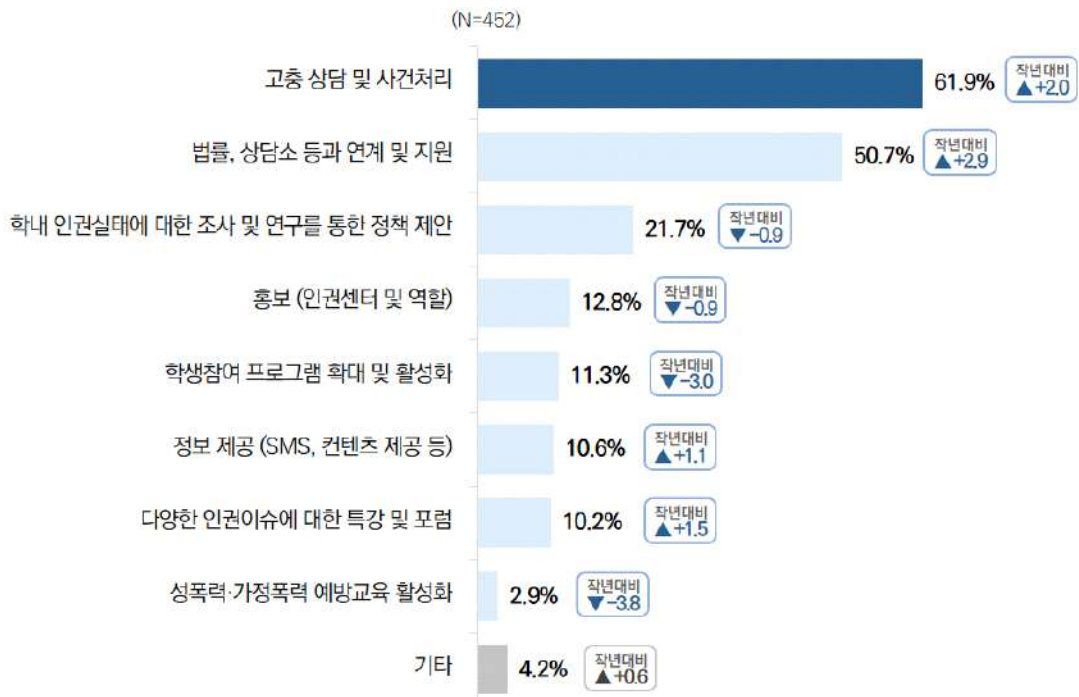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 (N=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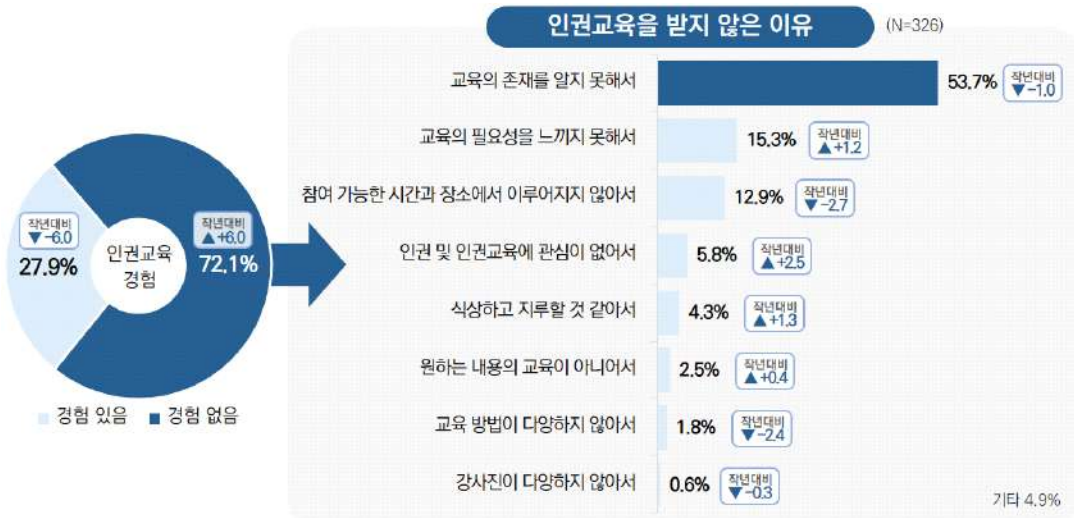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

- 학내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대학원생 중 61.9%가 인권센터가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50.7%)을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p 증가한 반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응답한 비율은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66.5%)은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외국인(44.3%)은 ‘법률·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을 우선 과제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학·학업 특성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박사)(61.4%)은 다른 집단과 달리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을 우선 과제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그 외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가 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한편 전업 대학원생(53.3%)은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인권교육 경험자(66.7%)가 미경험자(60.1%)보다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우선 과제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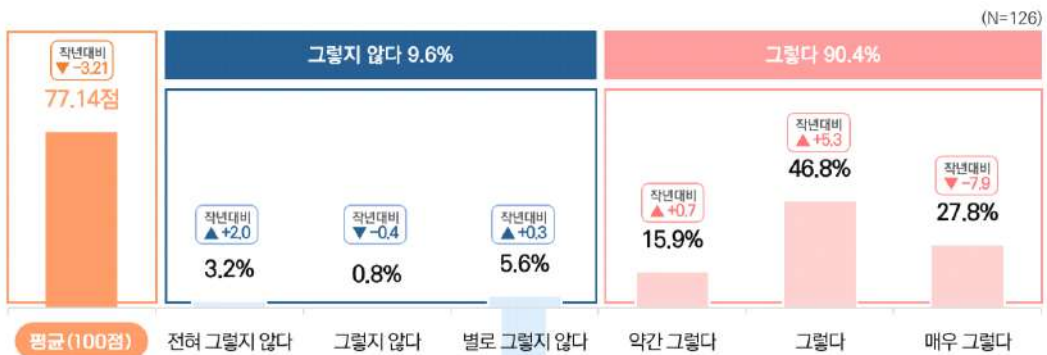
인권교육 경험 및 받지 않은 이유

- 최근 1년 동안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27.9%로, 전체 응답자 452명 중 126명에 해당됨
 - 성별·국적·학업형태에 따라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29.6%)이 남성(24.9%)보다 높고 외국인(32.9%)이 내국인(2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 대학원생(29.9%)이 비전업(21.5%)보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석박사 통합과정(박사)(36.4%)에서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1학기에서 5학기 이상으로 갈수록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3.7%)이 ‘인권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전년도 대비 2025년에는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국적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69.8%)은 내국인(50.5%)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1학기 재학생(60.8%)에서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미수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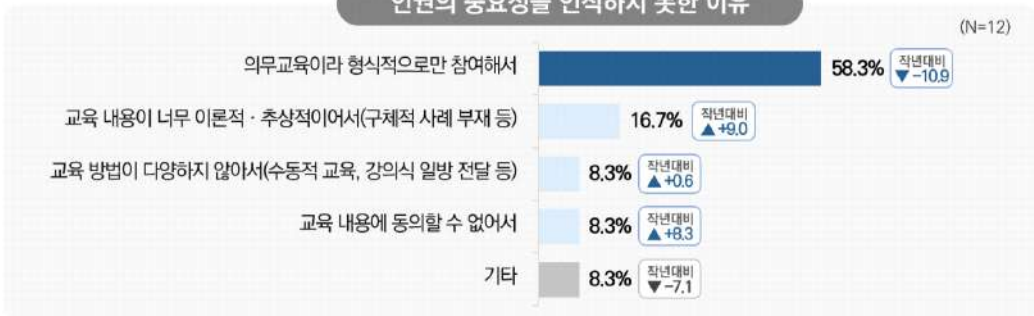


인권교육 후 인권 중요성 인식 변화

-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점수는 평균 77.14점으로, 인권교육이 참여자들의 인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다만 2024년(80.35점)에 비해 -3.21점,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2.6%p 하락함
 - 외국인(83.08점)이 내국인(75.60점)보다 인권교육 후 인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재학과정별로는 석박사 통합과정(박사)(83.75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석사 과정(74.48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인권교육을 받은 후에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8.3%)이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했기 때문에’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함
 - 남성(33.3%)은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와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여성(87.5%)은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해서’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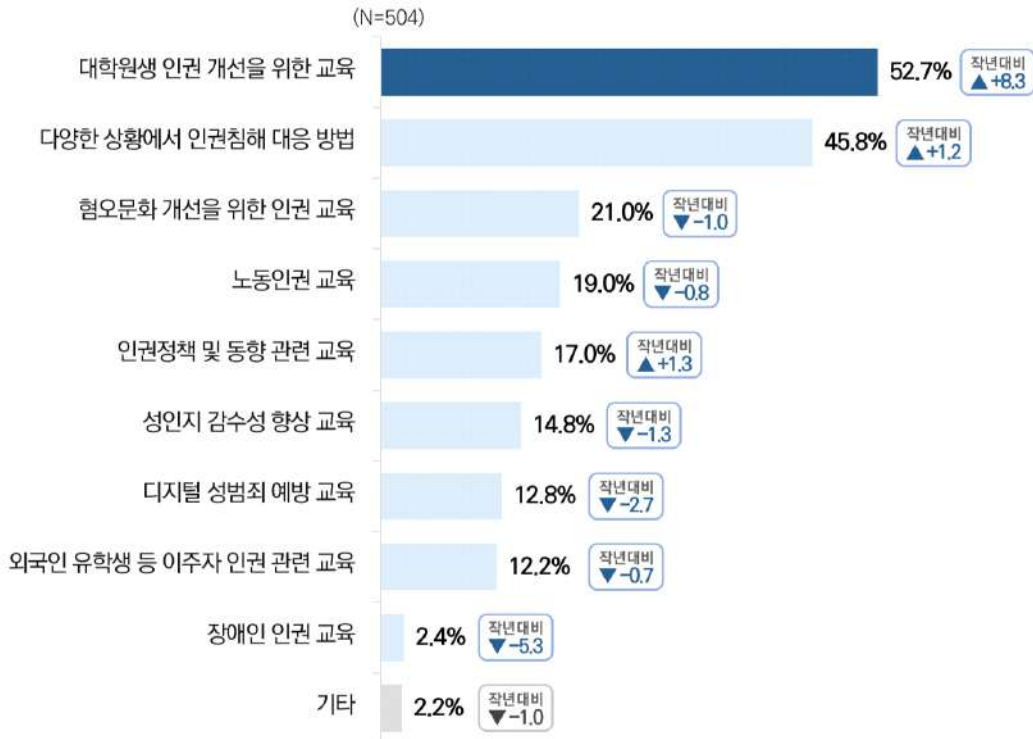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분야 중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응답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도 45.8%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8.3%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장애인 인권 교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5.3%p)
 - 남성(60.6%)과 내국인(57.9%),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52.9%)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가장 많이 희망한 반면, 여성(49.4%)과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외국인(45.6%)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이주자 인권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희망함
 - 재학 학업 특성에 따라서는 3학기 이하 및 비전업 대학원생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4학기 이상 재학생과 전업 대학원생에서는 '대학원생 인권 개선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미경험 대학원생은 경험 대학원생보다 '인권 개선 교육'과 '인권침해 대응 방법' 모두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남



요약 및 시사점

-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전년도 (0.4%) 대비 0.3%p 소폭 증가함. 그러나 대학원 생활 중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37.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센터 신고 경험률은 여전히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인권센터가 대학원생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 인권센터 이용 경험자는 3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13.3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용자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불만족’ 66.7%, ‘매우 불만족’ 33.3%로, 만족 또는 보통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권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 확인됨
- ▶ 인권센터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밀 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사건 처리 담당자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서’가 각각 33.3%(각 1명)로 동일하게 지목되었음. 이는 인권센터 운영에 있어 신뢰, 소통, 절차적 투명성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다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한계가 있음)
- ▶ 향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73.0%는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4명 중 1명 이상은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함. 특히 여성(69.3%)은 인권침해 경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 이용 의향은 남성(78.2%)보다 낮게 나타남. 반면 외국인, 기혼자, 장애가 없는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42.6%)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41%),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26.2%), ‘조치 이후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서’(23.0%), ‘사건처리가 늦을 것 같아서’(9.8%),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가 ‘몰라서’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밀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에 집중되어 있어, 인권센터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 특성별로 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각각 48.1%)의 응답 비율이 높아 보복 및 비밀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으며, 남성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31.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인지도 부족을 더 많이 지적함. 또한 내국인,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 장애가 없는 학생, 2~4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를, 외국인,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비전업 대학원생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 장애가 있는 학생, 5학기 이상수료 상태인 대학원생, 비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는 '비밀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함

- ▶ 인권센터의 우선적 역할로는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6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59.9%)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임. 이는 대학원생들이 인권센터를 교육 및 캠페인 기관보다는 즉각적 구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 상담 및 사건 처리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줌. 이어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50.7%),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21.7%),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특성별로 대체로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외국인은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44.3%)을, 혼인여부별로 그 외(이혼/사별 등)의 상태인 대학원생은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과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각 37.5%)를 인권센터의 우선적 역할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27.9%로 전년도(33.9%) 대비 6.0%p 감소하였음. 이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 특성별로 여성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교육 경험률이 낮음. 국적별로 외국인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내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프로그램 및 안내에 따른 선택적 참여의 결과로 해석됨.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 전원이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취약한 집단에게 인권교육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재학 기간이 길수록 인권교육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업 대학원생의 경험률이 비전업 대학원생보다 높게 나타나, 비전업 대학원생은 시간 및 접근성 문제로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77.14점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다만 2024년(80.35점)에 비해 3.21%p 하락했으며,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 역시 77.2%에서 74.6%로 소폭 감소함
- ▶ 특성별로 남성, 외국인, 사실혼동거(사례수가 적음),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2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는 '의무교육이라 형식적

으로만 참여해서’(5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69.2%) 대비 감소해 형식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줌. 그 외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16.7%),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와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기타(각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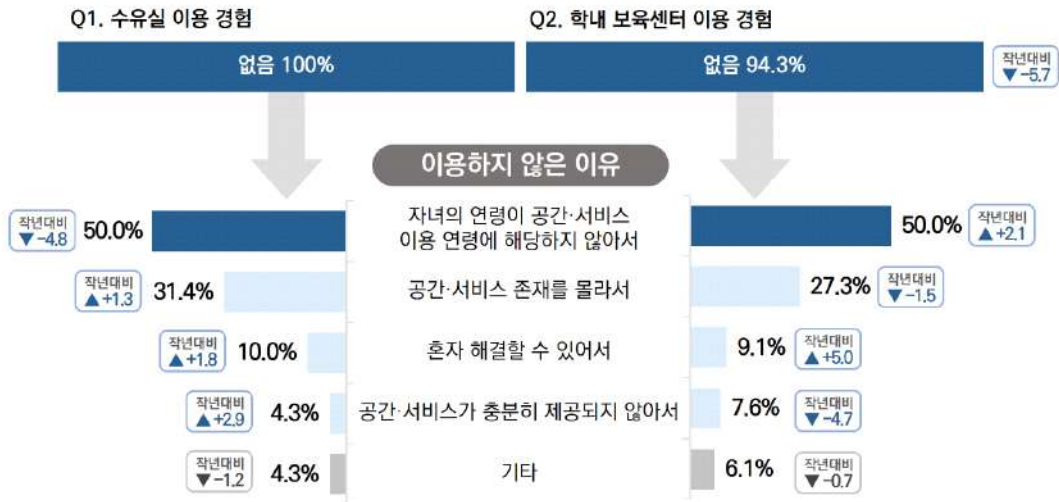
- 특성별로 여성은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해서’(87.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와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각각 33.3%)의 비율이 높아, 여성은 교육의 형식성, 남성은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동의 가능성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로는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53.7%)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3%),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12.9%),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면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54.7%→53.7%)와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15.6%→12.9%)의 응답 비율은 감소 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1%→15.3%)와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3.3%→5.8%)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접근성 문제는 일부 완화됐으나, 교육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한 공감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55.8%)과 남성(51.0%) 모두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에서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52.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45.8%), 혐오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21.0%), 노동인권 교육(19.0%), 인권정책 및 동향 관련 교육(17.0%),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현실에 직접 적용 가능한 인권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남성(60.6%)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여성(49.4%)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으며, 외국인(45.6%)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이주자 인권 관련 교육’,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과 비전업 대학원생(56.1%)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남

5) 대학원 생활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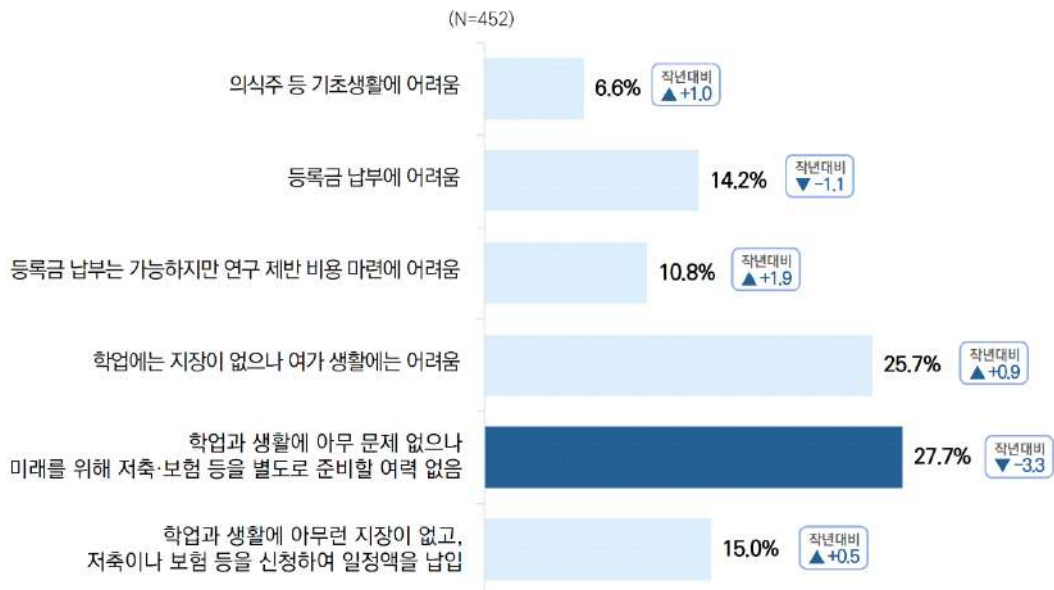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중 15.5%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학내 육아 지원 공간 및 서비스 중 수유실을 이용한 경험은 모두 없고, 학내 보육센터(전남대학교 어린이집)를 이용한 대학원생은 4명으로 조사됨
- 전남대학교 내 수유실(보건실)과 보육센터(어린이집)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각 50.0%)이며, 다음으로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31.4%, 27.3%)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
 - 수유실의 경우 남성(41.7%)과 외국인(41.7%)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60.9%)과 내국인(55.2%)은 '자녀 연령이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내 보육센터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59.5%)과 내국인(57.1%), 비전업 대학원생(57.1%)에서는 '자녀 연령이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45.8%)과 외국인(50.0%)에서는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남대학교 육아 지원 공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N=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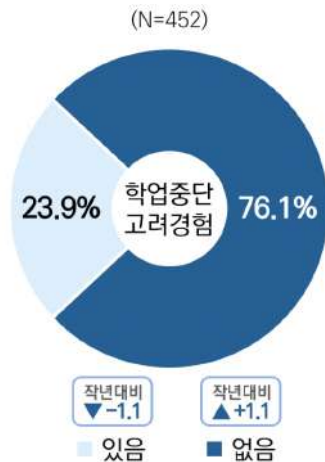
경제적 부담 수준

- 대학원에 다니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25.7%)고 응답한 비율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p 증가한 반면,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 없음’을 응답한 비율은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기혼 대학원생,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과 외국인, 결혼한 적 없는 대학원생,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으나 미래를 위한 저축·보험 등을 준비할 여력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는 전업 대학원생(29.9%)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 비전업 대학원생(27.1%)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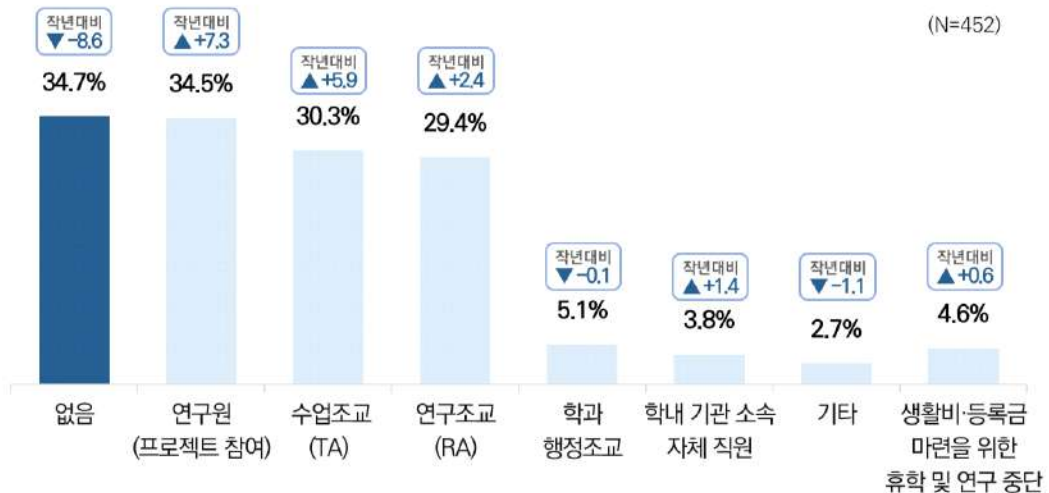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 대학원생 중 23.9%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452명 중 108명에 해당됨
- 2024년 대비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고려 비율이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학업형태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비율이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25.3%)이 남성(21.8%)보다, 비전업 대학원생(28.0%)이 전업(2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적별 차이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확인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석사)과 4학기 재학생(34.5%)에서 학업 중단 고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수준이 ‘매우 큰 부담’ 또는 ‘큰 부담’인 집단에서는 절반 이상이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학업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됨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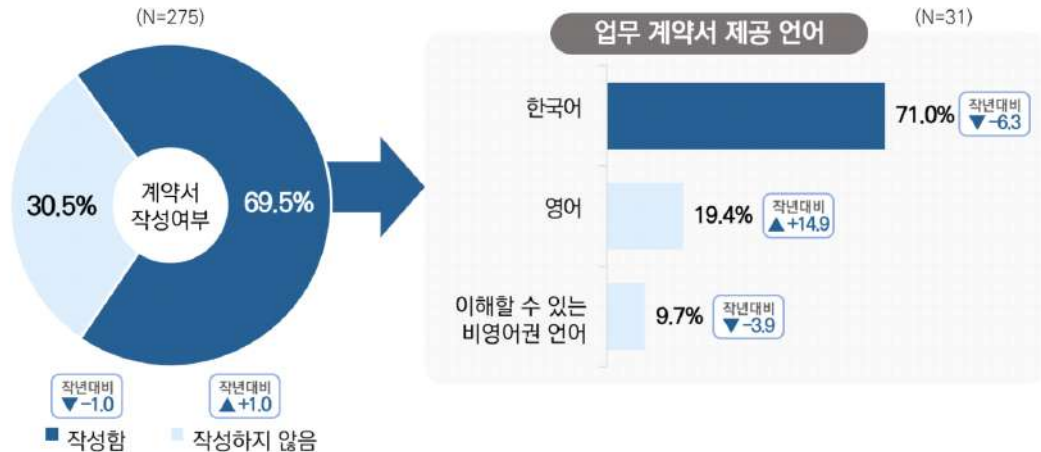
- 대학원에 재학하며 경제적 이유로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했는지 조사한 결과, 34.7%가 수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경제적인 이유로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34.5%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을 수행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수업조교(TA)(30.3%)와 연구조교(RA)(29.4%)를 수행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전년도 대비 연구원을 수행한 비율이 7.3%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수행 프로그램 중 학과 행정조교와 기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 추이를 보임
 - ‘없음’을 제외할 때 남성(40.4%)은 여성(29.6%)보다 연구원 수행 비율이 높았고, 내국인은 연구원(36.2%), 외국인은 연구조교(RA)(38.0%)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학과정·학기별로는 석사 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석사)에서 연구조교(RA) 수행 비율이, 학석사 연계과정(석사)과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박사 과정에서는 연구원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료생은 학과 행정조교 수행 비율(50.7%)이 높게 나타남
 - 학업형태에 따라서는 비전업 대학원생에서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없음’ 응답(72.0%)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 대학원생은 연구원 수행(43.5%)이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에서는 연구원과 수업조교(TA)(각 40.0%) 또는 연구조교(RA)(43.8%) 수행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큰 부담’ 집단에서 연구 중단 경험(12.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업무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제공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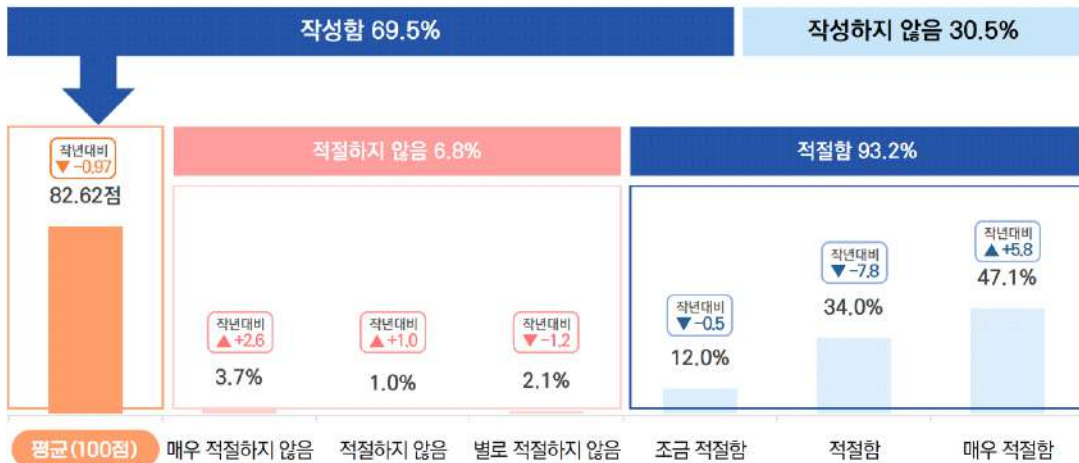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69.5%가 수행한 업무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내국인(73.1%)이 외국인(55.4%)보다 업무 계약서 작성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6.1%)이 미경험 대학원생(66.1%)보다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석사)에서 계약서 작성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1학기에서 4학기로 갈수록 작성 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됨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서가 한국어로 제공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71.0%로 가장 높음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82.62점으로 매우 적절하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며, 전년도 대비 0.97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국적·학업형태·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 평균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83.24점), 내국인(82.88점), 전업 대학원생(83.52점),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87.14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7.20점)과 3학기 재학생(90.48점)에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82.74점)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60.00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업무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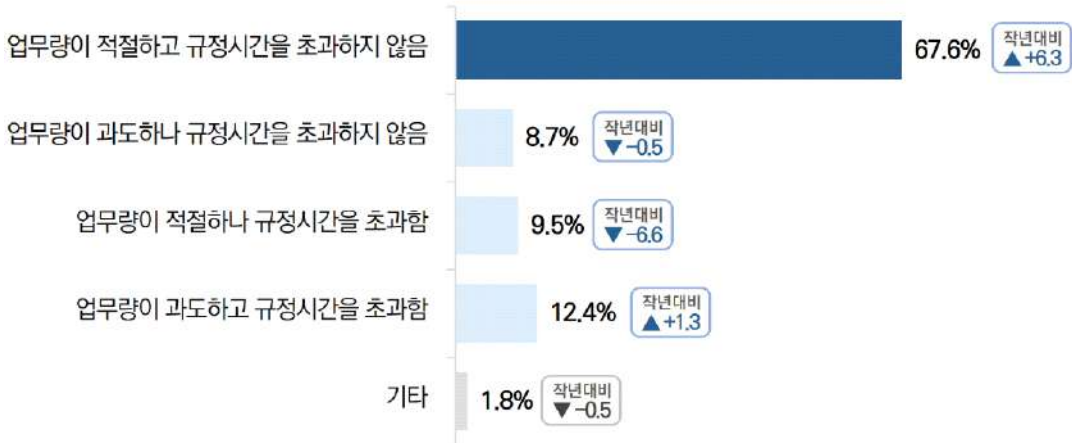




업무량·근무시간 준수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67.6%가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응답 비율이 작년 대비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국적·학업형태에 따라 업무량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72.5%), 외국인(73.2%), 전업 대학원생(68.4%)에서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3.3%)과 1학기 재학생(79.2%)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학기 재학생(55.6%)에서는 낮게 나타남

(N=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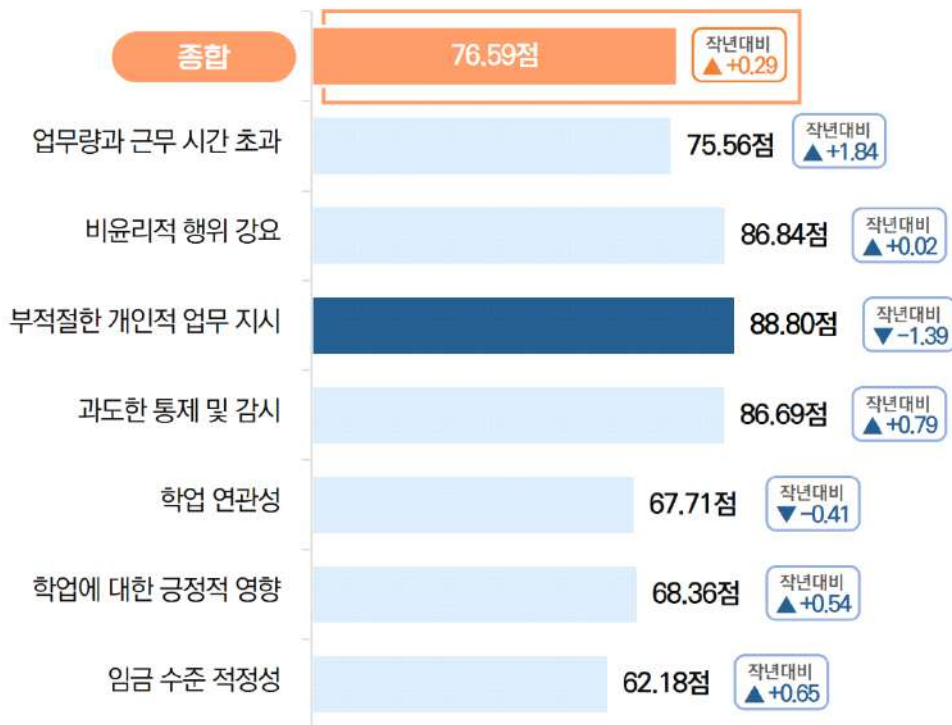




수행 업무 평가

- 업무량·근무시간 초과, 비윤리적 행위 강요,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 지시, 과도한 통제 및 감시 문항은 역코딩을 진행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 수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6.5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0.2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 중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지시’에 대한 평가 점수가 88.80점으로 가장 높고, ‘임금 수준 적정성’(62.18점)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한 점수가 1.84점 증가한 반면,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 지시’에 대한 점수가 1.39점 감소함
 - 성별·국적·학업형태·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수행 업무 평가 종합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78.50점), 내국인(77.80점), 전업 대학원생(77.73점),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8.85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9.14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석박사 통합과정(석사)(72.94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6.87점)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7.86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N=452)





요약 및 시사점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15.5%로 전년도(14.5%) 대비 1.0%p 증가하고 있어 대학원생 구성에서 돌봄 책임을 병행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17.9%)이 남성(12.4%)보다 자녀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여성이 학업 및 연구와 돌봄을 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과정, 5학기 이상 재학 중, 비전업 대학원생에서 자녀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 70명 중 4명(5.7%)에 불과했으며, 이들 모두 학내 보육센터(어린이집)를 이용하고 있었음. 수유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연령이 수유실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5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31.4%)'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학내 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자녀 연령이 수유실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50.0%)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27.3%)가 주요 요인이었음
- 대학원 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다수의 대학원생이 현재의 생활은 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 축적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줌. 이어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25.7%),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15.0%),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14.2%),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면 등록금 납부의 어려움(15.3%→14.2%)은 감소한 반면, 기초생활의 어려움(5.6%→6.6%)과 연구 제반 비용 마련의 어려움(8.9%→10.8%)은 증가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이 등록금에서 생활과 연구를 위한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성별로 다른 집단과 다르게 남성, 내국인, 기혼 상태,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비전업 대학원생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음
-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9%로 대학원생 약 4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지속을 고민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함.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학업 지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성별로 여성(25.3%)이 남성(21.8%)보다, 외국인(24.1%)이 내국인(23.9%)보다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기혼(25.3%)과 사실혼·동거 상태의 대학원생에서 학업

중단 고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돌봄생계 책임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 외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학기 재학 중, 비전업 대학원생에서 학업 중단 고려 비율이 높았음

-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34.7%로, 전년도(43.3%) 대비 감소함. ‘없음’을 제외하고 대학원생이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34.5%), 수업조교(TA)(30.3%), 연구조교(RA)(2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조교 업무(TA-RA) 및 연구 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특성별로 ‘없음’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지원 프로그램 중 연구원(프로젝트 참여),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수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석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석사)은 연구조교(RA)를, 학석사 연계과정(석사)과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박사 과정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50.7%)은 학과 행정조교를 수행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음. 비전업 대학원생(72.0%)은 전업 대학원생(23.2%)보다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전업 대학원생(43.5%)은 연구원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경제적 부담이 클수록 ‘없음’ 비율이 낮고, 경제적 여유가 클수록 ‘없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즉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더 많음.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행정조교 등 근로업무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남
- ▶ 전남대학교 지원 프로그램 수행 대학원생 중 업무의 조건(업무 기간, 업무 시간, 보상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전년도(70.5%)에 비해 1%p 감소함. 지속적으로 약 30%는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특성별로 남성(70.0%)이 여성(68.6%)보다 업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국적별로 내국인(73.1)과 장애가 없는 학생(70.1%)이 외국인(55.4%)과 장애가 있는 학생(25.0%)보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음. 재학 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및 박사 과정으로 갈수록 또한 1학기에서 4학기로 갈수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인권교육 경험자(76.1%)는 무경험자(66.1%)보다 계약서 작성 비율이 약 10%p 높았음
- ▶ 외국인 대학원생 중 업무의 조건(업무 기간, 업무 시간, 보상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제공 언어가 한국어인 비율은 71.0%로 전년도(77.3%)에 비해 6.3%p 감소함. 이는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계약서의 한국어 편중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영어 제공 비율은 4.5%에서 19.4%로 증가했으나 보조적 수준에 머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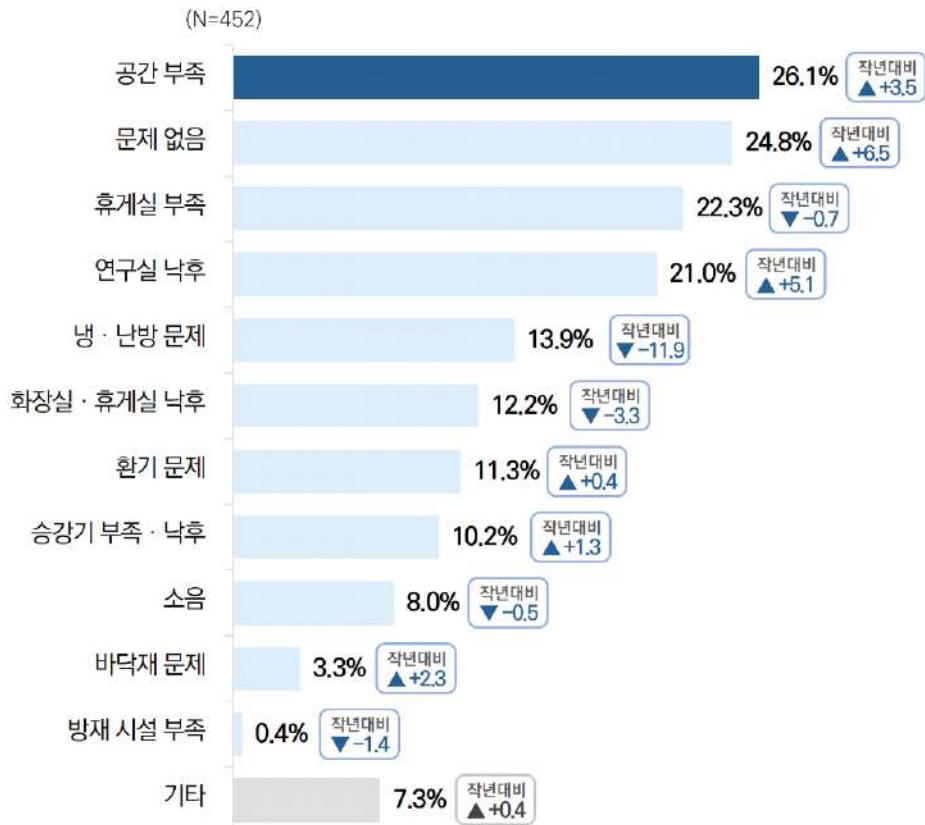


-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82.62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약 6.8%(부정 응답의 합)는 이해에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특성별로 여성, 내국인, 장애가 없는 학생, 학석사연계과정(석사), 3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음. 다만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비전업 대학원생,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학기 재학 중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확인됨. 이는 계약서 제공 언어, 형식, 설명 방식의 접근성 차이가 집단별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로 전년도(61.3%) 대비 6.3%p 증가함. 그러나 3명 중 1명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에서 규정 기준을 벗어난 근무 경험이 있으며,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모두 초과해서 근무한 경험의 비율은 11.1%에서 12.4%로 증가하였음
- ▶ 특성별로 남성, 외국인,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학기에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이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의 업무 평가 종합 점수는 76.59점으로 전년도(76.30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수행 업무 평가 항목별로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 지시'에 대한 평가 점수가 88.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윤리적 행위 강요'(86.84점), '과도한 통제 및 감시'(86.69점), '업무량·근무시간 초과'(75.56점), '학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68.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해 업무량·근무시간 초과 항목의 점수 상승폭(73.72점→75.56점)이 가장 컸으며, 임금 수준 적정성(62.18점) 항목이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가장 낮음
- ▶ 특성별로 남성, 내국인,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 장애가 없는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높았음. 장애가 있는 학생과 비전업 대학원생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집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6) 연구환경 및 건강

연구실 건물 문제점

- 학내 연구실 소재 건물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의 26.1%가 공간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이어서 휴게실 부족(22.3%), 연구실 낙후(21.0%)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24.8%는 연구실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냉·난방 문제를 꼽은 비율이 -11.9%p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국적·학업형태에 따라 연구실 건물 문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남성과 외국인, 전업 대학원생은 ‘문제 없음’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과 내국인, 비전업 대학원생은 ‘공간 부족’을 주요 문제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 여부 및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은 ‘휴게실 부족’(62.5%)을, 수료생은 ‘공간 부족’(42.7%)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여 집단별 체감 문제 유형에 차이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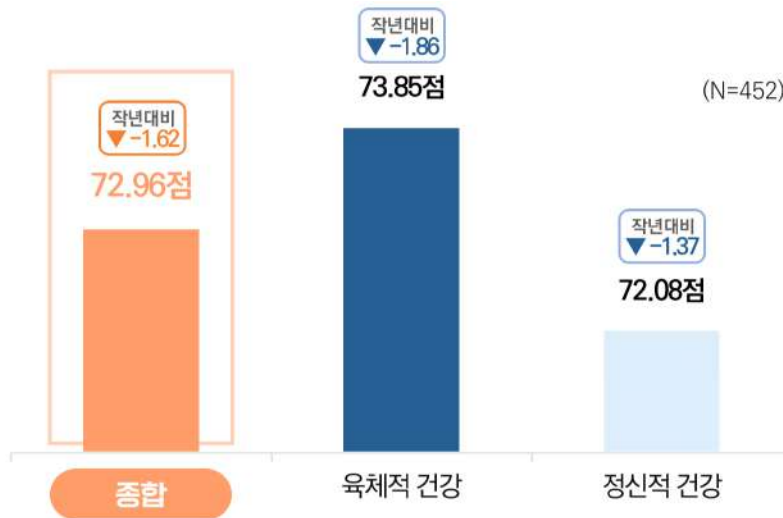
연구 환경 만족도

- 연구 환경 만족도 평가 항목 중 '캠퍼스의 전반적 치안 관리'가 78.01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연구 환경 만족도 점수가 증가했으며, 이 중 '전반적 학업 및 연구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 대비 +2.1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성별·국적·학업형태에 따라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과 전업 대학원생은 여성과 비전업 대학원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장애 여부에 따라서는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건강 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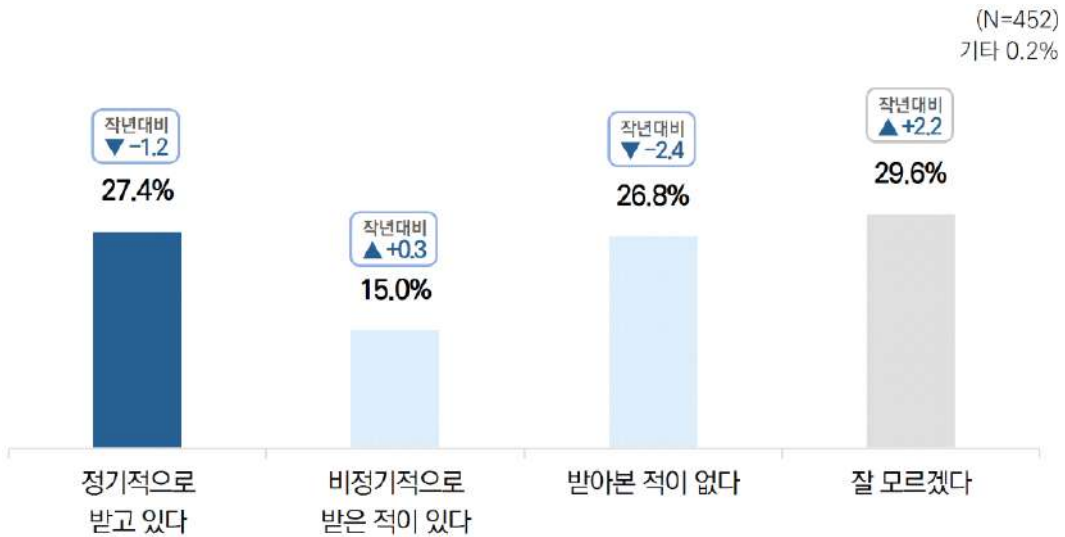
- 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는 72.96점이며, 세부적으로 육체적 건강은 73.85점, 정신적 건강은 72.08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2025년에는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가 1.62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학업형태에 따라 건강 상태 평가 종합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78.60점)이 여성(68.99점)보다 높고, 비전업 대학원생(76.17점)이 전업 대학원생(71.97점)보다 높게 나타남
 - 재학 특성에 따라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석사)(79.74점)과 1학기 재학생(77.23점)에서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박사 과정(70.78점)과 수료생(66.53점)은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3.15점)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62.50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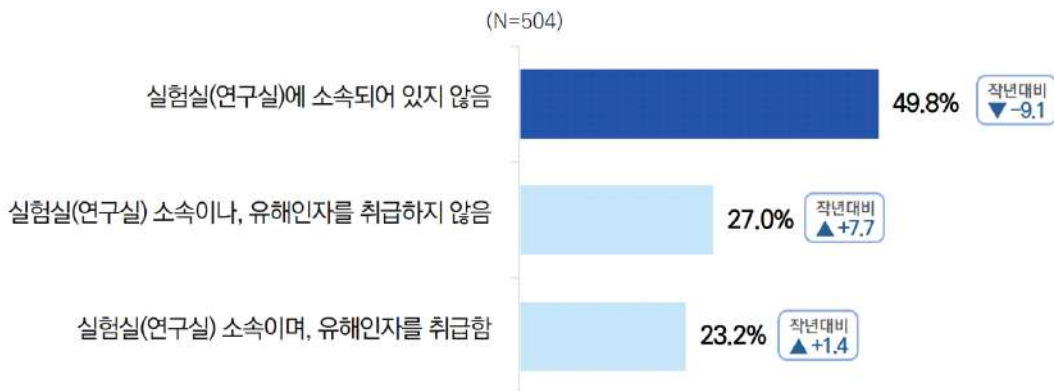
안전교육 경험

- 대학원생 중 26.8%가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27.4%로 나타남
- 작년 대비 '잘 모르겠다'(+2.2%)와 '비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0.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받아본 적이 없다'(-2.4%p)와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1.2%p) 비율은 감소함
 - 남성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30.6%)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잘 모르겠다'(34.6%)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34.2%)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내국인은 '잘 모르겠다'(29.5%)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학·학업 특성에 따라서는 석사 과정(33.9%)과 비전업 대학원생(41.1%)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은 '받아본 적이 없다'(50.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실험실 소속 및 유해인자 취급 여부

-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9.3%)이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4.6%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나,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7%p 증가했으며,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리르 취급한다’는 비율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실험실 소속이나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는다’(40.4%)는 응답이 높고, 여성은 ‘실험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45.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해인자 취급 응답은 내국인(25.2%)이 외국인(21.5%)보다 높게 나타남
 - 재학·학업 특성에 따라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석사)(39.1%)과 수료생(28.0%)에서 유해인자 취급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업 대학원생(31.6%)이 비전업 대학원생(1.9%)보다 유해인자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남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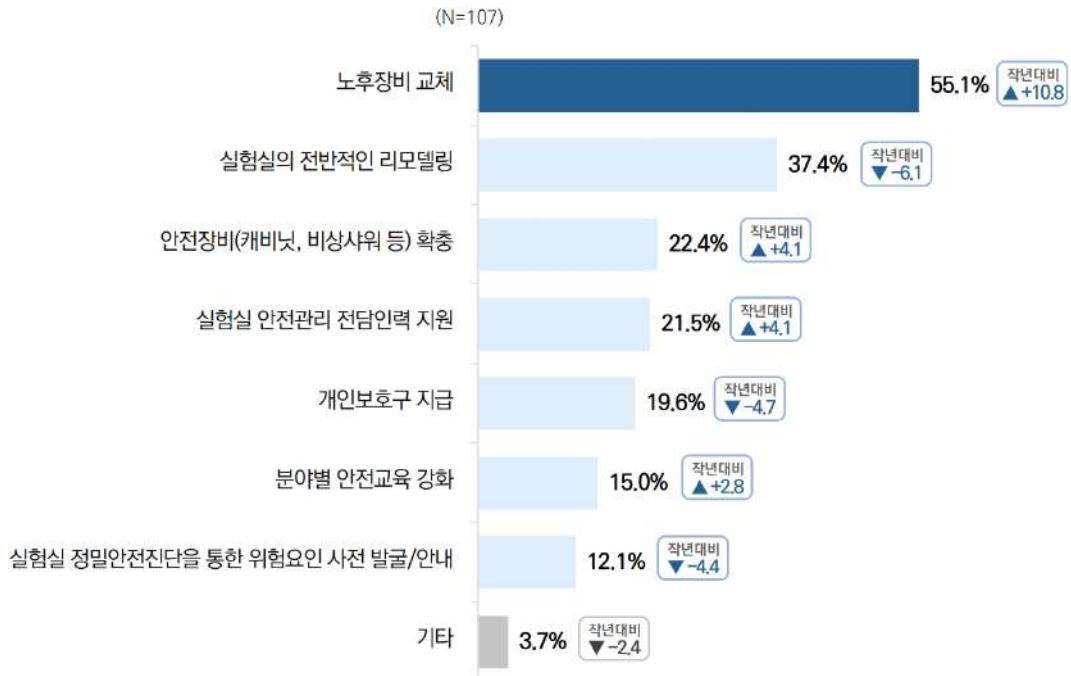
- 전남대학교 실험실(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는 81.78점이며, 평가 항목 중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 구비'에 대한 점수가 89.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년도 대비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3.35점 상승했으며, 특히 세부 항목 중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를 평가한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6.25점)
 - 남성(84.69점)과 내국인(82.44점)은 여성(80.00점)과 외국인(78.07점)보다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재학과정별로는 석박사 통합과정(석사)(90.10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석박사 통합과정(박사)(78.93점)은 가장 낮게 나타남

(N=10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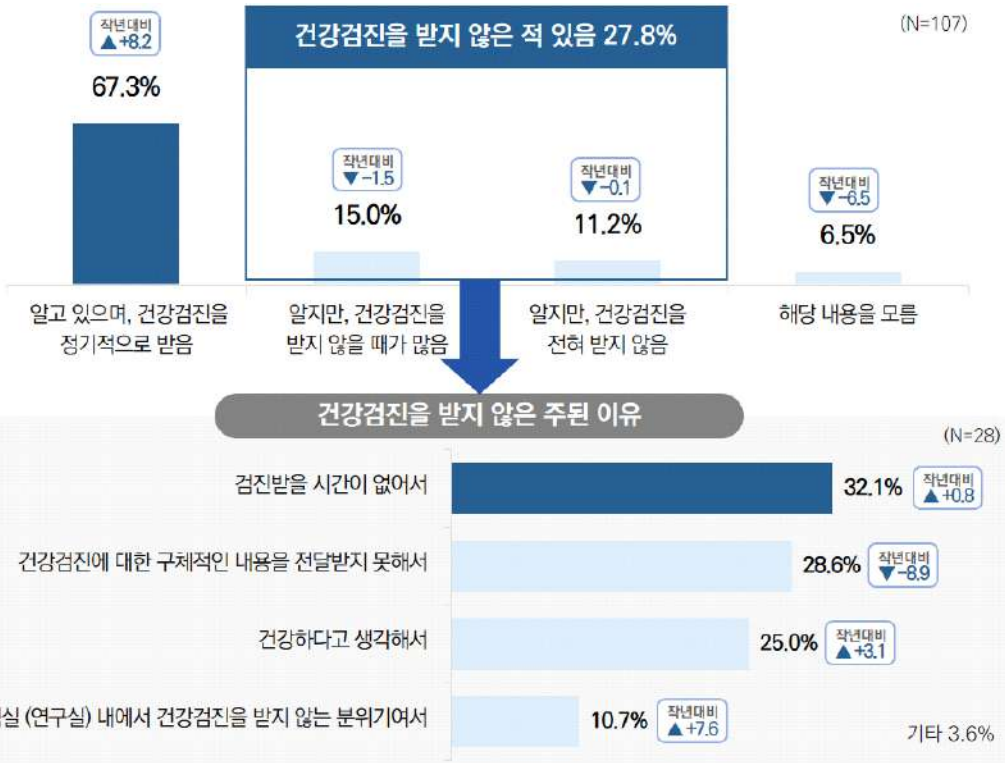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노후장비 교체(55.1%)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37.4%)도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24년 대비 노후장비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8%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남성(60.5%)과 내국인(59.3%)은 ‘노후장비 교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한 반면, 외국인(37.5%)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안내’를 더 시급하다고 응답함
 - 재학과정별로는 석박사 통합과정(석사)(각 44.4%)에서 다른 집단과 달리 ‘실험실 전반 리모델링’과 ‘안전장비 확충’을 우선 과제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인지와 건강검진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대학원생은 67.3%임
- 2024년 대비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p 증가함
 - 여성(69.4%)과 내국인(71.4%)은 타 응답군에 비해 ‘알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학업 특성에 따라서는 수료생(90.0%)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로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작년 대비 ‘실험실(연구실)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위기여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7.6%p) 반면,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은 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은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서’(34.6%)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외국인은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80.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요약 및 시사점

- 학내 연구실 건물 환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간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2024년과 비교해 냉·난방 문제는 25.8%에서 13.9%로 개선된 반면, 공간 부족(22.6%→26.1%)과 연구실 낙후 문제(15.9%→21.0%), 바닥재 문제(1.0%→3.3%)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특성별로 여성은 공간 부족(28.0%)과 휴게실 부족(25.7%)을 주요 문제로 인식한 반면, 남성은 ‘문제가 없다’(32.1%)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국적별로 내국인은 공간 부족(28.2%)을, 외국인인 ‘문제가 없다’는 응답(49.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장애가 있는 학생은 휴게실 부족(62.5%)을, 장애가 없는 학생은 공간 부족(25.7%)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함. 또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박사 과정과 수료 대학원생, 비전업 대학원생에서도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연구 환경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캠퍼스의 치안 관리(78.01점), 캠퍼스 안전교육(74.65점), 캠퍼스 안전 관리(72.30점), 전반적 학업 및 연구 환경(70.27점) 순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전반적 학업·연구 환경 만족도의 상승폭이 2.10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특성별로 남성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5~7점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여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전반적 학업 및 연구 환경과 캠퍼스 안전 관리 만족도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비교해 20점 이상 격차가 있었음. 또한 비전업 대학원생은 전업 대학원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대학원생의 주관적 종합 건강 상태는 72.96점으로 전년도(74.58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육체적 건강(75.71점→73.85점)과 정신적 건강(73.45점→72.08점) 모두 감소하였음
- 특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약 10점 정도 높게 나타남. 외국인은 육체적 건강 평가 점수가, 내국인은 정신적 건강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은 육체적 건강 평가 점수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으며, 정신적 건강 평가 점수 또한 낮게 나타남. 또한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또는 수료 상태, 전업 대학원생이 종합 건강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연구 부담의 누적이 육체적·정신적 건강 저하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함
-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2.4%로 전년도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26.8%로



전년도(29.2%) 대비 2.4%p 감소함. 반면 안전교육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전년도(27.4%) 대비 2.2%p 증가함

- ▶ 특성별로 남성, 외국인, 장애가 없는 학생, 전업 대학원생에서 안전교육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2명 중 1명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비전업 대학원생 또한 41.1%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음
- ▶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는 59.3%로 전년도(50.2%)보다 9.1% 증가함.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된 응답자 중 24.6%가 유해인자를 취급하였으며, 전년도(23.2%) 보다 1.4%p 증가함. 이는 연구실 소속이 확대되면서 유해인자 취급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 특성별로 여성은 실험실(연구실) 비소속 비율이 높았으나 유해인자 취급 비율은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음. 외국인은 실험실(연구실) 소속 비율이 높았으나 유해인자 취급 비율은 내국인보다 낮음. 전업 대학원생 3명 중 1명 이상이 유해인자 취급 실험실에 소속되었음. 장애가 있는 학생, 기혼자, 비전업 대학원생은 실험실(연구실) 비소속 비율이 높았으며, 석박사 통합과정과 전업 대학원생은 유해인자 취급 비율이 높아 연구 위험 환경 노출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됨
- ▶ 실험실(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는 81.78점으로, 전년도(78.43점) 대비 3.35점 상승함. 세부 평가 항목 중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 구비’에 대한 점수가 89.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가 구비되어 있다.’(89.5%), ‘연구실 안전을 위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88.2%), ‘실험실 구성원은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87.3%), ‘실험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8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해 ‘안전교육이 정규교과 안으로 통합돼 있다.’, ‘연구실 안전을 위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 실험실습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는 항목은 개선이 확인됨. 반면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임산부·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라는 항목은 74.7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남. 이는 유해인자 취급 또는 실험실 환경의 위험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산부·장애인 등이 실험실(연구실) 소속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따라 연구실 내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가 요구됨
- ▶ 실험실(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노후장비 교체(55.1%),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37.4%), 안전장비 확충(캐비닛·비상사위 등) 등이 지적되었음. 특히 노후장비 교체 요구는 전년도(44.3%) 대비 10.8%p, 분야별 안전교육 강화는 12.2%로 전년도

(19.6%)보다 7.4%p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응답자는 67.3%이며, 전년도(59.1%) 보다 8.2%p 증가함. 해당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자는 가장 적은 비율인 6.5%로 전년도(13.0%)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특성별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의 인지 및 건강검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 접근성과 언어 장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32.1%)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28.6%)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37.5%→28.6%)가 전년도 대비 8.9%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실험실(연구실)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위기여서(3.1%→10.7%)는 7.6%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내 조직문화적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여성은 시간 부족과 건강검진 정보 미전달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반면, 남성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함. 특히 외국인은 80.0%가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해 정보 접근성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제언

1) 대학원생 자치권 확대를 통한 인권 보호 및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전남대학교에는 「대학원생 권리 장전」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권리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원생의 인권침해는 지도교수 중심의 의존적 운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실 운영, 교육 과정 결정, 노동 조건 설정, 인권 정책 설계 과정 전반에서 대학원생이 배제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여, 인권침해가 개인의 감내와 적응 문제로 전가되는 경향이 강화됨. 따라서 대학원 인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 정책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대학원생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과 참여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야 함
- 대학은 대학원생을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공동 의사결정 주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대학 본부, 대학원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연구환경 개선 위원회 등에 대학원생 대표의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특히 연구실 운영 기준, 조교 업무 제도, 인권 보호 정책, 안전 관리 정책 등 대학원생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 참여 없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 자치기구는 행정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은 제한적임. 대학은 자치기구에 공식 협의권, 정책 제안권, 예산 편성 참여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자치기구가 인권 실태 조사, 노동 환경 모니터링, 연구실 문화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예산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는 인권침해를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자율적 보호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됨
- 대학원 인권침해의 주요 발생 공간이 연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실 단위에서도 참여형 운영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연구실 운영 규칙을 구성원 합의로 마련하고, 정기적인 연구실 회의를 통해 인권 문제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갈등 발생 시 자율 조정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권력 집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음
- 대학원생 자치기구와 인권센터가 협력하여 자치 기반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익명 제보 수집, 위험 연구실 조기 경보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침해 발생 이전에 예방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아울러 자치기구 소속 인권 담당자를 양성하여 상담 연계, 신고 지원, 피해자 보호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보다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대학원생의 노동 환경 개선

-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경험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당한 노동 강요, 과도한 업무 부담, 학업과 무관한 개인적 업무 지시, 지도교수 중심의 위계 관계에 의한 노동 착취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 부당한 간섭·강요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보상 없는 노동 요구로 나타났다으며, 학업 및 연구 피해 또한 지도교수에 의한 학위 지연, 강제 연구 수행, 저작권 침해 등 노동권 침해 성격을 띠고 있었음. 이는 대학원생이 학습연구자이자 동시에 비공식 노동자로 기능하는 이중 지위에 놓여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
-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조교 및 연구원 등 대학 지원 프로그램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 업무량 초과 근무, 임금 적정성에 대한 낮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노동권 침해로 연결되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현실은 대학원 노동을 개인적 헌신이나 관행의 영역으로 방치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대학 차원의 구조 개편과 인권센터의 실질적 보호 기능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대학은 행정조교, 연구조교(RA), 수업조교(TA), 프로젝트 연구원 등 모든 형태의 대학원생 노동을 비공식 관행이 아닌 공식 고용 관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업무 범위, 근무 시간, 보상 수준, 휴식 권리, 초과근무 기준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 연구 및 조교 업무 부과 기준을 학과 및 대학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업무 초과 발생 시 자동 조정 및 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노동 환경 점검과 익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도교수의 권한 남용 여부를 관리하고, 반복 위반 시 인사 평가와 연계한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적 개선을 유도해야 함
- 대학원생 노동에 대한 최소 보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최저 임금 준수, 주당 최대 근무시간 제한, 휴일·야간 근무 보상 기준, 학업 침해 금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시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함

- 인권센터는 성희롱이나 차별 중심 대응을 넘어 대학원 노동권 침해 보호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함. 부당 노동 강요, 무급 노동, 계약 위반, 과도한 업무 부과, 연구 성과 착취 등을 공식 인권침해 유형으로 분류하고, 전담 상담 창구와 조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권 침해를 개인의 인내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를 전환하기 위해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함. 업무 범위, 계약 권리, 부당 노동의 기준,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학원생 건강권 보장 및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 대학원생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점수 감소가 확인됨. 박사 과정 및 장기 재학생, 전업 대학원생일수록 건강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연구 부담의 누적에 건강 악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연구실 환경 문제로 공간 부족, 노후 시설, 안전 장비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소속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건강검진 제도 인지율과 이행률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시간 부족, 정보 전달 미흡, 연구실 문화적 압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의 정보 접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연구실별 업무량 가이드라인과 최대 근무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근무 발생 시 자동 조정 및 휴식 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함. 또한 장기 재학생과 전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과 상담을 연계하여 연구 부담 누적이 심리적 소진과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실 환경 문제와 안전 장비 노후화는 건강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은 노후 연구 장비 교체와 연구실 리모델링을 중장기 안전 투자 과제로 설정하고,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함.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임산부, 장애 학생 등)를 고려한 안전 설계 기준을 의무 반영함으로써 연구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검진 미이행의 주요 원인이 시간 부족과 정보 전달 미흡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대학은 연구 일정과 연계한 정기 검진 기간 운영, 연구실 단위 단체 검진 프로그램 도입,

다언어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다언어 건강검진 안내 및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 검진 참여를 개인 선택이 아닌 연구실 안전 관리 필수 절차로 제도화하여 이행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정신적 건강 상태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연구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이에 따라 대학은 대학원생 전담 심리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 연구 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한 정기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도교수 중심 연구 구조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실 갈등 조정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예방 중심 정신건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장애가 있는 학생, 외국인 대학원생, 임신·출산 경험자 등은 건강 위험과 제도 접근성에서 이중의 취약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장애 접근성을 반영한 연구실 환경 개선, 외국인 대상 의료·검진 정보 다언어 제공, 돌봄 부담을 고려한 건강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함

4) 취약 집단 중심 맞춤형 인권 보호 정책 마련

-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및 장기 재학생, 비전업 대학원생은 거의 모든 인권침해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이는 현재의 인권 정책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권력 관계와 자원 접근성의 불평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여성은 성희롱·성폭력과 부당한 노동 강요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은 외모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가 두드러짐. 장애가 있는 학생은 연구실 접근성과 안전 문제에서 구조적 배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비전업 대학원생과 장기 재학생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권침해 누적 위험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인권 보호 정책이 평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취약 집단의 구조적 위험을 직접 겨냥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줌
- 대학은 인권침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취약 집단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성별, 국적, 장애 여부, 학위 과정, 재학 기간, 학업 형태 등을 반영한 인권 현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함
-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실 내 성차별



및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지도교수 변경 제도를 자동 연계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여성 피해자의 경력 단절과 학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학위 일정 보호 제도와 연구 지원 연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인권센터 상담, 신고 시스템, 계약서, 교육 자료를 다언어로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전담 인권 상담 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외국인 대학원생 커뮤니티와 연계한 인권 교육 및 차별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
- 장기 재학생 대상 정기 인권 상담 및 위험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비전업 대학원생을 위한 야간·온라인 상담 시스템 확대, 교육 접근성 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함

5) 인권교육 실효성 강화

- 대학원생의 인권교육 경험률은 27.9%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존재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 다수는 인권의 중요성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상당 비율이 의무교육의 형식성, 추상적 내용, 실제 사례 부족을 문제로 지적함. 특히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장기 재학생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 접근성과 체감 효과가 낮게 나타나, 보편적 교육 방식이 취약 집단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인권교육 콘텐츠를 연구실 위계 관계, 부당 노동 강요, 성희롱·성폭력, 차별 사례 등 실제 대학원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피해 유형별 실제 사례 분석, 대응 방법 시뮬레이션, 신고 절차 실습 등을 포함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함
-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비전업 대학원생 등 피해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여성 대상 위계 관계에 의한 폭력 예방 교육, 외국인 대상 다언어 인권 안내 및 신고 교육, 장애 학생 대상 연구환경 권리 교육, 비전업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위계 관계, 노동권, 성인지 감수성, 지도 책임 윤리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인권교육 미참여 주요 원인이 '존재를 몰라서'와 '시간·장소 제약'인 점을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 교육 플랫폼 구축, 야간 및 주말 교육 확대, 다언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신입 대학원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교육으로 편입시켜 초기부터 인권 인식과 대응 역량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내용을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절차와 직접 연계하여, 교육 이수가 실제 문제 해결 경로로 이어지도록 구조화해야 함. 교육 과정에서 인권센터 활용법, 보호 조치, 사건 처리 흐름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6) 인권센터의 실질적 구제 기능 강화 및 신뢰 회복

- 인권침해 경험률이 37.6%에 달함에도 인권센터 신고 경험은 1%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남.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밀 유지 불신'이라는 점은 인권센터에 대한 불신을 보여줌
- 대학원생 다수가 인권센터의 최우선 역할로 사건 처리와 구제를 지목한 만큼, 전문 조사 인력 확충 및 고용 안정성 보장과 전담 사건 처리 조직 구축이 시급함
- 인권센터 운영의 중심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두고,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호 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함. 지도교수 변경 지원, 업무 중단 요청, 학업 불이익 방지 조치, 분리 조치 등을 즉각 연계함으로써 피해자가 문제 제기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함. 아울러 비밀 유지 규정을 강화하고, 사건 접근 권한을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함
- 신고 기피의 주요 원인인 불신과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이 단순히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익명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장되고 신고 이후에도 보호가 지속되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또한 다언어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시 접수 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다언어 안내 및 상담은 필수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인권센터의 실질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인권센터는 사건 처리 기관을 넘어 인권 위협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허브로 기능해야 함.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연구실 및 취약 공간 모니터링, 고위험 집단 대상 집중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침해 발생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결과 요약

-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대학원생 인권 환경 전반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침해 경험을 단발적 사건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경험 여부 파악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연구실 사례 조사 등 정성 연구를 병행해야 하며, 대학원생 자치기구와 연계한 참여형 조사 방식 도입을 통해 현장 신뢰도와 응답의 진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실태조사가 단순 보고서 생산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정책 개선 계획과 직접 연계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각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조치, 일정, 책임 부서를 명시한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조사 신뢰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2025학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

조사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조사범위
3. 조사설계
4. 추진체계 및 과정
5. 응답자 특성



조사개요

①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대 이후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대학원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전개되어 왔음(김민섭, 2017; 이보영 외, 2021: 55)
- 대학원생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은 대학원생이 갖는 구조적인 취약성·특수성에서 비롯함(이보영 외, 2021)
 - 대학원생은 연구분야 및 학위취득 여부가 암묵적으로 지도교수에 종속되는 상황(국가인권위원회, 2015)에 놓이며, 이는 대학원생과 교수 간의 위계적 권력관계를 만들어냄
 - 이로 인해 대학원생은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대학원생은 대학 안에서 학생인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이중적 지위 역시 지도교수와의 도제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대학원생의 학습권, 노동권, 자율성 전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특히 ‘랩(lab, laboratory) 체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공계의 경우, 그 실적과 성과가 대학원생들을 통제하는 요인(장다혜·추지현·김석호, 2019: 327)이 될 수 있고, 이는 교수-선배-후배로 이어지는 위계적 훈련 과정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보영 외, 2021: 57).
 -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니더라도, 대학원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 또는 폭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공간임
-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비롯한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임
 -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제29대 고대원총 이음지기·김채영, 2016)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여러 대학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하고



대학원생의 인권 및 학문적 권리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음(이우창, 2015). 대학원생들의 자조적 조직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가 독자적으로 실시되는가 하면, 정부기구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12월 교육부와 전국의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포함한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증진 정책 수립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6)하였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2014년 조사 결과(전국 13개 대학 대상)에 따르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사적노동, 저작권 편취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그 유형 역시 언어·신체·성적 폭력 등 개인 존엄권 침해, 사생활 자유, 사적노동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침해, 물질적 대가 요구 등의 학업연구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하였음. 그러나 부당처우를 당한 대학원생의 65.3%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내면화된 무기력 등을 이유로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남
- 전남대학교는 2011년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설치한 이래, 2016년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음
 - 또한 전남대학교는 2016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2016.8.26.)이하 「권리장전」을 제정하였음
 -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 ‘성별·학력·국적·나이·장애·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기본원칙을 두었음
 - 이 외에도,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저작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공정한 채용 및 근로, 재정운영에 대해 알 권리 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대학원생의 보호를 위해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문제 해결 절차 등의 조항을 통해 대학원생을 보호하고자 명시하고 있음
 - 이렇듯 권리장전에 명시된 항목들은 대학원생들의 다층적 권리를 명시함과 동시에 앞서 기술한 대학원생들의 취약성 및 다중적 지위를 드러냄
- 따라서 이 실태조사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취약한 지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다양한 폭력 경험의 실태 및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이를 위해 이 실태조사가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 및 결과
 - 인권센터 이용 및 인권교육 경험
 -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임신·출산·육아 및 노동 중심)
 - 연구환경 및 건강

2 조사설계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23일 ~ 2025년 10월 31일

■ 조사 대상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 유효표본 : 총 452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모바일 조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조사 링크 발송 및 홍보 안내 포스터 배포
- 한국어·영어 설문 조사 병행
 - 모집단이 크고 교차적 취약성을 갖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고려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더 편한 언어를 선택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음

3 조사내용

- 2025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는 응답자 특성,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인권침해 대응, 인권센터 이용 및 인권교육 경험,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임신·출산·육아 및 노동 중심), 연구환경 및 건강 등으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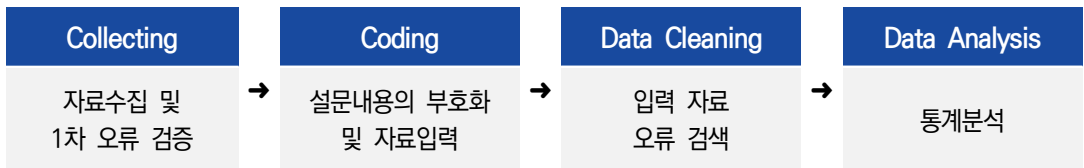
[표 1] 조사 내용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나이, 국적, 혼인상태, 장애여부 ▶ 소속대학, 재학 학위과정, 이수 중인 학기, 전업·비전업 여부
학내 인권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학내 인권 존중 수준 ▶ 개인 인권 존중 수준 ▶ 전남대학교의 학생 인권 보호 노력 정도 ▶ 교수의 학생 인권 보호 노력 정도 ▶ 대학원의 연구공간 제공 노력 정도 ▶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 정도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피해 경험 ▶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 피해 발생의 가해자 및 피해 발생 장소
인권침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경험 후 취했던 행동 ▶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 ▶ 대응 이후 피해자·가해자에게 발생한 일
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인권센터 이용 의사 및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 인권센터의 우선적 역할에 대한 요구 ▶ 인권교육 경험 및 영향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인권센터 교육프로그램 수요
대학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육아 지원공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 경제적 부담 및 이로 인한 학업 중단 고려 경험 ▶ 학내 노동 경험 및 노동자 권리 침해 경험
연구환경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환경 실태 및 수요 ▶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진단 ▶ 안전교육 및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

4 분석방법

1) 자료 처리 및 분석

-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코딩 및 Data Cleaning 과정을 거침
 - 분기 문항의 오류 수정 및 논리적 데이터 검증
 - 불성실 응답 제거 및 기타 문항 정제
-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분석 실시



[그림 3] 자료처리 및 분석 절차

2) 척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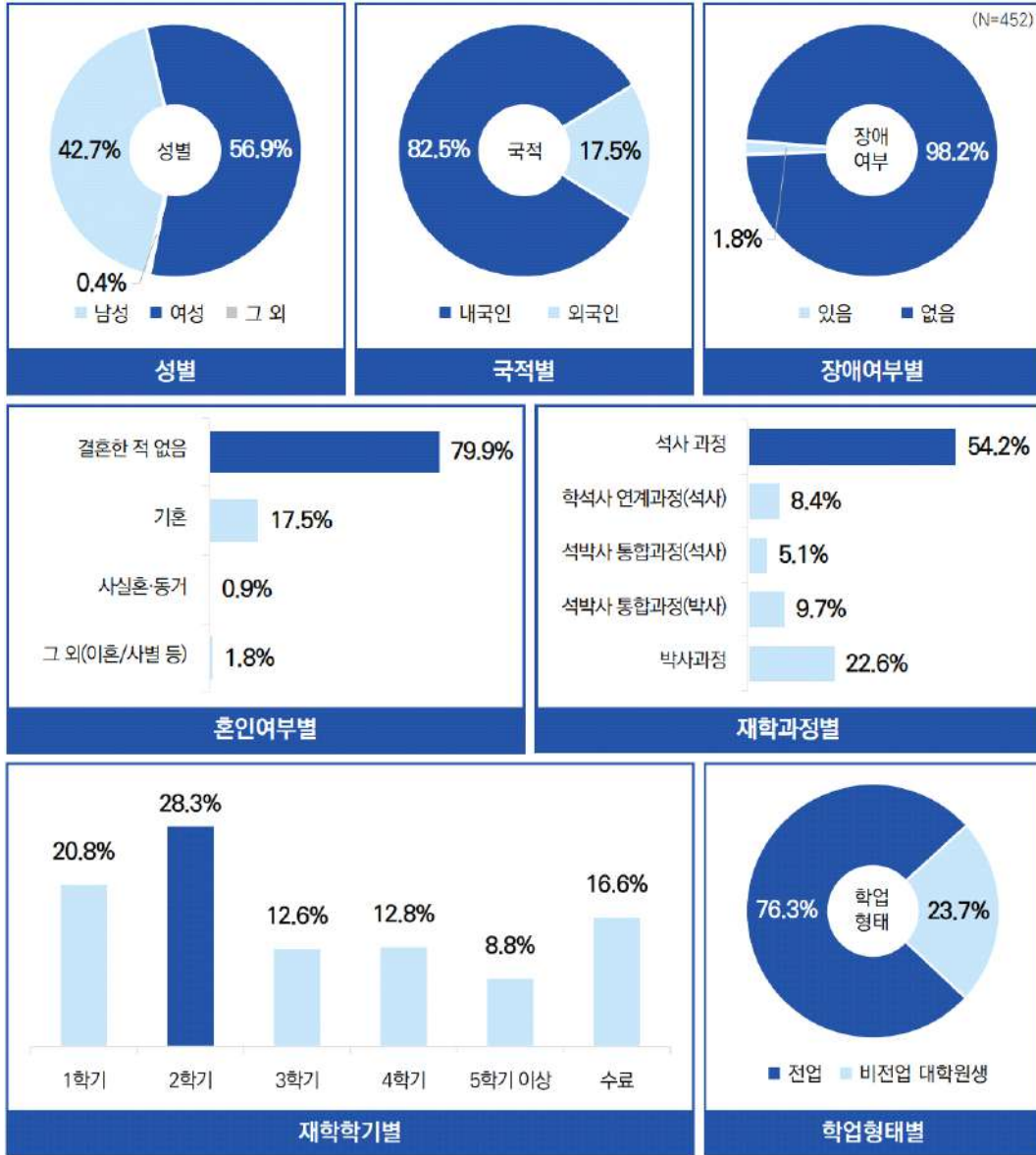
- 조사의 목적 및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6점 리커트 척도¹⁾를 사용
-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은 100점 만점 환산점수로 표기하여 비교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함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리커트 척도의 환산점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S-1) \times \frac{1}{(n-1)} \times 100 \quad (S = \text{응답}, n = \text{리커트 척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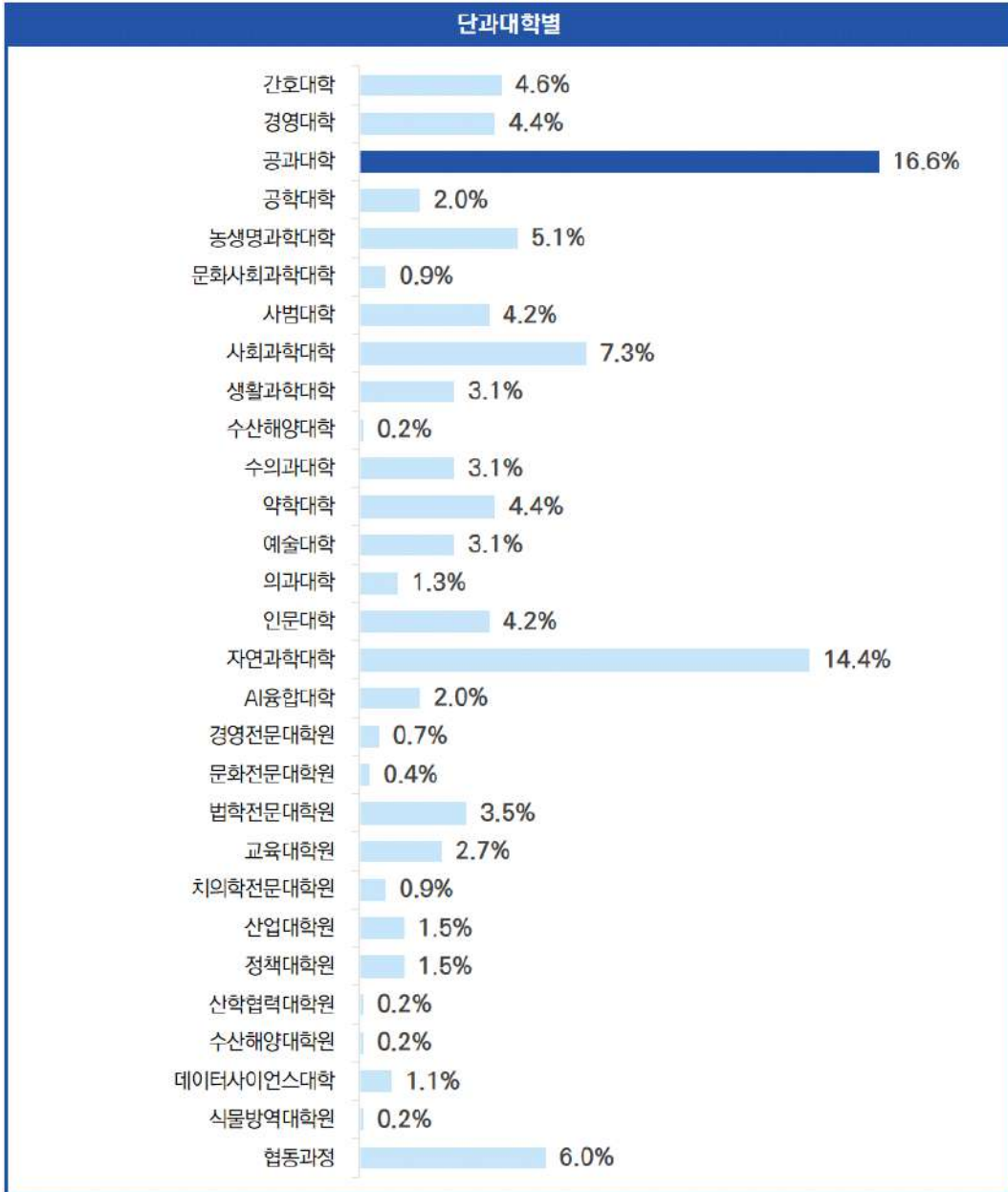
1)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도표 척도.

5 응답자 특성

- 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에 총 452명의 학생이 응답함
 - 성별로 남성 193명(42.7%), 여성 257명(56.9%), 그 외 2명(0.4%)임
 - 국적별로 내국인 373명(82.5%), 외국인 79명(17.5%)임
 - 혼인여부별로 결혼한 적 없음 361명(79.9%), 기혼 79명(17.5%), 사실혼·동거 4명(0.9%), 그 외(이혼/사별 등) 8명(1.8%)임
 - 장애여부별로 장애 있음 8명(1.8%), 장애 없음 444명(98.2%)임
 - 재학과정별로 석사 과정 245명(54.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과정) 38명(8.4%),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과정) 23명(5.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과정) 44명(9.7%), 박사 과정 102명(22.6%)임
 - 재학학기별로 1학기 94명(20.8%), 2학기 128명(28.3%), 3학기 57명(12.6%), 4학기 58명(12.8%) 5학기 이상 40명(8.8%), 수료 75명(16.6%)임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 345명(76.3%), 비전업 대학원생 107명(23.7%)임
 - 소속대학별로 공과대학 75명(16.6%), 자연과학대학 65명(14.4%), 사회과학대학 33명(7.3%), 협동과정 27명(6%), 농생명과학대학 23명(5.1%), 간호대학 21명(4.6%), 경영대학 20명(4.4%), 약학대학 20명(4.4%), 사범대학 19명(4.2%), 인문대학 19명(4.2%), 법학전문대학원 16명(3.5%), 생활과학대학 14명(3.1%), 수의과대학 14명(3.1%), 예술대학 14명(3.1%), 교육대학원 12명(2.7%), 공학대학 9명(2%), AI융합대학 9명(2%), 산업대학원 7명(1.5%), 정책대학원 7명(1.5%), 의과대학 6명(1.3%), 데이터사이언스대학 5명(1.1%), 문화사회과학대학 4명(0.9%), 치의학전문대학원 4명(0.9%), 경영전문대학원 3명(0.7%), 문화전문대학원 2명(0.4%), 수산해양대학 1명(0.2%), 산학협력대학원 1명(0.2%), 수산해양대학원 1명(0.2%), 식물방역대학원 1명(0.2%) 순으로 응답함



[그림 4] 응답자 특성①



[그림 5] 응답자 특성②

[표 2] 응답자특성 I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52	100.0
성별	남성	193	42.7
	여성	257	56.9
	그 외	2	0.4
국적별	내국인	373	82.5
	외국인	79	17.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9.9
	기혼	79	17.5
	사실혼·동거	4	0.9
	그 외(이혼/사별 등)	8	1.8
장애여부별	유	8	1.8
	무	444	98.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54.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과정)	38	8.4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과정)	23	5.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과정)	44	9.7
	박사 과정	102	22.6
재학학기별	1학기	94	20.8
	2학기	128	28.3
	3학기	57	12.6
	4학기	58	12.8
	5학기 이상	40	8.8
	수료	75	16.6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6.3
	비전업 대학원생	107	23.7

BASE : 전체응답자

[표 3] 응답자특성 II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52	100.0
소속대학별	간호대학	21	4.6
	경영대학	20	4.4
	공과대학	75	16.6
	공학대학	9	2.0
	농생명과학대학	23	5.1
	문화사회과학대학	4	0.9
	사범대학	19	4.2
	사회과학대학	33	7.3
	생활과학대학	14	3.1
	수산해양대학	1	0.2
	수의과대학	14	3.1
	약학대학	20	4.4
	예술대학	14	3.1
	의과대학	6	1.3
	인문대학	19	4.2
	자연과학대학	65	14.4
	SI융합대학	9	2.0
	경영전문대학원	3	0.7
	문화전문대학원	2	0.4
	법학전문대학원	16	3.5
	교육대학원	12	2.7
	치의학전문대학원	4	0.9
	산업대학원	7	1.5
	정책대학원	7	1.5
	산학협력대학원	1	0.2
	수산해양대학원	1	0.2
	데이터사이언스대학	5	1.1
	식물방역대학원	1	0.2
협동과정	27	6.0	

BASE : 전체응답자

2025학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I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2. 학내 인권 상황 인식
3.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4. 인권침해 대응
5. 인권센터
6. 대학원 생활
7. 연구환경 및 건강

PART
II

조사결과

① 학내 인권 상황 인식

1)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종합

- 전남대학교의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종합점수는 73.53점으로, 2024년에 비해 0.34점 증가했으며,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종합 점수가 79.69점으로 가장 높음
 - 개인 인권 존중 수준(73.85점) >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72.96점) >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72.39점) >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72.08점) >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70.18점)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학내 인권 상황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의 종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인 내국인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보다 학내 인권 상황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의 종합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남
- 재학학기별로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학내 인권 상황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반면 4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개인 인권 존중 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은 비전업 대학원생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종합 점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

[표 4] 학내 인권 상황 인식 종합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종합 (100점)	전반적 인권 상황	개인 인권 존중	대학의 인권 보호	교수진의 인권보호	대학원의 연구공간 제공노력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노력
2024		504	73.19	71.43	73.93	79.29	73.10	70.99	70.40
2025		452	73.53	70.18	73.85	79.69	72.96	72.08	72.39
성별	남성	193	77.89	74.61	76.99	84.35	77.10	77.93	76.37
	여성	257	70.51	67.16	71.75	76.58	70.19	67.94	69.42
	그 외	2	40.00	30.00	40.00	30.00	30.00	40.00	70.00
국적별	내국인	373	73.02	69.33	73.24	80.16	72.71	71.74	70.94
	외국인	79	75.91	74.18	76.71	77.47	74.18	73.67	79.24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3.55	70.03	74.52	79.56	72.91	72.13	72.19
	기혼	79	75.44	72.15	72.66	82.28	75.95	74.18	75.44
	사실혼·동거	4	75.83	75.00	75.00	75.00	70.00	80.00	8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52.08	55.00	55.00	62.50	47.50	45.00	47.50
장애여부별	유	8	52.08	55.00	47.50	55.00	52.50	52.50	50.00
	무	444	73.91	70.45	74.32	80.14	73.33	72.43	72.79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2.50	69.39	72.90	77.96	72.33	70.29	72.1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1.67	76.32	82.11	86.32	79.47	83.68	82.11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8.70	74.78	80.87	85.22	78.26	79.13	73.9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2.27	68.18	73.18	79.09	69.55	71.82	71.82
	박사 과정	102	72.32	69.61	71.76	80.39	72.35	70.59	69.22
재학학기별	1학기	94	79.08	75.32	80.43	84.89	80.21	75.74	77.87
	2학기	128	75.96	71.72	76.88	83.91	76.09	73.44	73.75
	3학기	57	72.98	69.12	71.93	79.30	71.58	72.98	72.98
	4학기	58	66.78	64.14	67.93	70.69	66.55	67.24	64.14
	5학기 이상	40	69.67	67.50	67.00	74.00	68.50	68.50	72.50
	수료	75	70.09	68.00	70.13	76.27	66.93	70.13	69.0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4.02	71.13	74.67	79.36	73.16	72.87	72.93
	비전업 대학원생	107	71.93	67.10	71.21	80.75	72.34	69.53	70.65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75.34	73.17	76.03	80.95	74.60	72.06	75.24
	없음	326	72.82	69.02	73.01	79.20	72.33	72.09	71.29

BASE : 전체응답자



■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

-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는 70.18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남
 - 매우 열악함(1.8%), 열악함(4.6%), 약간 열악함(15.0%), 약간 좋음(19.7%), 좋음(37.2%), 매우 좋음(21.7%)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4.61점)은 여성(67.16점)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74.18점)은 내국인(69.33점)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72.15점으로 결혼한 적 없음에 해당하는 응답자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03으로 가장 낮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1.24점)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95.00점으로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76.32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75.32점)은 수료를 포함한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64.14점)은 다른 집단보다 평가 점수가 낮았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71.13점)은 비전업 대학원생(67.10점)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3.17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69.02점)보다 학내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표 5]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매우 열악함	열악함	약간 열악함	약간 좋음	좋음	매우 좋음
2024		504	71.43	4.4	4.6	9.3	18.8	37.1	25.8
2025		452	70.18	1.8	4.6	15.0	19.7	37.2	21.7
성별	남성	193	74.61	1.6	3.1	13.0	17.6	32.6	32.1
	여성	257	67.16	1.6	5.8	16.7	21.0	40.9	14.0
	그 외	2	30.00	50.0	-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69.33	1.6	5.4	16.1	19.6	36.5	20.9
	외국인	79	74.18	2.5	1.3	10.1	20.3	40.5	25.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0.03	1.7	5.3	15.0	19.9	35.7	22.4
	기혼	79	72.15	2.5	-	13.9	20.3	44.3	19.0
	사실혼 동거	4	75.00	-	25.0	-	-	25.0	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55.00	-	12.5	37.5	12.5	37.5	-
장애여부별	유	8	55.00	-	25.0	25.0	12.5	25.0	12.5
	무	444	70.45	1.8	4.3	14.9	19.8	37.4	21.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69.39	2.0	4.5	17.1	18.8	35.9	21.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76.32	-	2.6	10.5	10.5	55.3	21.1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4.78	-	4.3	17.4	13.0	30.4	34.8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68.18	2.3	4.5	18.2	22.7	29.5	22.7
	박사 과정	102	69.61	2.0	5.9	9.8	25.5	38.2	18.6
재학학기별	1학기	94	75.32	-	2.1	13.8	20.2	33.0	30.9
	2학기	128	71.72	-	3.1	17.2	18.0	41.4	20.3
	3학기	57	69.12	1.8	7.0	15.8	17.5	35.1	22.8
	4학기	58	64.14	5.2	5.2	20.7	17.2	36.2	15.5
	5학기 이상	40	67.50	-	10.0	17.5	20.0	30.0	22.5
	수료	75	68.00	5.3	5.3	6.7	25.3	41.3	16.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1.13	1.7	4.3	14.2	18.8	38.0
비전업 대학원생		107	67.10	1.9	5.6	17.8	22.4	34.6	17.8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73.17	1.6	6.3	7.9	16.7	43.7	23.8
	없음	326	69.02	1.8	4.0	17.8	20.9	34.7	20.9

BASE : 전체응답자

■ 개인 인권 존중 수준

- 전남대학교 내에서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73.85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혀 존중받지 못함(1.3%), 존중받지 못함(5.8%), 별로 존중받지 못함(8.0%), 약간 존중받고 있음(18.6%), 존중받고 있음(40.0%), 매우 존중받고 있음(26.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6.99점)은 여성(71.75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국적별 응답으로 외국인(76.71점)은 내국인(73.24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별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9%, 4명)이긴 하지만, 사실혼·동거(75.00점)는 전체 집단 중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4.32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47.50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2.11점)은 박사 과정(71.76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80.43점)는 5학기 이상(67.00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74.67점)은 비전업 대학원생(71.21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 있는 대학원생(76.03점)은 인권교육 경험 없는 대학원생(73.01점)보다 학내 개인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표 6] 개인 인권 존중 수준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전혀 존중받지 못함	존중받지 못함	별로 존중받지 못함	약간 존중받고 있음	존중받고 있음	매우 존중받고 있음
2024		504	73.93	4.8	4.6	6.5	15.7	37.3	31.2
2025		452	73.85	1.3	5.8	8.0	18.6	40.0	26.3
성별	남성	193	76.99	1.6	6.2	5.2	15.5	35.8	35.8
	여성	257	71.75	1.2	5.1	10.1	20.6	43.6	19.5
	그 외	2	40.00	-	50.0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73.24	1.1	6.7	8.8	18.5	38.1	26.8
	외국인	79	76.71	2.5	1.3	3.8	19.0	49.4	24.1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4.52	1.4	4.7	8.6	19.1	37.7	28.5
	기혼	79	72.66	1.3	6.3	5.1	19.0	51.9	16.5
	사실혼·동거	4	75.00	-	25.0	-	-	25.0	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55.00	-	37.5	12.5	-	37.5	12.5
장애여부별	유	8	47.50	-	50.0	-	25.0	12.5	12.5
	무	444	74.32	1.4	5.0	8.1	18.5	40.5	26.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2.90	2.0	5.7	9.4	17.1	40.0	25.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2.11	-	-	7.9	13.2	39.5	39.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80.87	-	4.3	4.3	21.7	21.7	47.8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3.18	-	4.5	13.6	20.5	34.1	27.3
	박사 과정	102	71.76	1.0	8.8	2.9	22.5	47.1	17.6
재학학기별	1학기	94	80.43	-	2.1	8.5	13.8	36.2	39.4
	2학기	128	76.88	-	3.1	7.8	16.4	46.9	25.8
	3학기	57	71.93	1.8	7.0	8.8	19.3	38.6	24.6
	4학기	58	67.93	5.2	5.2	8.6	25.9	36.2	19.0
	5학기 이상	40	67.00	2.5	12.5	12.5	15.0	35.0	22.5
	수료	75	70.13	1.3	10.7	4.0	24.0	40.0	20.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4.67	1.4	4.9	7.5	19.1	38.8
비전업 대학원생		107	71.21	0.9	8.4	9.3	16.8	43.9	20.6
인권교육	있음	126	76.03	0.8	7.1	4.8	13.5	46.0	27.8
경험별	없음	326	73.01	1.5	5.2	9.2	20.6	37.7	25.8

BASE : 전체응답자

■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

-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79.69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이며, 지도교수의 인권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전체 항목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함
 - 전혀 노력하지 않음(3.3%), 노력하지 않음(4.4%), 별로 노력하지 않음(3.8%), 약간 노력하고 있음(12.2%), 노력하고 있음(31.6%), 매우 노력하고 있음(44.7%)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79.67점)은 남성(78.59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82.95점)은 내국인(78.78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2%, 6명)이긴 하지만,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90.00점으로 다른 응답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8%, 4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9.12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100.00점으로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80.35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83.86점)은 수료를 포함한 2학기 이상 대학원생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80.82점)은 전업 대학원생(78.66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85.03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6.34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표 7]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별로 노력하지 않음	약간 노력함	노력하고 있음	매우 노력하고 있음
2024		504	79.29	3.8	4.0	3.6	13.3	31.5	43.8
2025		452	79.69	3.3	4.4	3.8	12.2	31.6	44.7
성별	남성	193	84.35	2.6	4.1	2.6	7.8	25.4	57.5
	여성	257	76.58	3.5	4.7	4.7	15.2	36.6	35.4
	그 외	2	30.00	50.0	-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80.16	3.2	5.4	3.2	11.0	30.0	47.2
	외국인	79	77.47	3.8	-	6.3	17.7	39.2	32.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9.56	3.9	4.4	3.9	12.5	28.5	46.8
	기혼	79	82.28	1.3	3.8	-	10.1	46.8	38.0
	사실혼 동거	4	75.00	-	-	25.0	25.0	-	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62.50	-	12.5	25.0	12.5	37.5	12.5
장애여부별	유	8	55.00	12.5	25.0	12.5	12.5	-	37.5
	무	444	80.14	3.2	4.1	3.6	12.2	32.2	44.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7.96	4.5	5.7	4.5	9.8	31.8	43.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6.32	-	5.3	-	7.9	31.6	55.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85.22	-	-	4.3	17.4	26.1	52.2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9.09	-	2.3	4.5	25.0	31.8	36.4
	박사 과정	102	80.39	3.9	2.9	2.9	12.7	32.4	45.1
재학학기별	1학기	94	84.89	1.1	2.1	3.2	9.6	33.0	51.1
	2학기	128	83.91	1.6	3.9	3.9	7.0	31.3	52.3
	3학기	57	79.30	3.5	5.3	-	15.8	33.3	42.1
	4학기	58	70.69	8.6	5.2	5.2	20.7	25.9	34.5
	5학기 이상	40	74.00	2.5	10.0	7.5	10.0	35.0	35.0
	수료	75	76.27	5.3	4.0	4.0	16.0	32.0	38.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9.36	3.8	4.3	4.3	12.2	29.6	45.8
	비전업 대학원생	107	80.75	1.9	4.7	1.9	12.1	38.3	41.1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80.95	3.2	4.8	3.2	11.9	27.0	50.0
	없음	326	79.20	3.4	4.3	4.0	12.3	33.4	42.6

BASE : 전체응답자

■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

- 전남대학교 교수진들이 대학 및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72.96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임
 - 전혀 노력하지 않음(3.1%), 노력하지 않음(5.8%), 별로 노력하지 않음(6.6%), 약간 노력함(18.6%), 노력하고 있음(39.6%), 매우 노력하고 있음(26.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7.10점)은 여성(70.19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국적별 응답으로 외국인(74.18점)은 내국인(72.71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별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9%, 4명)이긴 하지만, 기혼(75.95점)은 전체 집단 중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3.33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2.50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 응답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79.47점)은 석박사 통합과정(박사)(69.55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학기별 응답으로 1학기(80.21점)은 수료(66.93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학업형태별 응답으로 전업 대학원생(73.16점)은 비전업 대학원생(72.34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 응답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4.60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2.33점)보다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표 8]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별로 노력하지 않음	약간 노력함	노력하고 있음	매우 노력하고 있음
2024		504	73.10	4.0	7.1	5.6	19.4	30.6	33.3
2025		452	72.96	3.1	5.8	6.6	18.6	39.6	26.3
성별	남성	193	77.10	2.6	4.7	6.2	14.0	36.3	36.3
	여성	257	70.19	3.1	6.6	7.0	21.8	42.4	19.1
	그 외	2	30.00	50.0	-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72.71	3.2	6.7	5.6	18.5	39.7	26.3
	외국인	79	74.18	2.5	1.3	11.4	19.0	39.2	26.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2.91	3.3	5.3	6.6	19.9	38.0	26.9
	기혼	79	75.95	2.5	3.8	5.1	13.9	49.4	25.3
	사실혼 동거	4	70.00	-	25.0	-	25.0	-	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47.50	-	37.5	25.0	-	37.5	-
장애여부별	유	8	52.50	-	37.5	12.5	12.5	25.0	12.5
	무	444	73.33	3.2	5.2	6.5	18.7	39.9	26.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2.33	2.9	8.2	6.1	16.3	40.4	26.1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79.47	-	-	5.3	18.4	50.0	26.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8.26	4.3	-	4.3	26.1	21.7	43.5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69.55	2.3	4.5	13.6	27.3	27.3	25.0
	박사 과정	102	72.35	4.9	3.9	5.9	18.6	43.1	23.5
재학학기별	1학기	94	80.21	1.1	2.1	7.4	13.8	35.1	40.4
	2학기	128	76.09	1.6	6.3	3.9	15.6	43.8	28.9
	3학기	57	71.58	3.5	5.3	5.3	22.8	42.1	21.1
	4학기	58	66.55	5.2	6.9	12.1	17.2	43.1	15.5
	5학기 이상	40	68.50	2.5	7.5	7.5	30.0	32.5	20.0
	수료	75	66.93	6.7	8.0	6.7	21.3	37.3	20.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3.16	2.9	5.8	7.2	18.0	38.8	27.2
	비전업 대학원생	107	72.34	3.7	5.6	4.7	20.6	42.1	23.4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74.60	3.2	3.2	4.8	20.6	42.9	25.4
	없음	326	72.33	3.1	6.7	7.4	17.8	38.3	26.7

BASE : 전체응답자

■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 전남대학교 대학원이 대학원생에게 개인·공동 연구 공간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72.08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임
 - 전혀 노력하지 않음(3.1%), 노력하지 않음(6.6%), 별로 노력하지 않음(6.6%), 약간 노력함(20.4%), 노력하고 있음(36.9%), 매우 노력하고 있음(26.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7.93점)은 여성(67.94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국적별 응답으로 외국인(73.67점)은 내국인(71.74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별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9%, 4명)이긴 하지만, 사실혼·동거(80.00점)은 전체 집단 중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2.43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2.50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 응답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3.68점)은 박사 과정(70.59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학기별 응답으로 1학기(75.74점)은 수료(70.13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학업형태별 응답으로 전업 대학원생(72.87점)은 비전업 대학원생(69.53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 응답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2.06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2.09점)보다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낮음

[표 9]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별로 노력하지 않음	약간 노력함	노력하고 있음	매우 노력하고 있음
2024		504	70.99	6.0	6.0	7.1	19.0	31.9	30.0
2025		452	72.08	3.1	6.6	6.6	20.4	36.9	26.3
성별	남성	193	77.93	1.6	5.2	4.7	17.6	32.6	38.3
	여성	257	67.94	3.9	7.8	8.2	22.6	40.1	17.5
	그 외	2	40.00	50.0	-	-	-	50.0	-
국적별	내국인	373	71.74	3.5	7.5	5.9	20.1	35.9	27.1
	외국인	79	73.67	1.3	2.5	10.1	21.5	41.8	22.8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2.13	3.0	6.1	7.2	21.9	34.3	27.4
	기혼	79	74.18	2.5	5.1	5.1	15.2	50.6	21.5
	사실혼 동거	4	80.00	-	25.0	-	-	-	75.0
	그 외(이혼/사별 등)	8	45.00	12.5	37.5	-	12.5	37.5	-
장애여부별	유	8	52.50	12.5	25.0	12.5	12.5	12.5	25.0
	무	444	72.43	2.9	6.3	6.5	20.5	37.4	26.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0.29	4.1	8.6	6.5	18.4	37.6	24.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3.68	-	-	2.6	13.2	47.4	36.8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9.13	-	4.3	4.3	26.1	21.7	43.5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1.82	2.3	6.8	9.1	20.5	34.1	27.3
	박사 과정	102	70.59	2.9	4.9	7.8	26.5	36.3	21.6
재학학기별	1학기	94	75.74	4.3	4.3	7.4	13.8	33.0	37.2
	2학기	128	73.44	3.9	6.3	4.7	15.6	43.0	26.6
	3학기	57	72.98	1.8	5.3	1.8	29.8	40.4	21.1
	4학기	58	67.24	3.4	3.4	15.5	25.9	34.5	17.2
	5학기 이상	40	68.50	-	15.0	5.0	27.5	27.5	25.0
	수료	75	70.13	2.7	9.3	6.7	21.3	36.0	24.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2.87	3.2	5.5	6.7	21.2	35.4	28.1
	비전업 대학원생	107	69.53	2.8	10.3	6.5	17.8	42.1	20.6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72.06	2.4	8.7	4.8	19.8	38.9	25.4
	없음	326	72.09	3.4	5.8	7.4	20.6	36.2	26.7

BASE : 전체응답자

■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

- 전남대학교 대학원이 대학원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72.39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임
 - 전혀 노력하지 않음(2.9%), 노력하지 않음(7.5%), 별로 노력하지 않음(7.7%), 약간 노력함(16.8%), 노력하고 있음(36.7%), 매우 노력하고 있음(28.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6.37점)은 여성(69.42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국적별 응답으로 외국인(79.24점)은 내국인(70.94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별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9%, 4명)이긴 하지만, 사실혼·동거(80.00점)은 전체 집단 중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2.79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0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 응답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2.11점)은 박사 과정(69.22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재학학기별 응답으로 1학기(77.87점)은 4학기(64.14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학업형태별 응답으로 전업 대학원생(72.93점)은 비전업 대학원생(70.65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 응답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5.24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1.29점)보다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높음

[표 10]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별로 노력하지 않음	약간 노력함	노력하고 있음	매우 노력하고 있음
2024		504	70.40	4.8	7.7	7.7	20.2	29.6	30.0
2025		452	72.39	2.9	7.5	7.7	16.8	36.7	28.3
성별	남성	193	76.37	1.6	5.7	5.7	19.7	31.1	36.3
	여성	257	69.42	3.9	8.9	9.3	14.4	40.9	22.6
	그 외	2	70.00	-	-	-	50.0	50.0	-
국적별	내국인	373	70.94	3.5	8.0	8.0	18.2	35.1	27.1
	외국인	79	79.24	-	5.1	6.3	10.1	44.3	34.2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2.19	3.0	6.9	8.9	17.5	34.6	29.1
	기혼	79	75.44	2.5	6.3	1.3	16.5	48.1	25.3
	사실혼 동거	4	80.00	-	25.0	-	-	-	75.0
	그 외(이혼/사별 등)	8	47.50	-	37.5	25.0	-	37.5	-
장애여부별	유	8	50.00	12.5	37.5	-	12.5	12.5	25.0
	무	444	72.79	2.7	7.0	7.9	16.9	37.2	28.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2.16	2.9	9.4	5.3	17.1	37.1	28.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2.11	-	-	5.3	18.4	36.8	39.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3.91	4.3	13.0	-	21.7	13.0	47.8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1.82	2.3	9.1	11.4	13.6	31.8	31.8
	박사 과정	102	69.22	3.9	3.9	14.7	15.7	43.1	18.6
재학학기별	1학기	94	77.87	4.3	5.3	3.2	10.6	37.2	39.4
	2학기	128	73.75	3.1	5.5	5.5	19.5	38.3	28.1
	3학기	57	72.98	-	10.5	7.0	17.5	36.8	28.1
	4학기	58	64.14	6.9	10.3	12.1	20.7	25.9	24.1
	5학기 이상	40	72.50	-	7.5	7.5	22.5	40.0	22.5
	수료	75	69.07	1.3	9.3	14.7	13.3	40.0	21.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2.93	2.6	7.0	8.7	16.2	35.9	29.6
	비전업 대학원생	107	70.65	3.7	9.3	4.7	18.7	39.3	24.3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75.24	0.8	4.8	8.7	20.6	33.3	31.7
	없음	326	71.29	3.7	8.6	7.4	15.3	38.0	27.0

BASE : 전체응답자

❖ ‘학내 인권 상황 인식’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학내 인권 상황 인식은 2024년 73.19점에서 2025년 73.53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인권보호 노력이 79.69점(2024년 79.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개별 지도교수의 의존도를 보여줌. 이어 개인 인권 존중 수준(73.93점→73.85점), 교수진의 인권 보호 노력(73.10점→72.96점),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70.40점→72.39점),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70.99점→72.08점), 전반적 인권 상황 평가(71.43점→70.18점) 순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이 70점 이상으로,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학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은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70.99점→72.08점)과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70.40점→72.39점)으로 제한적 부분에 그침
- 특성별로 여성보다 남성, 내국인보다 외국인, 사실혼·동거 상태, 장애가 없는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재학학기별로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 인권 교육 경험자가 대체로 학내의 인권 상황 및 인권 존중과 관련한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남
- 여성은 개인 인권 존중, 대학의 인권 보호, 편의시설·연구환경 제공 노력 전반에서 일관되게 낮은 평가.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 간 학내 인권 상황 인식 관련 모든 항목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평균 점수가 낮아 대학원의 인권 환경이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에게는 거의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 재학 학기별로 1학기가 학내 인권 상황 인식 관련 항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4학기가 최저로 대학원 생활이 지속될수록 인권 인식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비전업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인권 보호 노력 항목을 제외하고 전업 대학원생보다 학내 인권 상황 인식 관련 항목의 평균 점수가 낮음
-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과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의 평균 점수가 낮아 대학의 환경 및 편의시설 등 불편을 야기하는 물적자원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②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1)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종합

- 2025년 대학원 생활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이며, 인권침해 유형 중 차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24.3%) >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20.1%)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15.5%) >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43.6%)은 남성(29.0%)보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세부 유형 모든 항목에서도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44.3%)은 내국인(36.2%)보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학내 인권 상황 및 존중에 대한 점수는 더 높은 반면, 차별 경험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그 외(이혼/사별 등)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다른 응답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별로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75.0%)은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36.9%)보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43.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40.9%)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47.5%)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43.9%)은 전업 대학원생(35.7%)보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39.9%)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31.7%)보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11]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종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권침해 경험 비율(한 번이라도 침해 경험 있는 비율)				
			종합	차별피해 경험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2024		504	34.3	27.0	석사 과정	15.9	17.9
2025		452	37.6	29.2	24.3	15.5	20.1
성별	남성	193	29.0	21.8	19.2	14.0	16.6
	여성	257	43.6	34.2	28.0	16.3	22.2
	그 외	2	100.0	100.0	50.0	50.0	100.0
국적별	내국인	373	36.2	27.1	24.4	15.5	20.4
	외국인	79	44.3	39.2	24.1	15.2	19.0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37.1	28.5	25.2	16.6	19.9
	기혼	79	35.4	29.1	17.7	11.4	16.5
	사실혼 동거	4	50.0	25.0	25.0	25.0	25.0
	그 외(이혼/사별 등)	8	75.0	62.5	50.0	-	62.5
장애여부별	유	8	75.0	75.0	62.5	25.0	37.5
	무	444	36.9	28.4	23.6	15.3	19.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37.6	27.8	22.9	15.5	18.8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26.3	15.8	23.7	10.5	10.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26.1	26.1	17.4	8.7	17.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40.9	29.5	25.0	15.9	22.7
	박사 과정	102	43.1	38.2	29.4	18.6	26.5
재학학기별	1학기	94	25.5	16.0	17.0	11.7	14.9
	2학기	128	33.6	23.4	18.0	10.9	12.5
	3학기	57	40.4	33.3	31.6	22.8	28.1
	4학기	58	46.6	39.7	31.0	24.1	31.0
	5학기 이상	40	47.5	40.0	30.0	12.5	20.0
	수료	75	45.3	38.7	30.7	17.3	25.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35.7	27.5	24.6	15.7	20.3
	비전업 대학원생	107	43.9	34.6	23.4	15.0	19.6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31.7	22.2	22.2	13.5	17.5
	없음	326	39.9	31.9	25.2	16.3	21.2

BASE : 전체응답자

2) 차별 피해 경험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차별 피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29.2%이며, 세부 항목 중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 14.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도 12.0%로 높게 나타남
 - 지도교수(10%) > 출신 학과 또는 전공(9.7%) > 외모 등 신체조건(8.2%) > 출신 지역 또는 국가·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각 8.0%) >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 및 지원과정(7.5%) > 정치적 견해(6.0%) > 경제적 배경(4.9%) > 병력(질병, 질환)·인종 또는 피부색(각 4.4%) > 종교(3.8%) > 혼인 여부·임신·출산 또는 육아 여부(각 3.5%) >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2.9%) > 대학원생자치기구(원우회 등) 활동(2.2%) > 장애(2.0%)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34.2%)은 남성(21.8%)보다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직·간접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는데, 남성은 성별 13.0%, 나이·지도교수 각 10.4%, 여성은 성별 14.8%, 나이 13.2%로 수치에 있어 차이를 보임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39.2%)은 내국인(27.1%)보다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내국인은 성별(13.1%)과 나이(11.3%)를 이유로 한 직·간접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외국인은 외모 등 신체조건·출신지역(각 21.5%)을 이유로 한 직·간접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혼인상태에 따른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9%, 4명)이긴 하지만,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타 응답군에 비해 가장 낮았고, 그 외(이혼/사별 등) 상태인 대학원생(62.5%)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음. 결혼한 적 없는 대학원생은 성별(17.2%)과 나이(11.4%)를 이유로 한 직·간접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기혼 대학원생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13.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이혼/사별 등) 상태 대학원생은 나이(25.0%)를 이유로 한 직·간접차별이 가장 높았음
- 장애여부별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75.0%)은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28.4%)보다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38.2%)은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 재학학기별로 4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39.7%)은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34.6%)은 전업 대학원생(27.5%)보다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31.9%)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22.2%)보다 차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표 12] 차별 피해 경험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차별 피해 직·간접 경험						
			종합	①	②	③	④	⑤	⑥
2024		504	27.0	14.9	14.5	2.2	5.4	10.1	5.6
2025		452	29.2	14.2	12.0	2.0	4.4	8.2	4.4
성별	남성	193	21.8	13.0	10.4	2.1	4.2	9.3	6.2
	여성	257	34.2	14.8	13.2	2.0	4.7	7.4	3.1
	그 외	2	100.0	50.0	-	-	-	-	-
국적별	내국인	373	27.1	13.1	11.3	1.1	4.0	5.4	1.9
	외국인	79	39.2	19.0	15.2	6.3	6.3	21.5	16.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8.5	17.2	11.4	1.9	4.4	8.9	4.4
	기혼	79	29.1	1.3	13.9	2.5	3.8	6.3	3.8
	사실혼·동거	4	25.0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62.5	12.5	25.0	-	12.5	-	12.5
장애여부별	유	8	75.0	50.0	25.0	12.5	25.0	12.5	12.5
	무	444	28.4	13.5	11.7	1.8	4.1	8.1	4.3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7.8	13.9	11.8	0.8	4.9	7.8	3.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5.8	10.5	7.9	5.3	2.6	7.9	2.6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26.1	17.4	17.4	-	4.4	4.4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29.5	9.1	6.8	2.3	-	6.8	4.6
	박사 과정	102	38.2	17.7	14.7	3.9	5.9	10.8	6.9
재학학기별	1학기	94	16.0	7.5	8.5	2.1	3.2	4.3	5.3
	2학기	128	23.4	11.7	7.8	0.8	0.8	6.3	2.3
	3학기	57	33.3	19.3	24.6	1.8	8.8	12.3	8.8
	4학기	58	39.7	24.1	15.5	5.2	12.1	15.5	6.9
	5학기 이상	40	40.0	17.5	10.0	2.5	7.5	15.0	5.0
	수료	75	38.7	13.3	12.0	1.3	1.3	4.0	1.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7.5	15.7	9.9	2.3	4.9	8.4	5.2
	비전업 대학원생	107	34.6	9.4	18.7	0.9	2.8	7.5	1.9
인권교육	있음	126	22.2	13.5	7.1	-	3.2	6.4	0.8
경험별	없음	326	31.9	14.4	13.8	2.8	4.9	8.9	5.8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성별을 이유로 차별 / ② 나이를 이유로 차별 / ③ 장애를 이유로 차별 / ④ 병력(질병, 질환)을 이유로 차별 /
 ⑤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 / ⑥ 인종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

[표 13] 차별 피해 경험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차별 피해 직·간접 경험					
			⑦	⑧	⑨	⑩	⑪	⑫
2024		504	7.3	6.5	6.5	4.4	6.9	5.0
2025		452	8.0	8.0	9.7	3.8	6.0	3.5
성별	남성	193	7.8	5.2	8.3	4.7	6.2	3.1
	여성	257	8.2	10.1	10.9	3.1	5.8	3.9
	그 외	2	-	-	-	-	-	-
국적별	내국인	373	5.1	7.2	9.9	2.1	5.4	3.0
	외국인	79	21.5	11.4	8.9	11.4	8.9	6.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8.0	7.2	8.9	3.3	6.1	3.9
	기혼	79	7.6	8.9	11.4	5.1	5.1	1.3
	사실혼·동거	4	-	-	25.0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12.5	37.5	25.0	12.5	12.5	12.5
장애여부별	유	8	12.5	25.0	37.5	12.5	25.0	12.5
	무	444	7.9	7.7	9.2	3.6	5.6	3.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5.7	7.4	9.8	3.3	5.7	2.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2.6	-	5.3	2.6	2.6	2.6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3.0	8.7	13.0	8.7	-	4.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4.6	4.6	4.6	-	4.6	2.3
	박사 과정	102	15.7	13.7	12.8	5.9	9.8	5.9
재학학기별	1학기	94	4.3	4.3	6.4	2.1	3.2	2.1
	2학기	128	6.3	5.5	10.2	2.3	5.5	1.6
	3학기	57	14.0	8.8	12.3	5.3	3.5	7.0
	4학기	58	15.5	13.8	10.3	6.9	8.6	8.6
	5학기 이상	40	5.0	10.0	12.5	7.5	12.5	5.0
	수료	75	6.7	10.7	9.3	2.7	6.7	1.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5	6.7	9.6	4.1	5.5	3.8
	비전업 대학원생	107	9.4	12.2	10.3	2.8	7.5	2.8
인권교육	있음	126	4.8	5.6	5.6	0.8	4.0	3.2
경험별	없음	326	9.2	8.9	11.4	4.9	6.8	3.7

BASE : 전체응답자

주) ⑦ 출신 지역(외국인은 출신 국가를)을 이유로 차별 / ⑧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기타 그 밖의 학력인정)를 이유로 차별 / ⑨ 출신 학과 또는 전공을 이유로 차별 / ⑩ 종교를 이유로 차별 / ⑪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 / ⑫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

[표 14] 차별 피해 경험③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차별 피해 직·간접 경험					
			⑬	⑭	⑮	⑯	⑰	⑱
2024		504	4.0	3.4	5.4	6.5	3.4	7.5
2025		452	3.5	2.9	4.9	10.0	2.2	7.5
성별	남성	193	3.1	3.6	4.2	10.4	2.6	5.7
	여성	257	3.9	2.0	5.5	9.3	2.0	9.0
	그 외	2	-	50.0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3.8	2.1	4.3	10.2	2.1	7.5
	외국인	79	2.5	6.3	7.6	8.9	2.5	7.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8	3.3	5.3	9.4	1.9	7.5
	기혼	79	7.6	1.3	2.5	8.9	3.8	6.3
	사실혼·동거	4	-	-	-	25.0	-	-
	그 외(이혼/사별 등)	8	-	-	12.5	37.5	-	25.0
장애여부별	유	8	-	12.5	12.5	50.0	12.5	25.0
	무	444	3.6	2.7	4.7	9.2	2.0	7.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3.3	2.0	4.1	7.4	1.6	7.4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	5.3	2.6	7.9	2.6	5.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4.4	4.4	4.4	8.7	8.7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	4.6	2.3	13.6	-	6.8
	박사 과정	102	6.9	2.9	8.8	15.7	2.9	8.8
재학학기별	1학기	94	2.1	1.1	7.5	6.4	2.1	6.4
	2학기	128	2.3	3.1	3.9	3.1	2.3	7.8
	3학기	57	1.8	3.5	5.3	15.8	7.0	7.0
	4학기	58	6.9	5.2	5.2	13.8	1.7	10.3
	5학기 이상	40	2.5	2.5	5.0	15.0	-	5.0
	수료	75	6.7	2.7	2.7	16.0	-	8.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9	3.2	4.4	10.1	2.0	7.5
	비전업 대학원생	107	5.6	1.9	6.5	9.4	2.8	7.5
인권교육	있음	126	3.2	1.6	2.4	7.1	-	4.8
경험별	없음	326	3.7	3.4	5.8	11.0	3.1	8.6

BASE : 전체응답자

주) ⑬ 임신·출산 또는 육아 여부를 이유로 차별 / ⑭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 ⑮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 / ⑯ 지도교수를 이유로 차별 / ⑰ 대학원생자치기구(원우회 등) 활동을 이유로 차별 / ⑱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 및 지원과정에서 차별

■ 가해자

- 차별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50.0%)이 교수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동료 및 선후배(42.1%) > 교직원(22.2%) > 기타(11.1%) > 조교(7.9%) > 강사(6.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51.2%)은 남성(47.6%)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은 교수(56.7%)를, 외국인은 동료 및 선후배(51.7%)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은 동료 및 선후배(48.5%)를,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은 교수(52.4%)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함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통합과정(석사), 석박사 통합과정(박사)(동료 및 선후배 각 83.3% · 33.3%)은 다른 응답군과 달리 교수보다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수(68.8%)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52.9%)은 전업 대학원생(48.9%)과 비교했을 때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53.6%) 집단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49.0%) 집단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표 15] 차별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수	동료 및 선후배	교직원	조교	강사	기타
2024		135	57.0	48.9	12.6	17.8	3.0	6.7
2025		126	50.0	42.1	22.2	7.9	6.3	11.1
성별	남성	42	47.6	33.3	26.2	14.3	7.1	14.3
	여성	82	51.2	46.3	20.7	4.9	6.1	9.8
	그 외	2	50.0	50.0	-	-	-	-
국적별	내국인	97	56.7	39.2	25.8	10.3	6.2	6.2
	외국인	29	27.6	51.7	10.3	-	6.9	27.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99	46.5	48.5	22.2	4.0	7.1	10.1
	기혼	21	52.4	23.8	9.5	23.8	4.8	14.3
	사실혼 동거	1	100.0	-	-	-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5	100.0	-	80.0	20.0	-	-
장애여부별	유	6	66.7	50.0	66.7	-	-	-
	무	120	49.2	41.7	20.0	8.3	6.7	11.7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65	53.8	47.7	20.0	9.2	7.7	7.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6	33.3	83.3	33.3	16.7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6	33.3	16.7	33.3	-	16.7	16.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2	25.0	33.3	8.3	-	-	50.0
	박사 과정	37	56.8	32.4	27.0	8.1	5.4	5.4
재학학기별	1학기	13	38.5	46.2	7.7	-	15.4	23.1
	2학기	28	35.7	50.0	28.6	3.6	10.7	7.1
	3학기	18	55.6	50.0	22.2	11.1	11.1	-
	4학기	23	52.2	52.2	39.1	8.7	4.3	13.0
	5학기 이상	16	68.8	12.5	18.8	18.8	-	12.5
	수료	28	53.6	35.7	10.7	7.1	-	14.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92	48.9	48.9	21.7	7.6	5.4
비전업 대학원생	34	52.9	23.5	23.5	8.8	8.8	5.9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28	53.6	39.3	32.1	10.7	3.6	7.1
없음	98	49.0	42.9	19.4	7.1	7.1	12.2	

BASE : 차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 피해 장소

- 차별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30.7%가 강의실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대학원 연구실(29.9%) > 회식장소(20.5%) >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18.1%) > 온라인 공간(17.3%) > 교수 연구실(15.7%) > 기타(14.2%) > 학과 사무실(12.6%) > 가해자 주거지(3.1%) > 피해자 주거지(0.8%)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은 강의실(35.7%)을,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33.7%)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34.7%)을, 외국인은 강의실과 회식장소(각 24.1%)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사 과정은 대학원 연구실(36.9%)을, 학석사 연계과정(석사)은 강의실과 대학원 연구실(각 50.0%)을, 석박사 통합과정(석사)은 회식장소(50.0%)를, 석박사 통합과정(박사)은 회식장소·워크숍 장소·온라인 공간(각 16.7%)을, 박사 과정은 강의실(34.2%)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40.0%)은 전업 대학원생(33.7%)보다 강의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강의실(42.9%)을,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연구실(30.3%)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표 16] 차별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강의실	대학원 연구실	회식장소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	온라인 공간
2024		135	36.3	28.1	15.6	17.0	17.8
2025		127	30.7	29.9	20.5	18.1	17.3
성별	남성	42	35.7	23.8	26.2	23.8	9.5
	여성	83	27.7	33.7	18.1	15.7	20.5
	그 외	2	50.0	-	-	-	50.0
국적별	내국인	98	32.7	34.7	19.4	18.4	19.4
	외국인	29	24.1	13.8	24.1	17.2	10.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99	30.3	33.3	26.3	22.2	16.2
	기혼	22	31.8	18.2	-	-	18.2
	사실혼 동거	1	-	100.0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40.0	-	-	20.0	40.0
장애여부별	유	6	33.3	33.3	-	16.7	16.7
	무	121	30.6	29.8	21.5	18.2	17.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65	30.8	36.9	20.0	16.9	18.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6	50.0	50.0	-	16.7	33.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6	33.3	-	50.0	16.7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2	8.3	8.3	16.7	16.7	16.7
	박사 과정	38	34.2	26.3	21.1	21.1	15.8
재학학기별	1학기	13	38.5	30.8	23.1	7.7	23.1
	2학기	29	27.6	37.9	24.1	17.2	24.1
	3학기	18	50.0	22.2	33.3	22.2	16.7
	4학기	23	26.1	30.4	13.0	30.4	13.0
	5학기 이상	16	31.3	6.3	18.8	-	6.3
	수료	28	21.4	39.3	14.3	21.4	17.9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92	27.2	33.7	22.8	19.6
비전업 대학원생	35	40.0	20.0	14.3	14.3	25.7	
인권교육	있음	28	42.9	28.6	21.4	25.0	21.4
경험별	없음	99	27.3	30.3	20.2	16.2	16.2

BASE : 차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표 17] 차별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수 연구실	학과 사무실	가해자 주거지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기타
2024		135	15.6	9.6	0.7	3.0	2.2	14.8
2025		127	15.7	12.6	3.1	0.8	-	14.2
성별	남성	42	16.7	21.4	7.1	2.4	-	21.4
	여성	83	15.7	8.4	1.2	-	-	10.8
	그 외	2	-	-	-	-	-	-
국적별	내국인	98	16.3	14.3	1.0	-	-	13.3
	외국인	29	13.8	6.9	10.3	3.4	-	17.2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99	17.2	11.1	4.0	1.0	-	14.1
	기혼	22	13.6	18.2	-	-	-	18.2
	사실혼·동거	1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	20.0	-	-	-	-
장애여부별	유	6	16.7	16.7	16.7	-	-	16.7
	무	121	15.7	12.4	2.5	0.8	-	14.0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65	13.8	13.8	1.5	-	-	16.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6	16.7	16.7	-	-	-	16.7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6	-	-	16.7	-	-	16.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2	16.7	8.3	8.3	8.3	-	25.0
	박사 과정	38	21.1	13.2	2.6	-	-	5.3
재학학기별	1학기	13	7.7	15.4	15.4	7.7	-	7.7
	2학기	29	6.9	10.3	-	-	-	13.8
	3학기	18	16.7	16.7	5.6	-	-	-
	4학기	23	30.4	17.4	4.3	-	-	17.4
	5학기 이상	16	12.5	12.5	-	-	-	31.3
	수료	28	17.9	7.1	-	-	-	14.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92	17.4	12.0	4.3	1.1	-	15.2
	비전업 대학원생	35	11.4	14.3	-	-	-	11.4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28	21.4	17.9	-	-	-	14.3
	없음	99	14.1	11.1	4.0	1.0	-	14.1

BASE : 차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3)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24.3%이며, 세부 항목 중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로 인한 피해 경험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 및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11.7%) >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간섭'(10.6%) >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8.9%) > '웃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간섭 또는 강요'(8.6%) >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8.2%) >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7.7%) >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7.1%) >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6.0%) > '학내 행사에서 장기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5.8%) >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5.3%) >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3.5%)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28.0%)은 남성(19.2%)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남성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 사적 모임 참석 강요 및 불이익(각 11.9%)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13.2%)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24.4%)은 외국인(24.1%)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내국인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13.1%)와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 및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12.1%) 비율이 가장 높고, 외국인은 웃차림·머리모양 등 관련 간섭,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 및 학업 관련 부당 대우 경험(각 11.4%)이 동일하게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29.4%)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석박사 통합과정(박사)은 17.4%로 가장 낮음
- 재학학기별로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31.6%)은 다른 학기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대

학원생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24.6%)은 비전업 대학원생(23.4%)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25.2%)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22.2%)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표 18]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직·간접 경험						
			종합	①	②	③	④	⑤	⑥
2024		504	석사 과정	10.1	10.5	10.3	12.1	10.7	8.7
2025		452	24.3	10.6	8.6	8.9	12.8	11.7	8.2
성별	남성	193	19.2	8.3	9.3	7.3	11.9	11.9	8.8
	여성	257	28.0	12.5	8.2	10.1	13.2	11.7	7.8
	그 외	2	50.0	-	-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24.4	11.0	8.0	8.3	13.1	12.1	8.3
	외국인	79	24.1	8.9	11.4	11.4	11.4	10.1	7.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5.2	11.6	9.1	8.3	14.4	13.3	8.9
	기혼	79	17.7	3.8	6.3	8.9	6.3	6.3	5.1
	사실혼·동거	4	25.0	25.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50.0	25.0	12.5	37.5	12.5	-	12.5
장애여부별	유	8	62.5	12.5	25.0	50.0	25.0	25.0	25.0
	무	444	23.6	10.6	8.3	8.1	12.6	11.5	7.9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2.9	9.4	8.6	8.6	13.1	11.0	7.8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23.7	10.5	7.9	2.6	10.5	10.5	7.9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7.4	8.7	8.7	4.4	4.4	13.0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25.0	13.6	2.3	4.6	15.9	13.6	6.8
	박사 과정	102	29.4	12.8	11.8	14.7	13.7	12.8	11.8
재학학기별	1학기	94	17.0	7.5	7.5	7.5	6.4	7.5	7.5
	2학기	128	18.0	7.0	5.5	5.5	10.2	8.6	7.8
	3학기	57	31.6	19.3	17.5	10.5	14.0	15.8	7.0
	4학기	58	31.0	17.2	8.6	13.8	20.7	19.0	8.6
	5학기 이상	40	30.0	7.5	12.5	10.0	12.5	10.0	7.5
	수료	75	30.7	10.7	6.7	10.7	18.7	14.7	10.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4.6	10.7	9.0	9.0	15.1	12.8
비전업 대학원생	107	23.4	10.3	7.5	8.4	5.6	8.4	6.5	
인권교육	있음	126	22.2	10.3	7.1	7.9	10.3	11.9	5.6
경험별	없음	326	25.2	10.7	9.2	9.2	13.8	11.7	9.2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간섭 / ② 옷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간섭 또는 강요 / ③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급 및 이에 대한 언급, 진로·경력에 부정적인 소문, 논문·레포트 갈취, 지도교수를 이유로 한 프로젝트 제외 등) / ④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 / ⑤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 및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 ⑥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

[표 19]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직·간접 경험					
			⑦	⑧	⑨	⑩	⑪	⑫
2024		504	10.5	6.3	7.7	6.9	5.2	2.8
2025		452	7.7	5.8	7.1	6.0	5.3	3.5
성별	남성	193	6.2	6.2	6.2	3.6	7.3	5.2
	여성	257	9.0	5.5	7.8	7.8	3.9	2.3
	그 외	2	-	-	-	-	-	-
국적별	내국인	373	6.7	6.2	7.8	6.4	4.6	2.4
	외국인	79	12.7	3.8	3.8	3.8	8.9	8.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8.3	6.1	7.8	6.7	6.1	3.9
	기혼	79	5.1	5.1	5.1	2.5	1.3	1.3
	사실혼·동거	4	25.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	-	-	12.5	12.5	12.5
장애여부별	유	8	12.5	12.5	12.5	25.0	25.0	12.5
	무	444	7.7	5.6	7.0	5.6	5.0	3.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6.5	4.9	7.8	6.9	5.3	2.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0.5	5.3	5.3	2.6	2.6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4.4	8.7	4.4	-	4.4	4.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11.4	6.8	2.3	4.6	4.6	6.8
	박사 과정	102	8.8	6.9	8.8	6.9	6.9	4.9
재학학기별	1학기	94	7.5	5.3	6.4	6.4	4.3	3.2
	2학기	128	5.5	4.7	3.9	2.3	3.9	0.8
	3학기	57	7.0	7.0	7.0	5.3	5.3	7.0
	4학기	58	12.1	3.5	13.8	15.5	8.6	5.2
	5학기 이상	40	10.0	10.0	5.0	2.5	10.0	10.0
	수료	75	8.0	6.7	9.3	6.7	4.0	1.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8.7	6.1	7.8	6.1	6.1	4.1
	비전업 대학원생	107	4.7	4.7	4.7	5.6	2.8	1.9
인권교육	있음	126	4.8	5.6	6.4	4.0	6.4	4.0
경험별	없음	326	8.9	5.8	7.4	6.8	4.9	3.4

BASE : 전체응답자

주) ⑦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 / ⑧ 학내 행사에서 장기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 / ⑨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 / ⑩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 / ⑪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 / ⑫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

■ 가해자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62.3%)이 교수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강요 및 협박을 받았다고 응답함
 - 동료 및 선후배(41.5%) > 교직원(15.1%) > 강사(10.4%) > 조교(6.6%) > 기타(5.7%)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62.2%)과 여성(61.8%) 모두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항목 중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은 여성(47.1%)이 더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67.4%)은 교수를, 외국인(47.1%)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55.6%)은 다른 집단과 달리,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75.0%)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세부 항목 중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은 3학기(62.5%)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61.9%)과 비전업(63.6%) 대학원생 모두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항목 중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은 전업 대학원생(45.2%)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0]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수	동료 및 선후배	교직원	강사	조교	기타
2024		116	61.2	41.4	11.2	7.8	12.9	2.6
2025		106	62.3	41.5	15.1	10.4	6.6	5.7
성별	남성	37	62.2	32.4	13.5	13.5	16.2	10.8
	여성	68	61.8	47.1	16.2	8.8	1.5	2.9
	그 외	1	100.0	-	-	-	-	-
국적별	내국인	89	67.4	40.4	15.7	9.0	7.9	4.5
	외국인	17	35.3	47.1	11.8	17.6	-	11.8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90	62.2	42.2	14.4	12.2	6.7	5.6
	기혼	11	54.5	36.4	18.2	-	9.1	-
	사실혼 동거	1	100.0	-	-	-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4	75.0	50.0	25.0	-	-	-
장애여부별	유	5	60.0	60.0	20.0	20.0	-	-
	무	101	62.4	40.6	14.9	9.9	6.9	5.9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53	71.7	45.3	15.1	9.4	3.8	1.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9	44.4	55.6	-	-	-	11.1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	50.0	-	-	25.0	25.0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1	45.5	27.3	9.1	18.2	9.1	27.3
	박사 과정	29	58.6	41.4	24.1	10.3	10.3	3.4
재학학기별	1학기	17	52.9	41.2	11.8	5.9	-	5.9
	2학기	22	72.7	27.3	18.2	9.1	4.5	4.5
	3학기	16	56.3	62.5	18.8	12.5	12.5	-
	4학기	17	58.8	58.8	17.6	23.5	-	5.9
	5학기 이상	12	75.0	8.3	16.7	8.3	16.7	8.3
	수료	22	59.1	45.5	9.1	4.5	9.1	9.1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84	61.9	45.2	13.1	11.9	8.3
비전업 대학원생	22	63.6	27.3	22.7	4.5	-	4.5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29	62.1	41.4	17.2	10.3	13.8	3.4
없음	77	62.3	41.6	14.3	10.4	3.9	6.5	

BASE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 피해 장소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5.2%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남
 - 회식장소(31.7%) > 강의실(25.0%) >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22.1%) > 교수 연구실(21.2%) > 온라인 공간(19.2%) > 학과 사무실(7.7%) > 기타(4.8%)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38.9%)은 회식장소를, 여성(49.3%)은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48.3%)은 대학원 연구실을, 외국인(35.3%)은 온라인 공간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별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각 40.0%)은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을,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46.5%)은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석사)(50.0%)은 다른 집단과 달리, 회식장소를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4학기·수료 대학원생 모두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특히 수료생(81.0%)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반면, 2학기·3학기 재학생은 회식 장소에서의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학기 이상 재학생(41.7%)은 교수 연구실을 주요 피해 장소로 응답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48.8%)은 대학원 연구실을, 비전업 대학원생(36.4%)은 회식 장소를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은 강의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인권 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표 21]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피해 장소(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대학원 연구실	회식장소	강의실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	교수 연구실
2024		116	31.9	22.4	32.8	16.4	16.4
2025		104	45.2	31.7	25.0	22.1	21.2
성별	남성	36	36.1	38.9	27.8	22.2	16.7
	여성	67	49.3	28.4	23.9	22.4	23.9
	그 외	1	100.0	-	-	-	-
국적별	내국인	87	48.3	35.6	26.4	24.1	21.8
	외국인	17	29.4	11.8	17.6	11.8	17.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88	46.6	33.0	27.3	21.6	22.7
	기혼	11	45.5	27.3	-	18.2	18.2
	사실혼 동거	1	100.0	-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	25.0	50.0	50.0	-
장애여부별	유	5	20.0	20.0	40.0	20.0	20.0
	무	99	46.5	32.3	24.2	22.2	21.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53	47.2	35.8	34.0	22.6	26.4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8	50.0	25.0	25.0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	-	50.0	25.0	25.0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0	50.0	10.0	-	20.0	20.0
	박사 과정	29	44.8	31.0	17.2	27.6	20.7
재학학기별	1학기	17	35.3	29.4	23.5	5.9	23.5
	2학기	21	33.3	42.9	33.3	23.8	9.5
	3학기	16	37.5	43.8	31.3	25.0	18.8
	4학기	17	41.2	23.5	35.3	41.2	41.2
	5학기 이상	12	33.3	16.7	16.7	-	41.7
	수료	21	81.0	28.6	9.5	28.6	4.8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82	48.8	30.5	25.6	20.7	22.0
	비전업 대학원생	22	31.8	36.4	22.7	27.3	18.2
인권교육	있음	28	39.3	28.6	28.6	21.4	17.9
경험별	없음	76	47.4	32.9	23.7	22.4	22.4

BASE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표 22]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_피해 장소(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온라인 공간	학과 사무실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가해자 주거지	기타
2024		116	19.8	12.1	4.3	2.6	1.7	11.2
2025		104	19.2	7.7	-	-	-	4.8
성별	남성	36	25.0	13.9	-	-	-	11.1
	여성	67	16.4	4.5	-	-	-	1.5
	그 외	1	-	-	-	-	-	-
국적별	내국인	87	16.1	6.9	-	-	-	4.6
	외국인	17	35.3	11.8	-	-	-	5.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88	20.5	9.1	-	-	-	5.7
	기혼	11	-	-	-	-	-	-
	사실혼·동거	1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50.0	-	-	-	-	-
장애여부별	유	5	20.0	40.0	-	-	-	20.0
	무	99	19.2	6.1	-	-	-	4.0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53	18.9	5.7	-	-	-	1.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8	12.5	-	-	-	-	12.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	-	25.0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0	20.0	10.0	-	-	-	10.0
	박사 과정	29	24.1	10.3	-	-	-	6.9
재학학기별	1학기	17	23.5	11.8	-	-	-	-
	2학기	21	28.6	-	-	-	-	9.5
	3학기	16	31.3	25.0	-	-	-	-
	4학기	17	23.5	5.9	-	-	-	-
	5학기 이상	12	-	8.3	-	-	-	16.7
	수료	21	4.8	-	-	-	-	4.8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82	19.5	7.3	-	-	-	4.9
	비전업 대학원생	22	18.2	9.1	-	-	-	4.5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28	17.9	10.7	-	-	-	7.1
	없음	76	19.7	6.6	-	-	-	3.9

BASE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성희롱·성폭력 및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15.5%이며, 세부 항목 중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로 인한 피해 경험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7.7%) >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6.2%) > '따돌림을 경험'(4.7%) >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4.2%) >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3.5%) > '사진·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3.3%) >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3.1%) > '스토킹을 경험'(2.2%) >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의 표현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신체적 폭력을 경험'(각 2.0%) > '성적(grade), 금품 등 대가를 이유로 성적 제안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1.6%)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합성을 경험'(1.3%) >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 및 성관계 촬영 사진을 유포 또는 유포 협박을 경험'(1.1%)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포나 유포 협박을 경험'(0.9%)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16.3%)은 남성(14.0%)보다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 유형 중 남성(9.3%)은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 여성(7.4%)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16.6%)은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11.4%)보다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18.6%)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24.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15.7%)은 비전업 대학원생(15.0%)보다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16.3%)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13.5%)보다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23]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							
			종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24		504	15.9	6.7	3.6	2.0	1.2	2.2	1.8	3.8
2025		452	15.5	7.7	4.2	3.1	1.5	2.0	2.2	3.3
성별	남성	193	14.0	8.3	5.2	3.6	3.6	3.6	2.6	4.2
	여성	257	16.3	7.4	3.5	2.7	-	0.8	2.0	2.7
	그 외	2	50.0	-	-	-	-	-	-	-
국적별	내국인	373	15.5	7.8	4.0	2.7	1.1	1.6	1.3	3.2
	외국인	79	15.2	7.6	5.1	5.1	3.8	3.8	6.3	3.8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16.6	8.3	4.7	3.6	1.7	2.2	2.2	3.3
	기혼	79	11.4	6.3	2.5	1.3	1.3	1.3	2.5	3.8
	사실혼·동거	4	25.0	-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	-	-	-	-	-	-	-
장애여부별	유	8	25.0	12.5	12.5	12.5	12.5	-	12.5	12.5
	무	444	15.3	7.7	4.1	2.9	1.4	2.0	2.0	3.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15.5	7.8	3.7	2.5	0.8	1.6	2.0	2.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0.5	7.9	2.6	2.6	-	-	2.6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8.7	4.4	-	4.4	4.4	4.4	-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15.9	4.6	2.3	2.3	2.3	2.3	-	-
	박사 과정	102	18.6	9.8	7.8	4.9	2.9	2.9	3.9	5.9
재학학기별	1학기	94	11.7	5.3	2.1	2.1	1.1	3.2	2.1	4.3
	2학기	128	10.9	5.5	3.9	1.6	1.6	0.8	1.6	1.6
	3학기	57	22.8	10.5	3.5	5.3	1.8	1.8	3.5	1.8
	4학기	58	24.1	12.1	5.2	5.2	1.7	1.7	1.7	8.6
	5학기 이상	40	12.5	10.0	7.5	2.5	2.5	2.5	2.5	2.5
	수료	75	17.3	8.0	5.3	4.0	1.3	2.7	2.7	2.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15.7	8.4	4.1	3.2	1.7	2.0	1.7
비전업 대학원생	107	15.0	5.6	4.7	2.8	0.9	1.9	3.7	3.7	
인권교육	있음	126	13.5	7.1	2.4	1.6	-	0.8	0.8	0.8
경험별	없음	326	16.3	8.0	4.9	3.7	2.1	2.5	2.8	4.3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 / ②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 / ③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 / ④ 성적(grade), 금품 등 대가를 이유로 성적 제안 또는 협박을 받은 경험 / ⑤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의 표현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 / ⑥ 스토킹을 경험 / ⑦ 사진·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

[표 24]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2024		504	1.4	1.2	1.4	8.5	6.7	2.2	4.4	3.4
2025		452	1.1	1.3	0.9	8.0	6.2	2.0	4.7	3.5
성별	남성	193	2.1	2.6	2.1	9.3	5.7	3.6	4.2	5.7
	여성	257	0.4	0.4	-	7.0	6.2	0.8	5.1	2.0
	그 외	2	-	-	-	-	50.0	-	-	-
국적별	내국인	373	0.5	0.8	0.5	7.8	6.2	1.9	3.8	3.2
	외국인	79	3.8	3.8	2.5	8.9	6.3	2.5	8.9	5.1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1.1	1.4	1.1	8.9	6.9	2.2	4.7	3.6
	기혼	79	1.3	1.3	-	3.8	3.8	1.3	3.8	2.5
	사실혼·동거	4	-	-	-	25.0	-	-	25.0	25.0
	그 외(이혼/사별 등)	8	-	-	-	-	-	-	-	-
장애여부별	유	8	12.5	12.5	12.5	12.5	-	-	12.5	-
	무	444	0.9	1.1	0.7	7.9	6.3	2.0	4.5	3.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0.4	0.4	0.4	6.9	5.7	1.2	4.1	2.0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2.6	2.6	-	5.3	5.3	2.6	5.3	5.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	4.4	4.4	4.4	4.4	4.4	4.4	4.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	-	-	9.1	6.8	-	4.6	2.3
	박사 과정	102	2.9	2.9	2.0	11.8	7.8	3.9	5.9	6.9
재학학기별	1학기	94	1.1	1.1	1.1	3.2	3.2	1.1	5.3	1.1
	2학기	128	0.8	0.8	0.8	6.3	3.9	2.3	4.7	3.1
	3학기	57	1.8	3.5	1.8	14.0	7.0	3.5	7.0	8.8
	4학기	58	1.7	1.7	1.7	13.8	10.3	-	6.9	3.5
	5학기 이상	40	2.5	2.5	-	10.0	10.0	5.0	2.5	5.0
	수료	75	-	-	-	6.7	8.0	1.3	1.3	2.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1.2	1.5	0.9	8.7	7.0	2.0	4.9
비전업 대학원생	107	0.9	0.9	0.9	5.6	3.7	1.9	3.7	1.9	
인권교육	있음	126	-	-	-	6.4	8.7	0.8	3.2	2.4
경험별	없음	326	1.5	1.8	1.2	8.6	5.2	2.5	5.2	4.0

BASE : 전체응답자

주) ⑧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 및 성관계 촬영 사진을 유포 또는 유포 협박을 경험 / ⑨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합성을 경험 / ⑩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포나 유포 협박을 경험 / ⑪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은 경험 / ⑫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 / ⑬ 신체적 폭력을 경험 / ⑭ (온·오프라인 포함) 따돌림을 경험 / ⑮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

■ 가해자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4.4%)이 교수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동료 및 선후배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2.9%로 높게 나타남
 - 강사·교직원(각 13.2%) > 조교(7.4%) > 기타(5.9%)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53.8%)은 교수를, 여성(58.5%)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8.9%)은 교수를, 외국인(66.7%)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58.6%)은 동료 및 선후배를,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55.6%)은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사 과정(66.7%)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80.0%) 재학 중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7.4%, 5명) 이긴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58.5%)은 동료 및 선후배를, 비전업 대학원생(66.7%)은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0.6%)은 동료 및 선후배를,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58.8%)은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25]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수	동료 및 선후배	강사	교직원	조교	기타
2024		80	50.0	55.0	5.0	11.3	10.0	6.3
2025		68	54.4	52.9	13.2	13.2	7.4	5.9
성별	남성	26	53.8	42.3	15.4	15.4	19.2	7.7
	여성	41	56.1	58.5	12.2	12.2	-	4.9
	그 외	1	-	100.0	-	-	-	-
국적별	내국인	56	58.9	50.0	8.9	16.1	8.9	7.1
	외국인	12	33.3	66.7	33.3	-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58	53.4	58.6	10.3	12.1	5.2	5.2
	기혼	9	55.6	11.1	22.2	22.2	22.2	11.1
	사실혼 동거	1	100.0	100.0	100.0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
장애여부별	유	2	50.0	100.0	-	50.0	-	-
	무	66	54.5	51.5	13.6	12.1	7.6	6.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36	66.7	52.8	13.9	13.9	5.6	5.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25.0	75.0	-	-	-	25.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50.0	-	-	50.0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7	28.6	71.4	28.6	-	14.3	14.3
	박사 과정	19	47.4	47.4	10.5	15.8	10.5	-
재학학기별	1학기	11	45.5	36.4	9.1	-	-	9.1
	2학기	13	61.5	61.5	15.4	15.4	7.7	7.7
	3학기	12	50.0	41.7	8.3	25.0	-	-
	4학기	14	64.3	64.3	21.4	21.4	7.1	7.1
	5학기 이상	5	80.0	40.0	-	-	40.0	-
	수료	13	38.5	61.5	15.4	7.7	7.7	7.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53	50.9	58.5	13.2	11.3	9.4
비전업 대학원생	15	66.7	33.3	13.3	20.0	-	-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7	41.2	70.6	5.9	11.8	17.6	-
없음	51	58.8	47.1	15.7	13.7	3.9	7.8	

BASE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 피해 장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2.6%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남
 - 강의실·회식장소(각 33.8%) > 온라인 공간(22.1%) > 교수 연구실(19.1%) >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16.2%) > 학과 사무실(11.8%) > 기타(5.9%) > 피해자 주거지(1.5%)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각 38.5%)은 대학원 연구실과 강의실을, 여성(46.3%)은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0.0%)은 대학원 연구실을, 외국인(50.0%)은 온라인 공간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43.1%)은 대학원 연구실을,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44.4%)은 회식장소를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61.5%)은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45.3%)은 대학원 연구실을, 비전업 대학원생(40.0%)은 강의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35.3%)은 강의실을,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47.1%)은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26]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대학원 연구실	강의실	회식장소	온라인 공간	교수 연구실
2024		80	23.8	37.5	18.8	18.8	13.8
2025		68	42.6	33.8	33.8	22.1	19.1
성별	남성	26	38.5	38.5	34.6	23.1	19.2
	여성	41	46.3	31.7	34.1	19.5	19.5
	그 외	1	-	-	-	100.0	-
국적별	내국인	56	50.0	35.7	33.9	16.1	19.6
	외국인	12	8.3	25.0	33.3	50.0	16.7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58	43.1	34.5	32.8	24.1	20.7
	기혼	9	33.3	33.3	44.4	11.1	11.1
	사실혼 동거	1	100.0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장애여부별	유	2	50.0	-	-	50.0	-
	무	66	42.4	34.8	34.8	21.2	19.7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36	44.4	50.0	36.1	22.2	22.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50.0	-	50.0	25.0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	50.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7	42.9	-	28.6	28.6	-
	박사 과정	19	42.1	21.1	31.6	21.1	26.3
재학학기별	1학기	11	27.3	36.4	18.2	27.3	9.1
	2학기	13	38.5	30.8	46.2	23.1	23.1
	3학기	12	25.0	25.0	16.7	25.0	16.7
	4학기	14	50.0	50.0	28.6	28.6	28.6
	5학기 이상	5	60.0	20.0	40.0	-	20.0
	수료	13	61.5	30.8	53.8	15.4	15.4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53	45.3	32.1	37.7	20.8	20.8
	비전업 대학원생	15	33.3	40.0	20.0	26.7	13.3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7	29.4	35.3	29.4	17.6	11.8
	없음	51	47.1	33.3	35.3	23.5	21.6

BASE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표 27]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	학과 사무실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가해자 주거지	기타
2024		80	13.8	8.8	5.0	2.5	1.3	13.8
2025		68	16.2	11.8	1.5	-	-	5.9
성별	남성	26	23.1	19.2	-	-	-	7.7
	여성	41	12.2	7.3	2.4	-	-	4.9
	그 외	1	-	-	-	-	-	-
국적별	내국인	56	17.9	14.3	1.8	-	-	7.1
	외국인	12	8.3	-	-	-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58	17.2	12.1	1.7	-	-	5.2
	기혼	9	11.1	11.1	-	-	-	-
	사실혼·동거	1	-	-	-	-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
장애여부별	유	2	-	50.0	-	-	-	-
	무	66	16.7	10.6	1.5	-	-	6.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36	16.7	5.6	2.8	-	-	2.8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25.0	-	-	-	-	25.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	50.0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7	14.3	14.3	-	-	-	28.6
	박사 과정	19	15.8	21.1	-	-	-	-
재학학기별	1학기	11	9.1	9.1	-	-	-	-
	2학기	13	23.1	7.7	-	-	-	7.7
	3학기	12	8.3	33.3	8.3	-	-	-
	4학기	14	21.4	7.1	-	-	-	7.1
	5학기 이상	5	-	20.0	-	-	-	-
	수료	13	23.1	-	-	-	-	15.4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53	17.0	11.3	-	-	-	5.7
	비전업 대학원생	15	13.3	13.3	6.7	-	-	6.7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7	5.9	23.5	-	-	-	-
	없음	51	19.6	7.8	2.0	-	-	7.8

BASE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5)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 최근 1년간 대학원 생활 중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원생은 20.1%이며, 세부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의 비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9.3%) >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8.9%) >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8.4%) >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6.9%) >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5.1%) > '지도교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각 4.0%) > '아이디어나 논문(페이퍼) 내용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타인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한 경험이 있다'(각 3.8%) >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3.5%) > '내 연구 관심과 상관없는 지도교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부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다'·'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각 3.1%) > '논문, 졸업작품, 추천,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의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2.9%) > '정규 수업 과정 외 개인 레슨 등을 이유로 유료 수업을 수강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2.7%) > '실험결과 및 데이터 조작 등 연구윤리 위반을 지시·강요받은 경험이 있다'(2.0%)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22.2%)은 남성(16.6%)보다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20.4%)은 외국인(19.0%)보다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그 외(이혼/사별 등)의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62.5%)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19.8%)보다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37.5%)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26.5%)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31.0%)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20.3%)은 비전업 대학원생(19.6%)보다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21.2%)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17.5%)보다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표 28]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학업 및 연구 피해 직·간접 경험					
			종합	①	②	③	④	⑤
2024		504	17.9	8.1	8.1	7.7	4.0	2.6
2025		452	20.1	9.7	8.9	8.4	3.1	4.0
성별	남성	193	16.6	8.8	8.3	6.2	3.6	5.7
	여성	257	22.2	10.5	9.3	9.7	2.7	2.7
	그 외	2	100.0	-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20.4	9.7	9.7	8.6	2.1	3.8
	외국인	79	19.0	10.1	5.1	7.6	7.6	5.1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19.9	9.1	8.6	9.7	2.8	3.6
	기혼	79	16.5	10.1	10.1	3.8	5.1	3.8
	사실혼·동거	4	25.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62.5	37.5	12.5	-	-	25.0
장애여부별	유	8	37.5	25.0	12.5	25.0	12.5	25.0
	무	444	19.8	9.5	8.8	8.1	2.9	3.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18.8	8.6	9.0	8.6	2.9	3.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0.5	2.6	5.3	5.3	2.6	2.6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7.4	13.0	4.4	4.4	4.4	4.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22.7	6.8	2.3	-	-	-
	박사 과정	102	26.5	15.7	13.7	13.7	4.9	7.8
재학학기별	1학기	94	14.9	6.4	8.5	5.3	2.1	2.1
	2학기	128	12.5	5.5	6.3	3.9	3.1	3.9
	3학기	57	28.1	15.8	14.0	15.8	3.5	7.0
	4학기	58	31.0	15.5	13.8	15.5	5.2	6.9
	5학기 이상	40	20.0	5.0	7.5	5.0	2.5	2.5
	수료	75	25.3	14.7	6.7	10.7	2.7	2.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0.3	9.6	8.7	10.1	3.2	4.1
	비전업 대학원생	107	19.6	10.3	9.4	2.8	2.8	3.7
인권교육	있음	126	17.5	8.7	6.4	7.9	0.8	-
경험별	없음	326	21.2	10.1	9.8	8.6	4.0	5.5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 / ②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 ③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 / ④ 내 연구 관심과 상관없는 지도교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 / ⑤ 지도교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

[표 29]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학업 및 연구 피해 직·간접 경험					
			⑥	⑦	⑧	⑨	⑩	⑪
2024		504	6.3	4.0	4.8	2.8	3.4	2.8
2025		452	6.9	4.0	5.1	3.8	3.8	3.5
성별	남성	193	7.8	3.6	6.2	5.7	6.2	4.7
	여성	257	6.2	4.3	3.9	2.3	2.0	2.3
	그 외	2	-	-	50.0	-	-	50.0
국적별	내국인	373	5.9	3.2	5.4	3.2	3.0	3.5
	외국인	79	11.4	7.6	3.8	6.3	7.6	3.8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6.1	3.6	5.8	3.6	3.9	3.1
	기혼	79	6.3	5.1	2.5	2.5	2.5	3.8
	사실혼·동거	4	-	-	-	25.0	25.0	25.0
	그 외(이혼/사별 등)	8	50.0	12.5	-	12.5	-	12.5
장애여부별	유	8	25.0	25.0	-	12.5	12.5	-
	무	444	6.5	3.6	5.2	3.6	3.6	3.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4.9	2.9	4.9	2.0	2.0	2.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7.9	2.6	2.6	2.6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4.4	-	4.4	8.7	8.7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4.6	2.3	4.6	9.1	6.8	4.6
	박사 과정	102	12.8	8.8	6.9	4.9	6.9	5.9
재학학기별	1학기	94	3.2	1.1	1.1	3.2	2.1	1.1
	2학기	128	3.9	2.3	3.1	1.6	1.6	3.1
	3학기	57	12.3	3.5	7.0	8.8	8.8	5.3
	4학기	58	12.1	8.6	8.6	1.7	3.5	3.5
	5학기 이상	40	5.0	2.5	2.5	5.0	5.0	7.5
	수료	75	9.3	8.0	10.7	5.3	5.3	4.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3	4.1	5.8	3.5	4.1
비전업 대학원생	107	5.6	3.7	2.8	4.7	2.8	3.7	
인권교육	있음	126	4.0	2.4	3.2	3.2	3.2	3.2
경험별	없음	326	8.0	4.6	5.8	4.0	4.0	3.7

BASE : 전체응답자

주) ⑥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 / ⑦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 ⑧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 / ⑨ 아이디어나 논문(페이퍼) 내용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 ⑩ 타인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 한 경험이 있다 / ⑪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표 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③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학업 및 연구 피해 직·간접 경험					
			⑫	⑬	⑭	⑮	⑯	⑰
2024		504	3.2	2.4	1.8	2.6	2.0	7.5
2025		452	3.1	2.9	2.7	3.1	2.0	9.3
성별	남성	193	3.6	2.6	3.1	4.7	2.6	7.8
	여성	257	2.7	3.1	2.3	2.0	1.6	10.1
	그 외	2	-	-	-	-	-	50.0
국적별	내국인	373	2.4	3.0	1.9	3.0	1.3	9.4
	외국인	79	6.3	2.5	6.3	3.8	5.1	8.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8	3.1	3.1	3.3	1.9	10.8
	기혼	79	2.5	1.3	1.3	2.5	2.5	3.8
	사실혼·동거	4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25.0	12.5	-	-	-	-
장애여부별	유	8	12.5	12.5	12.5	-	25.0	12.5
	무	444	2.9	2.7	2.5	3.2	1.6	9.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9	2.9	1.2	1.2	1.2	9.8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2.6	-	2.6	-	2.6	7.9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4.4	4.4	4.4	4.4	-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2.3	2.3	6.8	4.6	2.3	9.1
	박사 과정	102	3.9	3.9	3.9	7.8	3.9	8.8
재학학기별	1학기	94	2.1	1.1	2.1	1.1	2.1	6.4
	2학기	128	3.1	1.6	1.6	2.3	1.6	5.5
	3학기	57	7.0	5.3	5.3	5.3	3.5	15.8
	4학기	58	3.5	6.9	5.2	1.7	3.5	15.5
	5학기 이상	40	2.5	2.5	2.5	5.0	2.5	10.0
	수료	75	1.3	2.7	1.3	5.3	-	9.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3.2	2.9	2.6	3.2	2.0	11.6
	비전업 대학원생	107	2.8	2.8	2.8	2.8	1.9	1.9
인권교육	있음	126	1.6	1.6	0.8	1.6	-	9.5
경험별	없음	326	3.7	3.4	3.4	3.7	2.8	9.2

BASE : 전체응답자

주) ⑫ 부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다 / ⑬ 직접적으로 또는 관행에 따라 논문, 졸업작품, 추천,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의 제공(선물, 금품, 논문 대필, 성적 접촉 등)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⑭ 정규 수업 과정 외 개인 레슨 등을 이유로 유료 수업을 수강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 ⑮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 / ⑯ 실험결과 및 데이터 조작 등 연구윤리 위반을 지시·강요받은 경험이 있다 / ⑰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 가해자

- 학업 및 연구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79.1%)이 교수로부터 학업 및 연구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함
 - 동료 및 선후배(34.9%) > 교직원(9.3%) > 조교(7.0%) > 강사(4.7%) > 기타(3.5%)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84.9%)은 남성(71.0%)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82.2%)은 외국인(61.5%)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고, 세부 항목 중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은 외국인(46.2%)이 높게 나타남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91.7%)은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75.0%)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고, 세부 항목 중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은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39.7%)이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3.5%, 3명)이긴 하지만, 동료 및 선후배(100.0%)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고,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은 교수(79.5%)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사 과정(82.9%)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100.0%)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84.2%)은 전업 대학원생(77.6%)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고, 세부 항목 중 동료 및 선후배를 지목한 비율은 전업 대학원생(40.3%)이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90.5%)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5.4%)보다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표 3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수	동료 및 선후배	교직원	조교	강사	기타
2024		90	70.0	34.4	10.0	11.1	11.1	2.2
2025		86	79.1	34.9	9.3	7.0	4.7	3.5
성별	남성	31	71.0	32.3	16.1	16.1	6.5	6.5
	여성	53	84.9	35.8	5.7	1.9	3.8	1.9
	그 외	2	50.0	50.0	-	-	-	-
국적별	내국인	73	82.2	32.9	11.0	6.8	4.1	2.7
	외국인	13	61.5	46.2	-	7.7	7.7	7.7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68	75.0	39.7	10.3	5.9	5.9	2.9
	기혼	12	91.7	16.7	-	16.7	-	8.3
	사실혼 동거	1	100.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100.0	20.0	20.0	-	-	-
장애여부별	유	3	66.7	100.0	33.3	-	-	-
	무	83	79.5	32.5	8.4	7.2	4.8	3.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1	82.9	41.5	9.8	7.3	4.9	2.4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75.0	25.0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	75.0	-	25.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0	70.0	20.0	-	-	-	10.0
	박사 과정	27	77.8	37.0	11.1	11.1	7.4	3.7
재학학기별	1학기	13	76.9	23.1	7.7	7.7	-	-
	2학기	15	73.3	26.7	13.3	13.3	-	-
	3학기	15	66.7	46.7	20.0	6.7	13.3	-
	4학기	17	82.4	41.2	5.9	-	5.9	11.8
	5학기 이상	8	100.0	-	12.5	12.5	-	-
	수료	18	83.3	50.0	-	5.6	5.6	5.6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67	77.6	40.3	10.4	7.5	6.0
비전업 대학원생	19	84.2	15.8	5.3	5.3	-	-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21	90.5	33.3	4.8	4.8	4.8	-
없음	65	75.4	35.4	10.8	7.7	4.6	4.6	

BASE :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 피해 장소

- 학업 및 연구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5.5%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대학원 연구실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남
 - 교수 연구실(27.3%) > 강의실(21.6%) > 온라인 공간(18.2%) >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 (11.4%) > 기타(9.1%) > 회식장소(8.0%) > 학과 사무실(6.8%) > 가해자 주거지(2.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51.9%)은 남성(31.3%)보다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0.7%)은 대학원 연구실을, 외국인(38.5%)은 온라인 공간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부터 4학기로 갈수록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어서 5학기 이상 대학원생(75.0%)은 교수 연구실을,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66.7%)은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55.9%)은 대학원 연구실을, 비전업 대학원생(50.0%)은 강의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57.1%)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 (41.8%)보다 대학원 연구실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음

[표 32]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대학원 연구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온라인 공간	워크숍, 세미나 장소 등
2024		91	42.9	27.5	26.4	15.4	7.7
2025		88	45.5	27.3	21.6	18.2	11.4
성별	남성	32	31.3	15.6	18.8	12.5	18.8
	여성	54	51.9	33.3	24.1	22.2	7.4
	그 외	2	100.0	50.0	-	-	-
국적별	내국인	75	50.7	26.7	24.0	14.7	9.3
	외국인	13	15.4	30.8	7.7	38.5	23.1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70	50.0	28.6	20.0	18.6	12.9
	기혼	12	25.0	25.0	25.0	8.3	8.3
	사실혼 동거	1	100.0	-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20.0	20.0	40.0	40.0	-
장애여부별	유	3	33.3	-	33.3	33.3	-
	무	85	45.9	28.2	21.2	17.6	11.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3	46.5	25.6	23.3	16.3	11.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75.0	25.0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	25.0	25.0	25.0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0	50.0	30.0	-	30.0	20.0
	박사 과정	27	40.7	29.6	29.6	22.2	11.1
재학학기별	1학기	13	30.8	30.8	23.1	15.4	7.7
	2학기	16	31.3	-	31.3	25.0	12.5
	3학기	16	43.8	31.3	18.8	12.5	6.3
	4학기	17	58.8	29.4	29.4	23.5	23.5
	5학기 이상	8	25.0	75.0	-	25.0	-
	수료	18	66.7	22.2	16.7	11.1	11.1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68	55.9	29.4	13.2	16.2
비전업 대학원생	20	10.0	20.0	50.0	25.0	-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21	57.1	38.1	14.3	19.0	19.0
없음	67	41.8	23.9	23.9	17.9	9.0	

BASE :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표 3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_피해장소(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회식장소	학과 사무실	가해자 주거지	피해자 주거지	기타
2024		91	6.6	8.8	2.2	3.3	11.0
2025		88	8.0	6.8	2.3	-	9.1
성별	남성	32	9.4	9.4	3.1	-	18.8
	여성	54	7.4	5.6	1.9	-	3.7
	그 외	2	-	-	-	-	-
국적별	내국인	75	8.0	8.0	-	-	9.3
	외국인	13	7.7	-	15.4	-	7.7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70	8.6	7.1	2.9	-	8.6
	기혼	12	-	8.3	-	-	16.7
	사실혼·동거	1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20.0	-	-	-	-
장애여부별	유	3	33.3	33.3	-	-	-
	무	85	7.1	5.9	2.4	-	9.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3	7.0	9.3	2.3	-	9.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	-	25.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0	10.0	-	-	-	10.0
	박사 과정	27	11.1	3.7	3.7	-	11.1
재학학기별	1학기	13	-	7.7	7.7	-	-
	2학기	16	6.3	6.3	-	-	18.8
	3학기	16	6.3	18.8	6.3	-	-
	4학기	17	11.8	-	-	-	11.8
	5학기 이상	8	-	-	-	-	12.5
	수료	18	16.7	5.6	-	-	11.1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68	8.8	7.4	2.9	-	8.8
	비전업 대학원생	20	5.0	5.0	-	-	10.0
인권교육	있음	21	4.8	4.8	-	-	4.8
경험별	없음	67	9.0	7.5	3.0	-	10.4

BASE :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무응답 제외)

❖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경험’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대학원 생활 중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37.6%로, 2024년(34.3%) 대비 3.3%p 증가함. 이는 대학원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함. 유형별로는 차별 피해 경험이 29.2%(2024년 2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 24.3%(2024년 2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20.1%(2024년 17.9%),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15.5%(2024년 15.9%) 순으로 나타남
- 차별 피해의 이유로는 성별(1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나이(12.0%), 지도교수(10%), 출신 학과 또는 전공(9.7%), 외모 등 신체조건(8.2%), 출신 지역 또는 국가·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각 8.0%),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 및 지원과정(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높은 차별 경험 비율을 보였음. 특히 외국인은 외모 등 신체조건과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 각각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비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의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차별 행위 가해자는 교수(50.0%)와 동료 및 선·후배(42.1%)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직원(22.2%)의 비율은 2024년(12.6%) 대비 크게 증가함. 이는 차별 행위가 교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료 및 행정 인력을 포함한 대학원 관계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외국인은 동료 및 선·후배(51.7%)를 주요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차별 피해 발생 공간은 주로 강의실(30.7%)과 대학원 연구실(29.9%)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회식 장소(20.5%)에서의 발생 비율이 4.5%p 증가함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유형 중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강요’(12.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 및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11.7%),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간섭’(10.6%)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28.0%)이 남성(19.2%)보다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비율이 높았으며,

내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행위의 가해자는 주로 교수(62.3%)와 동료 및 선·후배(41.5%)가 주를 이루었음. 다만 외국인은 동료 및 선·후배(47.1%)의 비율이 교수(35.3%) 보다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은 교수와 동료 및 선·후배를 각각 60.0%로 동일하게 지목함. 피해 발생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5.2%)이 가장 높았고, 이어 회식 장소(31.7%), 강의실(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원 연구실(31.9%→45.2%)과 회식 장소(22.4%→25.0%)에서의 피해 비율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함
- 특성별로 성별에 따라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49.3%), 남성은 회식 장소(38.9%)를 주요한 피해 공간으로 지목함. 국적별로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48.3%),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35.3%),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40.0%), 장애가 없는 학생은 대학원 연구실(46.5%)의 비율이 높았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8.0%),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7.7%),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6.2%) 등이 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또는 외모 평가를 경험’(7.4%)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9.3%)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행위 가해자는 주로 교수(54.4%)와 동료 및 선·후배(5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교수(50.0%→54.4%), 강사(5.0%→13.2%), 교직원(11.3%→13.2%)의 비율이 증가함. 다만 외국인(66.7%), 장애가 있는 학생(100.0%), 석·박사 통합과정(박사)(71.4%), 4학기 재학 중(64.3%), 인권교육 경험자(70.6%)는 동료 및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피해 발생한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2.6%)과 강의실·회식 장소(각각 33.8%), 온라인 공간(22.1%) 등의 순이었으며, 대학원 연구실(23.8%→42.6%)과 회식 장소(18.8%→33.8%)에서 발생한 비율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함
- 특성별로 여성은 대학원 연구실(46.3%), 남성은 강의실(38.5%)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내국인은 대학원 연구실(50.0%),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50.0%), 장애가 있는 학생은 대학원 연구실과 온라인 공간(각각 50.0%), 장애가 없는 학생은 대학원 연구실(42.4%), 석사 과정은 강의실(50.0%)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업 및 연구 피해 유형은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의 비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야간·휴일에 교수·선배 등의 강요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9.3%),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8.9%),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8.4%),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다'(6.9%),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22.2%)이 남성(16.6%)보다 전반적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내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가 학업 및 연구 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업 및 연구 피해 행위 가해자는 교수(79.1%)가 가장 높았으며, 동료 및 선·후배(34.9%), 교직원(9.3%), 조교(7.0%), 강사(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다만 장애가 있는 학생은 동료 및 선·후배(10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5.5%)이었으며, 교수 연구실(27.3%), 강의실(21.6%), 온라인 공간(18.2%), 워크숍 세미나 장소(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학원 연구실(42.9%→45.5%)과 온라인 공간(15.4%→18.2%)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함. 다만 외국인은 온라인 공간(38.5%), 5학기 이상 대학원생은 교수 연구실(75.0%), 비전업 대학원생은 강의실(50.0%)을 피해 장소로 지목한 비율이 높았음

3 인권침해 대응

1) 인권침해 대응 방법

- 한 번이라도 인권침해를 경험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 시, 주로 취했던 행동을 조사한 결과, 52.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31.4%는 가족이나 믿을만한 지인들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당사자(가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다’ · ‘학내 기관(소속 학과, 대학 등)에 상담하거나 제보하였다’(각 3.6%)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다’(3.0%) > 기타(2.4%) > ‘학생자치 단체에 알려 공론화 하였다’ ·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각 1.8%)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항목 중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3.3%)이 더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항목 중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내국인(35.8%)이 더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3.6%, 6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52.1%)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66.7%)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72.2%)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학학기별로 3학기·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다른 집단과 달리,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65.2%)은 전업 대학원생(48.0%)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세부 항목 중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업 대학원생(37.4%)이 더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응답군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항목 중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40.0%)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4] 인권침해 대응 방법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2024		173	53.2	31.2	4.6	6.4	1.2
2025		169	52.7	31.4	3.6	3.6	3.0
성별	남성	56	53.6	26.8	1.8	3.6	3.6
	여성	111	52.3	33.3	4.5	3.6	2.7
	그 외	2	50.0	50.0	-	-	-
국적별	내국인	134	52.2	35.8	3.7	2.2	.7
	외국인	35	54.3	14.3	2.9	8.6	11.4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34	54.5	32.1	1.5	3.7	3.0
	기혼	27	51.9	22.2	14.8	-	3.7
	사실혼 동거	2	50.0	-	-	50.0	-
	그 외(이혼/사별 등)	6	16.7	66.7	-	-	-
장애여부별	유	6	66.7	33.3	-	-	-
	무	163	52.1	31.3	3.7	3.7	3.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92	50.0	33.7	3.3	3.3	2.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0	50.0	30.0	10.0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6	66.7	16.7	-	16.7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8	72.2	11.1	-	11.1	5.6
	박사 과정	43	48.8	37.2	4.7	-	4.7
재학학기별	1학기	24	54.2	16.7	8.3	4.2	8.3
	2학기	43	58.1	32.6	-	-	4.7
	3학기	23	30.4	39.1	8.7	8.7	-
	4학기	27	40.7	44.4	7.4	-	-
	5학기 이상	19	63.2	31.6	-	-	-
	수료	33	63.6	24.2	-	9.1	3.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23	48.0	37.4	3.3	4.1
비전업 대학원생	46	65.2	15.2	4.3	2.2	2.2	
인권교육	있음	40	52.5	40.0	-	2.5	2.5
경험별	없음	129	52.7	28.7	4.7	3.9	3.1

BASE :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주) 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②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 / ③ 당사자 (가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다 / ④ 학내 기관 (소속 학과, 대학 등)에 상담하거나 제보하였다 / ⑤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다

[표 35] 인권침해 대응 방법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⑥	⑦	⑧	⑨	기타
2024		173	1.7	0.6	0.6	0.6	-
2025		169	1.8	1.8	-	-	2.4
성별	남성	56	1.8	3.6	-	-	5.4
	여성	111	1.8	0.9	-	-	0.9
	그 외	2	-	-	-	-	-
국적별	내국인	134	2.2	0.7	-	-	2.2
	외국인	35	-	5.7	-	-	2.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34	0.7	1.5	-	-	3.0
	기혼	27	3.7	3.7	-	-	-
	사실혼 동거	2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6	16.7	-	-	-	-
장애여부별	유	6	-	-	-	-	-
	무	163	1.8	1.8	-	-	2.5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92	1.1	2.2	-	-	4.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0	10.0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6	-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8	-	-	-	-	-
	박사 과정	43	2.3	2.3	-	-	-
재학학기별	1학기	24	-	8.3	-	-	-
	2학기	43	2.3	-	-	-	2.3
	3학기	23	4.3	-	-	-	8.7
	4학기	27	-	3.7	-	-	3.7
	5학기 이상	19	5.3	-	-	-	-
	수료	33	-	-	-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23	0.8	0.8	-	-	2.4
	비전업 대학원생	46	4.3	4.3	-	-	2.2
인권교육	있음	40	2.5	-	-	-	-
경험별	없음	129	1.6	2.3	-	-	3.1

BASE :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주) ⑥ 학생자치 단체에 알려 공론화 하였다 / ⑦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 ⑧ 학외 기관 (국가인권 위원회, 외부상담소 등)에 상담하거나 제보하였다 / ⑨ 언론에 제보하거나 SNS에 폭로하였다



■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

- 인권침해 발생 시,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6.8%) >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각 25.4%) > '학업이나 진로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21.8%) >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13.4%) > '가해자의 보복, 소문 등 2차 피해가 두려워서'(11.3%) > 기타(6.3%) > '문제 해결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4.9%) > '프로젝트, 조교 등 배제로 경제적 곤란이 있을 것 같아서'(2.1%) > '대처 방법이나 도움받을 곳을 알지 못해서'·'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각 1.4%) > '믿을 만한 사람이나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0.7%)
- 조직 내 관계(31.7%)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25.4%)에 대한 우려로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는 비율의 합계가 57.1%로, 이는 대학원 조직과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은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35.6%), 여성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3.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0.5%), 외국인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5.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45.0%)은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28.4%)보다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은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31.6%)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52.9%)은 다른 집단에 비해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35.1%)은 전업 대학원생(30.5%)보다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35.1%)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30.5%)보다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36]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2024		145	31.0	21.4	28.3	26.2	22.1	13.1
2025		142	31.7	26.8	25.4	25.4	21.8	13.4
성별	남성	45	28.9	31.1	35.6	13.3	13.3	13.3
	여성	95	33.7	24.2	20.0	30.5	26.3	12.6
	그 외	2	-	50.0	50.0	50.0	-	50.0
국적별	내국인	118	30.5	22.9	27.1	27.1	22.0	16.1
	외국인	24	37.5	45.8	16.7	16.7	20.8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16	28.4	28.4	26.7	26.7	23.3	12.9
	기혼	20	45.0	20.0	20.0	20.0	15.0	15.0
	사실혼 동거	1	100.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40.0	20.0	20.0	20.0	20.0	20.0
장애여부별	유	6	33.3	-	50.0	33.3	16.7	16.7
	무	136	31.6	27.9	24.3	25.0	22.1	13.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77	37.7	20.8	27.3	28.6	18.2	14.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8	12.5	37.5	50.0	12.5	12.5	37.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5	20.0	20.0	-	-	20.0	40.0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5	20.0	40.0	20.0	13.3	40.0	-
	박사 과정	37	29.7	32.4	21.6	29.7	24.3	8.1
재학학기별	1학기	17	52.9	23.5	41.2	11.8	23.5	5.9
	2학기	39	30.8	30.8	20.5	28.2	10.3	20.5
	3학기	16	43.8	18.8	18.8	31.3	43.8	12.5
	4학기	23	34.8	26.1	26.1	30.4	13.0	4.3
	5학기 이상	18	5.6	33.3	33.3	22.2	16.7	5.6
	수료	29	27.6	24.1	20.7	24.1	34.5	20.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5	30.5	29.5	25.7	26.7	19.0	13.3
	비전업 대학원생	37	35.1	18.9	24.3	21.6	29.7	13.5
인권교육	있음	37	35.1	29.7	24.3	21.6	21.6	10.8
경험별	없음	105	30.5	25.7	25.7	26.7	21.9	14.3

BASE :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대응 또는 공론화 하지 않은 응답자(무응답 제외)

주) ①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 ②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③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 ④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학업이나 진로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 ⑥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표 37] 대응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⑦	⑧	⑨	⑩	⑪	⑫	기타
2024		145	9.0	9.0	1.4	4.8	4.1	3.4	4.1
2025		142	11.3	4.9	2.1	1.4	1.4	0.7	6.3
성별	남성	45	8.9	11.1	2.2	2.2	2.2	2.2	6.7
	여성	95	12.6	2.1	2.1	1.1	1.1	-	6.3
	그 외	2	-	-	-	-	-	-	-
국적별	내국인	118	13.6	5.1	1.7	0.8	1.7	0.8	6.8
	외국인	24	-	4.2	4.2	4.2	-	-	4.2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16	12.1	3.4	0.9	1.7	0.9	0.9	6.9
	기혼	20	10.0	5.0	10.0	-	5.0	-	5.0
	사실혼 동거	1	-	100.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5	-	20.0	-	-	-	-	-
장애여부별	유	6	-	16.7	-	-	-	-	-
	무	136	11.8	4.4	2.2	1.5	1.5	0.7	6.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77	10.4	3.9	2.6	2.6	1.3	-	6.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8	-	-	-	-	-	-	12.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5	-	-	-	-	-	-	40.0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5	20.0	20.0	-	-	-	6.7	-
	박사 과정	37	13.5	2.7	2.7	-	2.7	-	2.7
재학학기별	1학기	17	-	5.9	5.9	-	-	-	11.8
	2학기	39	10.3	-	-	5.1	2.6	-	7.7
	3학기	16	-	-	-	-	-	-	12.5
	4학기	23	30.4	8.7	4.3	-	-	-	4.3
	5학기 이상	18	-	11.1	5.6	-	-	5.6	5.6
	수료	29	17.2	6.9	-	-	3.4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5	11.4	5.7	1.9	1.9	-	1.0	6.7
	비전업 대학원생	37	10.8	2.7	2.7	-	5.4	-	5.4
인권교육	있음	37	16.2	2.7	-	2.7	-	2.7	5.4
경험별	없음	105	9.5	5.7	2.9	1.0	1.9	-	6.7

BASE :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주) ⑦ 가해자의 보복, 소문 등 2차 피해가 두려워서 / ⑧ 문제 해결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⑨ 프로젝트, 조교 등 배제로 경제적 곤란이 있을 것 같아서 / ⑩ 대처 방법이나 도움받을 곳을 알지 못해서 / ⑪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 ⑫ 믿을 만한 사람이나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2) 인권침해 대응 결과

■ 피해자가 경험한 일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학원생 중, 피해자가 경험한 일로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22.2%) 항목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받았다’·‘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졌다’·‘휴학을 하였다’(각 16.7%) >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고소나 신고, 소송제기를 당했다’·‘학업(수업, 평가 등)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았다’·‘졸업 과정(논문, 작품, 시험 등)이 지연되거나 탈락되는 등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기타’(각 11.1%) >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학교 규정 및 학과 내규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프로젝트 참여, 단체 활동, 식사 등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제됐다’·‘전공이나 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다’(각 5.6%)

특성별 분석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36.4%)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 외국인(42.9%)은 ‘휴학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60.0%)은 전업 대학원생(21.7%)보다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66.7%)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받았다’,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26.7%)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8]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24		28	28.6	3.6	3.6	-	3.6	7.1	14.3
2025		18	22.2	16.7	16.7	16.7	16.7	11.1	11.1
성별	남성	9	22.2	11.1	11.1	22.2	22.2	11.1	22.2
	여성	9	22.2	22.2	22.2	11.1	11.1	11.1	-
	그 외	-	-	-	-	-	-	-	-
국적별	내국인	11	36.4	9.1	27.3	9.1	-	18.2	-
	외국인	7	-	28.6	-	28.6	42.9	-	28.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2	16.7	25.0	16.7	25.0	25.0	16.7	16.7
	기혼	4	25.0	-	25.0	-	-	-	-
	사실혼 동거	1	100.0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1	-	-	-	-	-	-	-
장애여부별	유	-	-	-	-	-	-	-	-
	무	18	22.2	16.7	16.7	16.7	16.7	11.1	11.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8	12.5	12.5	25.0	-	25.0	-	12.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2	50.0	-	50.0	-	-	50.0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	-	-	-	100.0	-	100.0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	33.3	33.3	-	33.3	-	-	33.3
	박사 과정	4	25.0	25.0	-	25.0	25.0	-	-
재학학기별	1학기	5	40.0	-	60.0	20.0	20.0	-	20.0
	2학기	2	-	-	-	-	-	-	-
	3학기	4	-	-	-	25.0	50.0	50.0	25.0
	4학기	2	50.0	-	-	-	-	-	-
	5학기 이상	1	-	-	-	-	-	-	-
	수료	4	25.0	75.0	-	25.0	-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2	16.7	25.0	16.7	25.0	25.0	16.7
비전업 대학원생	6	33.3	-	16.7	-	-	-	-	
인권교육	있음	3	-	66.7	-	33.3	-	-	-
경험별	없음	15	26.7	6.7	20.0	13.3	20.0	13.3	13.3

BASE :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대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주) ①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 / ②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받았다 / ③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 ④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 ⑤ 휴학을 하였다 / ⑥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고소나 신고, 소송제기를 당했다 / ⑦ 학업(수업, 평가 등)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았다

[표 39] 인권침해 대응 후 피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⑧	⑨	⑩	⑪	⑫	기타
2024		28	7.1	10.7	14.3	7.1	3.6	35.7
2025		18	11.1	5.6	5.6	5.6	5.6	11.1
성별	남성	9	11.1	-	11.1	-	11.1	-
	여성	9	11.1	11.1	-	11.1	-	22.2
	그 외	-	-	-	-	-	-	-
국적별	내국인	7	9.1	-	9.1	9.1	9.1	18.2
	외국인	12	14.3	14.3	-	-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4	8.3	8.3	-	8.3	-	-
	기혼	1	25.0	-	25.0	-	-	25.0
	사실혼 동거	1	-	-	-	-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	-	-	-	100.0	-
장애여부별	유	-	-	-	-	-	-	-
	무	18	11.1	5.6	5.6	5.6	5.6	11.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3	25.0	-	-	-	12.5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4	-	-	-	50.0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5	-	-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2	-	33.3	-	-	-	33.3
	박사 과정	4	-	-	25.0	-	-	25.0
재학학기별	1학기	2	-	-	-	-	-	-
	2학기	1	50.0	-	-	-	50.0	-
	3학기	4	-	-	-	25.0	-	-
	4학기	12	50.0	-	50.0	-	-	-
	5학기 이상	6	-	-	-	-	-	100.0
	수료	3	-	25.0	-	-	-	25.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5	-	8.3	8.3	8.3	-
비전업 대학원생	5	33.3	-	-	-	16.7	33.3	
인권교육	있음	8	-	-	-	-	-	33.3
경험별	없음	20	13.3	6.7	6.7	6.7	6.7	6.7

BASE :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대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주) ⑧ 졸업 과정(논문, 작품, 시험 등)이 지연되거나 탈락되는 등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 ⑨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⑩ 학교 규정 및 학과 내규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 ⑪ 프로젝트 참여, 단체 활동, 식사 등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제됐다 / ⑫ 전공이나 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다

■ 가해자가 경험한 일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음
 -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22.2%) > ‘자발적으로 학교를 잠시 떠났다(휴학·휴직 등)’(16.7%)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징계를 받았다’(각 11.1%) > ‘자퇴·퇴사 등을 하였다’,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였다’(각 5.6%)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55.6%)은 남성(44.4%)보다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4.5%)은 외국인(42.9%)보다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75.0%)은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33.3%)보다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80.0%)은 다른 집단과 달리, 가해자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66.7%)은 전업 대학원생(41.7%)보다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66.7%)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46.7%)보다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40] 인권침해 대응 후 가해자가 경험한 일(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2024		28	75.0	7.1	-	3.6	7.1	10.7	-	3.6	3.6
2025		18	50.0	22.2	16.7	11.1	11.1	5.6	5.6	-	-
성별	남성	9	44.4	22.2	33.3	11.1	-	11.1	11.1	-	-
	여성	9	55.6	22.2	-	11.1	22.2	-	-	-	-
	그 외	-	-	-	-	-	-	-	-	-	-
국적별	내국인	11	54.5	27.3	18.2	-	9.1	9.1	-	-	-
	외국인	7	42.9	14.3	14.3	28.6	14.3	-	14.3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2	33.3	25.0	25.0	16.7	16.7	8.3	8.3	-	-
	기혼	4	75.0	25.0	-	-	-	-	-	-	-
	사실혼 동거	1	100.0	-	-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1	100.0	-	-	-	-	-	-	-	-
장애여부별	유	-	-	-	-	-	-	-	-	-	-
	무	18	50.0	22.2	16.7	11.1	11.1	5.6	5.6	-	-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8	62.5	25.0	25.0	-	-	-	-	-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2	50.0	50.0	-	-	50.0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	-	-	-	-	-	100.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	33.3	33.3	-	66.7	-	-	-	-	-
	박사 과정	4	50.0	-	25.0	-	25.0	-	25.0	-	-
재학학기별	1학기	5	20.0	80.0	40.0	20.0	-	-	20.0	-	-
	2학기	2	50.0	-	50.0	-	-	-	-	-	-
	3학기	4	50.0	-	-	-	25.0	25.0	-	-	-
	4학기	2	100.0	-	-	-	-	-	-	-	-
	5학기 이상	1	100.0	-	-	-	-	-	-	-	-
	수료	4	50.0	-	-	25.0	25.0	-	-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2	41.7	25.0	8.3	16.7	16.7	8.3	8.3	-	-
	비전업 대학원생	6	66.7	16.7	33.3	-	-	-	-	-	-
인권교육	있음	3	66.7	-	-	-	33.3	-	-	-	-
경험별	없음	15	46.7	26.7	20.0	13.3	6.7	6.7	6.7	-	-

BASE :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대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주) 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기각 무혐의 처리 등) / ②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 / ③ 자발적으로 학교를 잠시 떠났다(휴학 휴직 등) / ④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 ⑤ 징계를 받았다(퇴학 직위해제 등) / ⑥ 자퇴 퇴사 등을 하였다 / ⑦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였다 / ⑧ 형사 처벌을 받았다

❖ ‘인권침해 대응’ 부분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52.7%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및 믿을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가 31.4%로 나타나 전체의 84.1%가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음. 이러한 비율은 2024년(84.4%)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년도 대비 학내 기관(소속 학과, 대학 등)에 상담하거나 제보(6.4%→3.6%)한 비율은 감소했으며, 인권센터 신고(1.2%→3.0%) 비율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 이는 공식적 기구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성별로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수료 상태, 비전업 대학원생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또한 외국인은 학내 기관 및 인권센터 등 학내 기관을 활용해 대응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1.7%)로 전년도(31.0%)와 유사하게 나타남. 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6.8%),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25.4%),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25.4%), ‘학업이나 진로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전년도(9.0%)와 비교해 ‘2차 피해(소문보복 등)가 두려워서’(11.3%)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위험하거나 두려운 선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여성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3.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30.5%)를 남성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31.1%),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1.1%)를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외국인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5.8%),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7.5%)의 응답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가해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50.0%), 장애가 없는 학생(31.6%)은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실제로 인권침해에 대응한 이후 피해자가 경험하는 결과는 문제 제기가 위험하거나 두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험은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22.2%)였으며, 전년도(28.6%)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는 인권침해 대응이 개인의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보다 비공식적 제재와 낙인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학업(수업, 평가 등)이나 진로에 불이익(11.1%), 휴학 경험(16.7%), 지도교수나 전공 변경(5.6%), 졸업 및 평가 지연이나 탈락(11.1%) 등이 확인되어, 문제 제기가 가해자의 책임 강화가 아니라 피해자의 학업 경로 수정과 후퇴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더 나아가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고소나 신고, 소송제기를 당했다’(11.1%)는 비율이 2024년(7.1%) 대비 증가해, 문제 제기가 법적·제도적 위험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경험은 5.6%로 2024년(10.7%)보다 감소했으며, ‘학교 규정 및 학과 내규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응답도 5.6%로 2024년(14.3%) 대비 크게 줄어들었음. 그러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받았다’·‘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경험은 각각 16.7%로 2024년(각각 3.6%) 대비 증가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6.7%로 2024년의 0%에서 상승하고 있어 일부 긍정적 변화도 확인되고 있음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75.0%)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해자 2명 중 1명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전년도와 비교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다’(7.1%→22.2%),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3.6%→11.1%), ‘징계를 받았다’(7.1%→11.1%)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 이후 일부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 내국인, 기혼 상태, 비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4 인권센터

1) 인권센터 이용 경험

■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경험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전체 응답자 452명 중 3명에 해당됨
 - 경험 없음(99.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1.0%)은 여성(0.4%)보다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1.3%)은 내국인(0.5%)보다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그 외(이혼/사별 등)의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12.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0.5%)보다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12.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2.0%)은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석사 과정(0.4%) 순임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2.5%)은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4학기(1.7%), 수료(1.3%) 순임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은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0.8%)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0.6%)보다 학내 인권센터 신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표 41]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024		504	0.4	99.6
2025		452	0.7	99.3
성별	남성	193	1.0	99.0
	여성	257	0.4	99.6
	그 외	2	-	100.0
국적별	내국인	373	0.5	99.5
	외국인	79	1.3	98.7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0.3	99.7
	기혼	79	1.3	98.7
	사실혼-동거	4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12.5	87.5
장애여부별	유	8	12.5	87.5
	무	444	0.5	99.5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0.4	99.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	100.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	100.0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	100.0
	박사 과정	102	2.0	98.0
재학학기별	1학기	94	-	100.0
	2학기	128	-	100.0
	3학기	57	-	100.0
	4학기	58	1.7	98.3
	5학기 이상	40	2.5	97.5
	수료	75	1.3	98.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0.9	99.1
	비전업 대학원생	107	-	100.0
인권교육	있음	126	0.8	99.2
경험별	없음	326	0.6	99.4

BASE : 전체응답자

■ 인권센터 이용 만족도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13.3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1명), ‘사건처리 담당자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1명), ‘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1명), ‘기타’(1명)라고 응답함
 - 매우 불만족(33.3%), 불만족(66.7%)

[표 42] 인권센터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조금 만족	만족	매우 만족
2024		2	40.00	50.0	-	-	-	50.0	-
2025		3	13.33	33.3	66.7	-	-	-	-
성별	남성	2	20.00	-	100.0	-	-	-	-
	여성	1	0.00	100.0	-	-	-	-	-
	그 외	-	-	-	-	-	-	-	-
국적별	내국인	2	20.00	-	100.0	-	-	-	-
	외국인	1	0.00	100.0	-	-	-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	0.00	100.0	-	-	-	-	-
	기혼	1	20.00	-	100.0	-	-	-	-
	사실혼 동거	-	-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1	20.00	-	100.0	-	-	-	-
장애여부별	유	1	20.00	-	100.0	-	-	-	-
	무	2	10.00	50.0	50.0	-	-	-	-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	20.00	-	100.0	-	-	-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	-	-	-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	-	-	-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	-	-	-	-	-	-	-
	박사 과정	2	10.00	50.0	50.0	-	-	-	-
재학학기별	1학기	-	-	-	-	-	-	-	-
	2학기	-	-	-	-	-	-	-	-
	3학기	-	-	-	-	-	-	-	-
	4학기	1	20.00	-	100.0	-	-	-	-
	5학기 이상	1	20.00	-	100.0	-	-	-	-
	수료	1	0.00	100.0	-	-	-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	13.33	33.3	66.7	-	-	-	-
	비전업 대학원생	-	-	-	-	-	-	-	-
인권교육	있음	1	0.00	100.0	-	-	-	-	-
경험별	없음	2	20.00	-	100.0	-	-	-	-

BASE :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센터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표 43] 인권센터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기타
2024		1	100.0	-	-	-
2025		3	33.3	33.3	33.3	33.3
성별	남성	2	50.0	50.0	-	50.0
	여성	1	-	-	100.0	-
	그 외	-	-	-	-	-
국적별	내국인	2	50.0	50.0	-	50.0
	외국인	1	-	-	100.0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	-	-	100.0	-
	기혼	1	-	100.0	-	100.0
	사실혼·동거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1	100.0	-	-	-
장애여부별	유	1	100.0	-	-	-
	무	2	-	50.0	50.0	50.0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	100.0	-	-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	-	-	-	-
	박사 과정	2	-	50.0	50.0	50.0
재학학기별	1학기	-	-	-	-	-
	2학기	-	-	-	-	-
	3학기	-	-	-	-	-
	4학기	1	-	100.0	-	100.0
	5학기 이상	1	100.0	-	-	-
	수료	1	-	-	100.0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	33.3	33.3	33.3	33.3
	비전업 대학원생	-	-	-	-	-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	-	-	100.0	-
	없음	2	50.0	50.0	-	50.0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비밀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 ② 사건처리 담당자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 ③ 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2) 인권센터 이용 의향

- 향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0%로 나타남
 - 의향 없음(27.0%)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8.2%)은 여성(69.3%)보다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79.7%)은 내국인(71.6%)보다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77.2%)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3.2%)보다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62.5%)이 더 낮음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석사)(91.3%)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80.9%)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73.6%)은 비전업 대학원생(71.0%)보다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80.2%)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0.2%)보다 학내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더 높음

[표 44] 인권센터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2024		504	73.0	27.0
2025		452	73.0	27.0
성별	남성	193	78.2	21.8
	여성	257	69.3	30.7
	그 외	2	50.0	50.0
국적별	내국인	373	71.6	28.4
	외국인	79	79.7	20.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2.6	27.4
	기혼	79	77.2	22.8
	사실혼-동거	4	75.0	25.0
	그 외(이혼/사별 등)	8	50.0	50.0
장애여부별	유	8	62.5	37.5
	무	444	73.2	26.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69.4	30.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1.6	18.4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91.3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2.7	27.3
	박사 과정	102	74.5	25.5
재학학기별	1학기	94	80.9	19.1
	2학기	128	78.1	21.9
	3학기	57	70.2	29.8
	4학기	58	62.1	37.9
	5학기 이상	40	72.5	27.5
	수료	75	65.3	34.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3.6
비전업 대학원생		107	71.0	29.0
인권교육	있음	126	80.2	19.8
경험별	없음	326	70.2	29.8

BASE : 전체응답자

■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2.6%)임
 -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41.0%) >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26.2%) > ‘조치 이후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서’(23.0%) > ‘사건처리가 늦을 것 같아서’(9.8%) >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9.0%) > ‘피해사실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5.7%) > ‘전문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각 4.9%) >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4.1%) > ‘기타’(3.3%)
 - 비밀유지 위험 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비와 같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인권센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무력감을 시사함. 또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2%로 전년 35.3% 대비 개선되었으나, 인권센터의 인지도 제고 및 위상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각 31.0%)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각 48.1%)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47.2%)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외국인(43.8%)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43.4%)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각 44.4%)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2.5%, 3명)이긴 하지만, ‘비밀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100.0%),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9.2%)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2~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학기 이상·수료 상태인 대학원생은 ‘비밀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비밀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남

-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45.1%)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비전업 대학원생(각 41.9%)은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44.0%)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44.3%)은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이어서 세부 항목 중 '조치 이후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40.0%)이 더 높게 나타남
-

[표 45]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2024		136	35.3	44.1	35.3	15.4	5.9
2025		122	42.6	41.0	26.2	23.0	9.8
성별	남성	42	31.0	28.6	31.0	14.3	14.3
	여성	79	48.1	48.1	24.1	27.8	7.6
	그 외	1	100.0	-	-	-	-
국적별	내국인	106	47.2	45.3	23.6	23.6	11.3
	외국인	16	12.5	12.5	43.8	18.8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99	43.4	42.4	23.2	24.2	12.1
	기혼	18	44.4	22.2	44.4	22.2	-
	사실혼·동거	1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25.0	100.0	25.0	-	-
장애여부별	유	3	33.3	100.0	33.3	-	-
	무	119	42.9	39.5	26.1	23.5	10.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75	45.3	41.3	26.7	22.7	13.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7	42.9	42.9	28.6	28.6	14.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	50.0	-	50.0	50.0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2	33.3	33.3	41.7	33.3	-
	박사 과정	26	42.3	42.3	19.2	15.4	-
재학학기별	1학기	18	27.8	38.9	38.9	16.7	11.1
	2학기	28	53.6	39.3	25.0	17.9	10.7
	3학기	17	47.1	29.4	17.6	23.5	23.5
	4학기	22	45.5	40.9	18.2	45.5	4.5
	5학기 이상	11	36.4	54.5	36.4	18.2	-
	수료	26	38.5	46.2	26.9	15.4	7.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91	45.1	40.7	20.9	24.2	9.9
	비전업 대학원생	31	35.5	41.9	41.9	19.4	9.7
인권교육	있음	25	44.0	28.0	16.0	40.0	4.0
경험별	없음	97	42.3	44.3	28.9	18.6	11.3

BASE :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

주) 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 ②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 / ③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 / ④ 조치 이후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서 / ⑤ 사건처리가 늦을 것 같아서

[표 46]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⑥	⑦	⑧	⑨	⑩	기타
2024		136	11.8	12.5	2.2	7.4	1.5	5.1
2025		122	9.0	5.7	4.9	4.9	4.1	3.3
성별	남성	42	9.5	4.8	9.5	9.5	4.8	7.1
	여성	79	8.9	5.1	2.5	2.5	3.8	1.3
	그 외	1	-	100.0	-	-	-	-
국적별	내국인	106	9.4	4.7	4.7	3.8	3.8	3.8
	외국인	16	6.3	12.5	6.3	12.5	6.3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99	9.1	5.1	6.1	5.1	5.1	4.0
	기혼	18	5.6	5.6	-	5.6	-	-
	사실혼 동거	1	100.0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	25.0	-	-	-	-
장애여부별	유	3	-	33.3	-	-	-	-
	무	119	9.2	5.0	5.0	5.0	4.2	3.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75	6.7	4.0	2.7	5.3	5.3	5.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7	14.3	-	14.3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	-	50.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2	-	16.7	8.3	-	-	-
	박사 과정	26	19.2	7.7	3.8	7.7	3.8	-
재학학기별	1학기	18	5.6	-	5.6	5.6	11.1	-
	2학기	28	7.1	-	-	3.6	10.7	10.7
	3학기	17	11.8	5.9	11.8	17.6	-	-
	4학기	22	13.6	4.5	-	-	-	-
	5학기 이상	11	-	18.2	9.1	-	-	-
	수료	26	11.5	11.5	7.7	3.8	-	3.8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91	6.6	6.6	6.6	5.5	3.3	4.4
	비전업 대학원생	31	16.1	3.2	-	3.2	6.5	-
인권교육	있음	25	8.0	12.0	8.0	4.0	4.0	4.0
경험별	없음	97	9.3	4.1	4.1	5.2	4.1	3.1

BASE :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

주) ⑥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 ⑦ 피해사실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⑧ 전문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⑨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⑩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3)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

- 학내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대학원생 중 61.9%가 인권센터가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함
 -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50.7%) >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21.7%) >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12.8%) > '학생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11.3%) > '정보 제공(SMS, 콘텐츠 제공 등)'(10.6%) >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한 특강 및 포럼'(10.2%) > '기타'(4.2%)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활성화'(2.9%)

특성별 분석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66.5%)은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외국인(44.3%)은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 혼인여부별로 그 외(이혼/사별 등)의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다른 응답군과 달리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과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를 각 37.5%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65.2%)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보다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이어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은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과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를 각 37.5%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반면,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51.1%)은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을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61.4%)은 다른 집단과 달리,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응답군 모두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 항목 중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을 응답한 비율은 전업 대학원생(53.3%)이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66.7%)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60.1%)보다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47]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2024		504	59.9	47.8	22.6	13.7	14.3	9.5	8.7	6.7	3.6
2025		452	61.9	50.7	21.7	12.8	11.3	10.6	10.2	2.9	4.2
성별	남성	193	61.1	50.3	21.8	13.5	11.9	11.4	8.8	2.1	3.6
	여성	257	62.6	51.4	21.4	12.5	10.9	10.1	11.3	3.5	4.3
	그 외	2	50.0	-	50.0	-	-	-	-	-	-
국적별	내국인	373	66.5	52.0	22.8	13.4	8.6	9.4	9.7	2.1	4.0
	외국인	79	40.5	44.3	16.5	10.1	24.1	16.5	12.7	6.3	5.1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62.6	53.5	21.9	11.9	11.6	10.5	8.3	3.0	4.4
	기혼	79	62.0	40.5	17.7	15.2	10.1	11.4	19.0	2.5	3.8
	사실혼 동거	4	75.0	50.0	50.0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25.0	25.0	37.5	37.5	12.5	12.5	12.5	-	-
장애여부별	유	8	50.0	25.0	37.5	37.5	12.5	12.5	-	-	12.5
	무	444	62.2	51.1	21.4	12.4	11.3	10.6	10.4	2.9	4.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59.6	47.8	23.3	14.7	9.4	10.6	12.7	3.3	4.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68.4	42.1	28.9	13.2	15.8	13.2	10.5	-	5.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60.9	56.5	13.0	8.7	30.4	-	8.7	4.3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59.1	61.4	27.3	9.1	11.4	6.8	4.5	4.5	-
	박사 과정	102	66.7	54.9	14.7	10.8	9.8	13.7	6.9	2.0	2.9
재학학기별	1학기	94	60.6	47.9	27.7	12.8	12.8	10.6	10.6	2.1	4.3
	2학기	128	68.8	55.5	18.8	14.1	7.8	11.7	9.4	1.6	1.6
	3학기	57	47.4	40.4	29.8	8.8	12.3	15.8	17.5	8.8	7.0
	4학기	58	50.0	43.1	22.4	15.5	15.5	6.9	13.8	3.4	10.3
	5학기 이상	40	70.0	57.5	15.0	15.0	7.5	5.0	5.0	2.5	-
	수료	75	68.0	56.0	16.0	10.7	13.3	10.7	5.3	1.3	4.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61.7	53.3	20.3	12.2	12.8	9.6	9.9	2.3	4.3
	비전업 대학원생	107	62.6	42.1	26.2	15.0	6.5	14.0	11.2	4.7	3.7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66.7	55.6	15.9	9.5	11.1	11.9	6.3	4.0	5.6
	없음	326	60.1	48.8	23.9	14.1	11.3	10.1	11.7	2.5	3.7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 / ②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 / ③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 ④ 홍보 (인권센터 및 역할) / ⑤ 학생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 ⑥ 정보 제공 (SMS, 컨텐츠 제공 등) / ⑦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한 특강 및 포럼 / ⑧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4) 인권교육 경험

- 최근 1년 동안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27.9%로, 전체응답자 452명 중 126명에 해당됨
 - 경험 없음(72.1%)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29.6%)은 남성(24.9%)보다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32.9%)은 내국인(26.8%)보다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은 인권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36.4%)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부터 5학기 이상으로 갈수록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29.9%)은 비전업 대학원생(21.5%)보다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음

[표 48] 인권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024		504	33.9	66.1
2025		452	27.9	72.1
성별	남성	193	24.9	75.1
	여성	257	29.6	70.4
	그 외	2	100.0	-
국적별	내국인	373	26.8	73.2
	외국인	79	32.9	67.1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9.4	70.6
	기혼	79	22.8	77.2
	사실혼·동거	4	50.0	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	100.0
장애여부별	유	8	-	100.0
	무	444	28.4	71.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3.7	76.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34.2	65.8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26.1	73.9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36.4	63.6
	박사 과정	102	32.4	67.6
재학학기별	1학기	94	16.0	84.0
	2학기	128	24.2	75.8
	3학기	57	26.3	73.7
	4학기	58	34.5	65.5
	5학기 이상	40	42.5	57.5
	수료	75	37.3	62.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9.9	70.1
	비전업 대학원생	107	21.5	78.5

BASE : 전체응답자

■ 인권교육 후 인권 중요성 인식 정도

-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77.14점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혀 그렇지 않다(3.2%), 그렇지 않다(0.8%), 별로 그렇지 않다(5.6%), 약간 그렇다(15.9%), 그렇다(46.8%), 매우 그렇다(27.8%)
- 다만 2024년(80.35점)에 비해 -3.21점,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2.6%p 하락함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라 남성(79.17점)은 여성(76.05점)보다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으나 비슷한 수준임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83.08점)과 내국인(75.60점)은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83.75점)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석사 과정(74.48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78.25점)은 비전업 대학원생(72.17점)보다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표 49] 인권교육 후 인권 중요성 인식 정도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24		171	80.35	1.2	1.2	5.3	15.2	41.5	35.7
2025		126	77.14	3.2	0.8	5.6	15.9	46.8	27.8
성별	남성	48	79.17	4.2	-	2.1	14.6	47.9	31.3
	여성	76	76.05	2.6	1.3	6.6	17.1	47.4	25.0
	그 외	2	70.00	-	-	50.0	-	-	50.0
국적별	내국인	100	75.60	4.0	1.0	7.0	15.0	47.0	26.0
	외국인	26	83.08	-	-	-	19.2	46.2	34.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06	76.98	3.8	0.9	4.7	17.9	42.5	30.2
	기혼	18	76.67	-	-	11.1	5.6	72.2	11.1
	사실혼-동거	2	90.00	-	-	-	-	50.0	50.0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	-
장애여부별	유	-	-	-	-	-	-	-	-
	무	126	77.14	3.2	0.8	5.6	15.9	46.8	27.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58	74.48	5.2	1.7	6.9	17.2	39.7	29.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3	81.54	-	-	7.7	-	69.2	23.1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6	80.00	-	-	-	33.3	33.3	33.3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6	83.75	-	-	-	25.0	31.3	43.8
	박사 과정	33	76.36	3.0	-	6.1	12.1	60.6	18.2
재학학기별	1학기	15	78.67	6.7	-	6.7	6.7	40.0	40.0
	2학기	31	80.00	-	-	3.2	16.1	58.1	22.6
	3학기	15	78.67	-	-	6.7	20.0	46.7	26.7
	4학기	20	71.00	5.0	5.0	5.0	20.0	45.0	20.0
	5학기 이상	17	76.47	-	-	5.9	29.4	41.2	23.5
	수료	28	77.14	7.1	-	7.1	7.1	42.9	35.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3	78.25	2.9	1.0	5.8	15.5	41.7	33.0
	비전업 대학원생	23	72.17	4.3	-	4.3	17.4	69.6	4.3

BASE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 인권교육 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

- 인권교육을 받은 후에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 중 58.3%가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했기 때문에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함
 -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16.7%) >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수동적 교육, 강의식 일방 전달 등)’ ·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 ‘기타’(각 8.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라 여성(87.5%)은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해서’가 남성(33.3%)은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와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50] 인권교육 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의무 교육이라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내용이 이론적· 추상적 이어서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기타
2024		13	69.2	7.7	7.7	-	15.4
2025		12	58.3	16.7	8.3	8.3	8.3
성별	남성	3	-	33.3	-	33.3	33.3
	여성	8	87.5	-	12.5	-	-
	그 외	1	-	100.0	-	-	-
국적별	내국인	12	58.3	16.7	8.3	8.3	8.3
	외국인	-	-	-	-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0	60.0	10.0	10.0	10.0	10.0
	기혼	2	50.0	50.0	-	-	-
	사실혼 동거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장애여부별	유	-	-	-	-	-	-
	무	12	58.3	16.7	8.3	8.3	8.3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8	62.5	12.5	12.5	12.5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	-	100.0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	-	-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	-	-	-	-	-
	박사 과정	3	66.7	-	-	-	33.3
재학학기별	1학기	2	50.0	-	50.0	-	-
	2학기	1	-	100.0	-	-	-
	3학기	1	100.0	-	-	-	-
	4학기	3	100.0	-	-	-	-
	5학기 이상	1	100.0	-	-	-	-
	수료	4	25.0	25.0	-	25.0	25.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	50.0	20.0	10.0	10.0
비전업 대학원생	2	100.0	-	-	-	-	

BASE :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3.7%)이 인권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3%) >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12.9%) >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5.8%) > ‘기타’(4.9%) > ‘식상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4.3%) > ‘원하는 내용의 교육이 아니어서’(2.5%) > ‘교육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1.8%) > ‘강사진이 다양하지 않아서’(0.6%)

특성별 분석

- 여성(55.8%)과 남성(51.0%) 모두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69.8%)은 내국인(50.5%)보다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2.5%,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53.5%)보다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62.5%)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60.8%)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51]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2024		333	54.7	14.1	15.6	3.3
2025		326	53.7	15.3	12.9	5.8
성별	남성	145	51.0	17.2	12.4	4.1
	여성	181	55.8	13.8	13.3	7.2
	그 외	-	-	-	-	-
국적별	내국인	273	50.5	16.1	13.9	5.5
	외국인	53	69.8	11.3	7.5	7.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55	52.5	18.0	12.5	3.9
	기혼	61	59.0	4.9	14.8	11.5
	사실혼 동거	2	-	-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62.5	12.5	12.5	-
장애여부별	유	8	62.5	12.5	12.5	-
	무	318	53.5	15.4	12.9	6.0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87	55.1	13.9	12.8	5.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25	56.0	12.0	12.0	4.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7	41.2	17.6	23.5	5.9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28	50.0	17.9	10.7	3.6
	박사 과정	69	53.6	18.8	11.6	7.2
재학학기별	1학기	79	60.8	7.6	12.7	2.5
	2학기	97	51.5	20.6	13.4	8.2
	3학기	42	59.5	9.5	16.7	7.1
	4학기	38	55.3	5.3	10.5	10.5
	5학기 이상	23	47.8	30.4	13.0	-
	수료	47	42.6	23.4	10.6	4.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42	54.1	18.6	10.3	5.0
	비전업 대학원생	84	52.4	6.0	20.2	8.3

BASE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

[표 52]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식상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원하는 내용의 교육이 아니어서	교육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강사진이 다양하지 않아서	기타
2024		333	3.0	2.1	4.2	0.9	3.6
2025		326	4.3	2.5	1.8	0.6	4.9
성별	남성	145	4.8	2.1	2.8	1.4	6.9
	여성	181	3.9	2.8	1.1	-	3.3
	그 외	-	-	-	-	-	-
국적별	내국인	273	4.4	2.6	2.2	0.4	4.4
	외국인	53	3.8	1.9	-	1.9	7.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55	4.7	2.4	1.6	0.4	5.1
	기혼	61	1.6	3.3	3.3	1.6	4.9
	사실혼 동거	2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12.5	-	-	-	-
장애여부별	유	8	-	12.5	-	-	-
	무	318	4.4	2.2	1.9	0.6	5.0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87	3.7	2.7	2.1	-	4.8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25	4.0	4.0	4.0	-	4.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7	-	-	-	5.9	5.9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28	3.6	3.6	3.6	-	10.7
	박사 과정	69	7.2	1.4	-	1.4	2.9
재학학기별	1학기	79	2.5	1.3	1.3	-	11.4
	2학기	97	3.1	-	2.1	-	3.1
	3학기	42	2.4	-	-	2.4	4.8
	4학기	38	13.2	7.9	-	-	-
	5학기 이상	23	4.3	4.3	-	4.3	4.3
	수료	47	4.3	6.4	6.4	-	2.1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42	5.8	2.1	1.2	0.8	4.5
	비전업 대학원생	84	-	3.6	3.6	-	6.0

BASE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분야 중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응답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도 45.8%로 높게 나타남
 - 혐오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21.0%) > 노동인권 교육(19.0%) > 인권정책 및 동향 관련 교육(17.0%) >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14.8%)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12.8%) > 외국인유학생 등 이주자 인권 관련 교육(12.2%) > 장애인 인권 교육(2.4%) > 기타(2.2%)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60.6%)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여성(49.4%)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49.4%)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7.9%)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외국인(45.6%)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이주자 인권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52.9%)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3학기 이하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수료를 포함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51.9%)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비전업 대학원생(56.1%)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55.2%)은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46.0%)보다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어서 세부 항목 중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희망하는 비율도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48.2%)이 더 높게 나타남

[표 53]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	혐오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노동인권 교육	인권정책 및 동향 관련 교육
2024		504	44.4	44.6	22.0	19.8	15.7
2025		452	52.7	45.8	21.0	19.0	17.0
성별	남성	193	60.6	41.5	21.8	21.2	16.1
	여성	257	46.7	49.4	20.2	17.5	17.9
	그 외	2	50.0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57.9	48.5	22.5	17.7	18.0
	외국인	79	27.8	32.9	13.9	25.3	12.7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53.2	44.6	21.9	19.4	16.9
	기혼	79	49.4	49.4	19.0	19.0	17.7
	사실혼 동거	4	100.0	75.0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37.5	50.0	12.5	12.5	25.0
장애여부별	유	8	37.5	50.0	37.5	25.0	12.5
	무	444	52.9	45.7	20.7	18.9	17.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51.8	45.3	21.2	20.4	18.4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57.9	52.6	21.1	18.4	13.2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47.8	43.5	21.7	21.7	17.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47.7	36.4	20.5	18.2	22.7
	박사 과정	102	55.9	49.0	20.6	15.7	12.7
재학학기별	1학기	94	51.1	50.0	22.3	27.7	17.0
	2학기	128	53.9	50.0	22.7	18.0	19.5
	3학기	57	54.4	35.1	19.3	15.8	15.8
	4학기	58	51.7	36.2	17.2	19.0	15.5
	5학기 이상	40	45.0	40.0	15.0	22.5	20.0
	수료	75	56.0	52.0	24.0	10.7	13.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51.9	42.6	20.6	21.7	17.4
	비전업 대학원생	107	55.1	56.1	22.4	10.3	15.9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46.0	39.7	28.6	13.5	9.5
	없음	326	55.2	48.2	18.1	21.2	19.9

BASE : 전체응답자

[표 54]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육(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 이주자 인권 관련 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	기타
2024		504	16.1	15.5	12.9	7.7	1.2
2025		452	14.8	12.8	12.2	2.4	2.2
성별	남성	193	8.3	13.0	12.4	2.1	3.1
	여성	257	19.5	12.8	11.7	2.7	1.6
	그 외	2	50.0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14.2	12.3	5.1	1.6	2.1
	외국인	79	17.7	15.2	45.6	6.3	2.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14.7	11.9	12.7	3.0	1.7
	기혼	79	13.9	16.5	11.4	-	3.8
	사실혼 동거	4	25.0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25.0	25.0	-	-	12.5
장애여부별	유	8	-	-	12.5	12.5	12.5
	무	444	15.1	13.1	12.2	2.3	2.0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16.3	12.7	9.0	2.0	2.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0.5	13.2	5.3	7.9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3.0	21.7	8.7	4.3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13.6	15.9	22.7	2.3	-
	박사 과정	102	13.7	9.8	18.6	1.0	2.9
재학학기별	1학기	94	9.6	11.7	7.4	2.1	1.1
	2학기	128	9.4	11.7	10.2	2.3	2.3
	3학기	57	21.1	12.3	19.3	5.3	1.8
	4학기	58	20.7	19.0	13.8	3.4	3.4
	5학기 이상	40	20.0	12.5	20.0	2.5	2.5
	수료	75	18.7	12.0	10.7	-	2.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15.1	11.3	14.2	3.2	2.0
	비전업 대학원생	107	14.0	17.8	5.6	-	2.8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22.2	17.5	18.3	3.2	1.6
	없음	326	12.0	11.0	9.8	2.1	2.5

BASE : 전체응답자

❖ ‘인권센터 인식 및 인권교육 경험’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전년도 (0.4%) 대비 0.3%p 소폭 증가함. 그러나 대학원 생활 중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37.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센터 신고 경험률은 여전히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인권센터가 대학원생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권센터 이용 경험자는 3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13.3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용자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불만족’ 66.7%, ‘매우 불만족’ 33.3%로, 만족 또는 보통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권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 확인됨
- 인권센터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밀 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사건 처리 담당자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서’가 각각 33.3%(각 1명)로 동일하게 지목되었음. 이는 인권센터 운영에 있어 신뢰, 소통, 절차적 투명성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다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73.0%는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4명 중 1명 이상은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함. 특히 여성(69.3%)은 인권침해 경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 이용 의향은 남성(78.2%)보다 낮게 나타남. 반면 외국인, 기혼자, 장애가 없는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2.6%)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41%),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26.2%), ‘조치 이후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서’(23.0%), ‘사건 처리가 늦을 것 같아서’(9.8%),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가 ‘몰라서’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밀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에 집중되어 있어, 인권센터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각각 48.1%)의 응답 비율이 높아 보복 및 비밀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으며, 남성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31.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인지도 부족을 더 많이 지적함. 또한 내국인,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 장애가 없는 학생, 2~4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를, 외국인,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비전업 대학원생은 '인권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 장애가 있는 학생, 5학기 이상수료 상태인 대학원생, 비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무경험자는 '비밀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함

- 인권센터의 우선적 역할로는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6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59.9%)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임. 이는 대학원생들이 인권센터를 교육 및 캠페인 기관 보다는 즉각적 구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 상담 및 사건 처리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줌. 이어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50.7%), '학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21.7%),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대체로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외국인은 '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 및 지원'(44.3%)을, 혼인여부별로 그 외(이혼/사별 등)의 상태인 대학원생은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과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각 37.5%)를 인권센터의 우선적 역할로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27.9%로 전년도 (33.9%) 대비 6.0%p 감소하였음. 이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특성별로 여성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교육 경험이 낮음. 국적별로 외국인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내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프로그램 및 안내에 따른 선택적 참여의 결과로 해석됨.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 전원이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취약한 집단에게 인권교육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재학 기간이 길수록 인권교육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업 대학원생의 경험률이 비전업 대학원생보다 높게 나타나, 비전업 대학원생은 시간 및 접근성 문제로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77.14점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다만 2024년(80.35점)에 비해 3.21%p 하락했으며,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 역시 77.2%에서 74.6%로 소폭 감소함
- 특성별로 남성, 외국인, 사실혼동거(사례수가 적음),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2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는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해서’(5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69.2%) 대비 감소해 형식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줌. 그 외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16.7%),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와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기타(각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은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해서’(87.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교육 내용이 너무 이론적·추상적이어서(구체적 사례 부재 등)’와 ‘교육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각각 33.3%)의 비율이 높아, 여성은 교육의 형식성, 남성은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동의 가능성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로는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53.7%)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3%),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12.9%),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면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54.7%→53.7%)와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15.6%→12.9%)의 응답 비율은 감소 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1%→15.3%)와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어서’(3.3%→5.8%)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접근성 문제는 일부 완화됐으나, 교육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한 공감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55.8%)과 남성(51.0%) 모두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에서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52.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45.8%), 혐오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21.0%), 노동인권 교육(19.0%), 인권 정책 및 동향 관련 교육(17.0%),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현실에 직접 적용 가능한 인권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남성(60.6%)은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을, 여성(49.4%)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으며, 외국인(45.6%)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이주자 인권 관련 교육’,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0.0%)과 비전업 대학원생(56.1%)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남

⑤ 대학원 생활

1) 자녀 유무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15.5%로, 전체 응답자 452명 중 70명에 해당됨
 - 자녀 없음(84.5%)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17.9%)은 남성(12.4%)보다 자녀가 있는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15.5%)은 외국인(15.2%)보다 자녀가 있는 비율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박사 과정(23.5%)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30.0%)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41.1%)은 전업 대학원생(7.5%)보다 자녀가 있는 비율이 더 높음

[표 55] 자녀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2024		504	14.5	85.5
2025		452	15.5	84.5
성별	남성	193	12.4	87.6
	여성	257	17.9	82.1
	그 외	2	-	100.0
국적별	내국인	373	15.5	84.5
	외국인	79	15.2	84.8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0.3	99.7
	기혼	79	82.3	17.7
	사실혼-동거	4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50.0	50.0
장애여부별	유	8	25.0	75.0
	무	444	15.3	84.7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16.7	83.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	100.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8.7	91.3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6.8	93.2
	박사 과정	102	23.5	76.5
재학학기별	1학기	94	10.6	89.4
	2학기	128	15.6	84.4
	3학기	57	8.8	91.2
	4학기	58	13.8	86.2
	5학기 이상	40	30.0	70.0
	수료	75	20.0	80.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5
비전업 대학원생	107	41.1	58.9	

BASE : 전체응답자

2)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 이용경험

-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중 수유실(전남대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없으며, 학내 보육센터(전남대학교 어린이집)은 5.7%(4명)로 나타남

[표 56]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수유실 (전남대학교 보건실)	학내 보육센터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2024		73	-	-
2025		70	-	5.7
성별	남성	24	-	-
	여성	46	-	8.7
	그 외	-	-	-
국적별	내국인	58	-	3.4
	외국인	12	-	16.7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	-	100.0
	기혼	65	-	4.6
	사실혼·동거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	-
장애여부별	유	2	-	-
	무	68	-	5.9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1	-	4.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	-	-
	박사 과정	24	-	8.3
재학학기별	1학기	10	-	-
	2학기	20	-	5.0
	3학기	5	-	-
	4학기	8	-	12.5
	5학기 이상	12	-	-
	수료	15	-	13.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6	-
비전업 대학원생	44	-	4.5	

BASE :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이용하지 않은 이유_수유실

-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중 수유실(전남대학교 보건실)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 수유실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50.0%)임
 -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31.4%) >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10.0%) > ‘공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 ‘기타’(각 4.3%)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41.7%)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여성(60.9%)은 ‘자녀의 연령이 수유실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5.2%)은 ‘자녀의 연령이 수유실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외국인(41.7%)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60.0%)은 다른 집단과 달리,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56.8%)은 전업 대학원생(38.5%)보다 ‘자녀의 연령이 수유실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음

[표 57]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_수유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의 연령이 수유실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공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기타
2024		73	54.8	30.1	8.2	1.4	5.5
2025		70	50.0	31.4	10.0	4.3	4.3
성별	남성	24	29.2	41.7	16.7	-	12.5
	여성	46	60.9	26.1	6.5	6.5	-
	그 외	-	-	-	-	-	-
국적별	내국인	58	55.2	29.3	8.6	3.4	3.4
	외국인	12	25.0	41.7	16.7	8.3	8.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	100.0	-	-	-	-
	기혼	65	47.7	33.8	9.2	4.6	4.6
	사실혼·동거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75.0	-	25.0	-	-
장애여부별	유	2	100.0	-	-	-	-
	무	68	48.5	32.4	10.3	4.4	4.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1	48.8	36.6	9.8	4.9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	-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50.0	50.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	-	33.3	33.3	-	33.3
	박사 과정	24	58.3	20.8	8.3	4.2	8.3
재학학기별	1학기	10	40.0	30.0	30.0	-	-
	2학기	20	65.0	15.0	5.0	10.0	5.0
	3학기	5	60.0	20.0	20.0	-	-
	4학기	8	50.0	37.5	-	-	12.5
	5학기 이상	12	58.3	25.0	8.3	-	8.3
	수료	15	26.7	60.0	6.7	6.7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6	38.5	26.9	19.2	11.5	3.8
	비전업 대학원생	44	56.8	34.1	4.5	-	4.5

BASE :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 이용하지 않은 이유_학내 보육센터

-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 중 보육센터(전남대학교 어린이집)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 학내 보육센터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50.0%)임
 -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27.3%) > ‘공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9.1%) >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7.6%) > ‘기타’(6.1%)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45.8%)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여성(59.5%)은 ‘자녀의 연령이 학내 보육센터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7.1%)은 ‘자녀의 연령이 학내 보육센터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외국인(50.0%)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57.1%)은 전업 대학원생(37.5%)보다 ‘자녀의 연령이 학내 보육센터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음

[표 58]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_학내보육센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의 연령이 학내 보육센터 이용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공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기타
2024		73	47.9	28.8	4.1	12.3	6.8
2025		66	50.0	27.3	9.1	7.6	6.1
성별	남성	24	33.3	45.8	8.3	4.2	8.3
	여성	42	59.5	16.7	9.5	9.5	4.8
	그 외	-	-	-	-	-	-
국적별	내국인	56	57.1	23.2	7.1	7.1	5.4
	외국인	10	10.0	50.0	20.0	10.0	10.0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	-	-	-	-	-
	기혼	62	48.4	27.4	9.7	8.1	6.5
	사실혼·동거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4	75.0	25.0	-	-	-
장애여부별	유	2	100.0	-	-	-	-
	무	64	48.4	28.1	9.4	7.8	6.3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39	53.8	28.2	7.7	7.7	2.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	-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	50.0	50.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	-	33.3	-	33.3	33.3
	박사 과정	22	50.0	22.7	13.6	4.5	9.1
재학학기별	1학기	10	50.0	40.0	-	10.0	-
	2학기	19	47.4	26.3	5.3	10.5	10.5
	3학기	5	60.0	-	-	40.0	-
	4학기	7	42.9	28.6	28.6	-	-
	5학기 이상	12	50.0	33.3	-	-	16.7
	수료	13	53.8	23.1	23.1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4	37.5	25.0	20.8	12.5	4.2
	비전업 대학원생	42	57.1	28.6	2.4	4.8	7.1

BASE : 학내 육아 지원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3) 경제적 부담 수준

- 대학원 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음
 -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25.7%) >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15.0%) >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14.2%) >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10.8%) >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6.6%)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27.5%)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성(28.0%)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28.4%)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32.9%)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 없는 대학원생(30.7%)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 기혼 상태인 대학원생(25.3%)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37.5%)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28.2%)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29.9%)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 비전업 대학원생(27.1%)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59] 경제적 부담 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2024		504	5.6	15.3	8.9	24.8	31.0	14.5
2025		452	6.6	14.2	10.8	25.7	27.7	15.0
성별	남성	193	7.3	13.5	9.3	27.5	26.9	15.5
	여성	257	5.8	14.8	12.1	24.5	28.0	14.8
	그 외	2	50.0	-	-	-	50.0	-
국적별	내국인	373	5.4	13.1	11.8	28.4	26.5	14.7
	외국인	79	12.7	19.0	6.3	12.7	32.9	16.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6.6	14.4	9.1	26.0	30.7	13.0
	기혼	79	5.1	12.7	16.5	25.3	16.5	24.1
	사실혼·동거	4	-	-	50.0	25.0	25.0	-
	그 외(이혼/사별 등)	8	25.0	25.0	12.5	12.5	-	25.0
장애여부별	유	8	-	12.5	25.0	37.5	-	25.0
	무	444	6.8	14.2	10.6	25.5	28.2	14.9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6.5	14.7	10.2	30.2	24.1	14.3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	7.9	5.3	23.7	44.7	18.4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3.0	17.4	8.7	17.4	34.8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13.6	9.1	9.1	29.5	22.7	15.9
	박사 과정	102	4.9	16.7	15.7	15.7	30.4	16.7
재학학기별	1학기	94	11.7	13.8	4.3	21.3	34.0	14.9
	2학기	128	2.3	13.3	10.9	30.5	26.6	16.4
	3학기	57	5.3	21.1	17.5	14.0	28.1	14.0
	4학기	58	6.9	13.8	19.0	32.8	17.2	10.3
	5학기 이상	40	7.5	17.5	7.5	20.0	27.5	20.0
	수료	75	8.0	9.3	9.3	29.3	29.3	14.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8.1	13.0	9.9	27.8	29.9	11.3
	비전업 대학원생	107	1.9	17.8	14.0	18.7	20.6	27.1

BASE : 전체응답자

- 주) ①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 ②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
 ③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 ④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⑤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 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 /
 ⑥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4)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23.9%로 전체 응답자 452명 중 108명에 해당됨
 - 경험 없음(76.1%)

특성별 분석

- 성별로 여성(25.3%)은 남성(21.8%)보다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24.1%)은 내국인(23.9%)보다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그 외(이혼/사별 등)의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다른 응답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석사)(30.4%)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재학학기별로 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34.5%)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28.0%)은 전업 대학원생(22.6%)보다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경제적 부담 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큰 부담'과 '큰 부담' 집단에서 학업 중단 고려 경험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집단에서 학업 지속이 더 취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

[표 60]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024		504	25.0	75.0
2025		452	23.9	76.1
성별	남성	193	21.8	78.2
	여성	257	25.3	74.7
	그 외	2	50.0	50.0
국적별	내국인	373	23.9	76.1
	외국인	79	24.1	75.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3.0	77.0
	기혼	79	25.3	74.7
	사실혼-동거	4	25.0	75.0
	그 외(이혼/사별 등)	8	50.0	50.0
장애여부별	유	8	25.0	75.0
	무	444	23.9	76.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4.5	75.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0.5	89.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30.4	69.6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18.2	81.8
	박사 과정	102	28.4	71.6
재학학기별	1학기	94	23.4	76.6
	2학기	128	19.5	80.5
	3학기	57	28.1	71.9
	4학기	58	34.5	65.5
	5학기 이상	40	22.5	77.5
	수료	75	21.3	78.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2.6	77.4
	비전업 대학원생	107	28.0	72.0
경제적 부담 수준	매우 큰 부담	30	56.7	43.3
	큰 부담	64	60.9	39.1
	다소 부담	49	24.5	75.5
	부담 적은 편	116	18.1	81.9
	여유 있는 편	125	12.0	88.0
	충분히 여유로운 편	68	5.9	94.1

BASE : 전체응답자



5)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 대학원생 중 34.7%가 경제적 이유로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경제적 이유로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34.5%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을 수행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수업조교(TA)(30.3%)와 연구조교(RA)(29.4%)를 수행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 학과 행정조교(5.1%) > 연구 중단(4.6%) > 학내 기관 소속 자체 직원(3.8%) > 기타(2.7%)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 '없음'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남성(40.4%)은 여성(29.6%)보다 연구원을 수행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없음'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내국인(36.2%)은 연구원을, 외국인(38.0%)은 연구조교(RA)를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없음'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석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석사)은 연구조교(RA)를, 학석사 연계과정(석사)과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박사 과정은 연구원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석사 과정(46.9%)은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50.7%)은 학과 행정조교를 수행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72.0%)은 전업 대학원생(23.2%)보다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전업 대학원생(43.5%)은 연구원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부담 수준에 따라,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대학원생(각 40.0%)은 연구원과 수업조교(TA)를, 큰 부담을 느끼는 대학원생(43.8%)은 연구조교(RA)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세부 항목 중 연구 중단을 경험한 비율도 큰 부담을 느끼는 대학원생(1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1]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연구 종단
2024		504	43.3	27.2	24.4	27.0	5.2	2.4	3.8	4.0
2025		452	34.7	34.5	30.3	29.4	5.1	3.8	2.7	4.6
성별	남성	193	33.7	40.4	31.6	30.6	4.7	3.6	2.6	3.1
	여성	257	35.8	29.6	28.8	28.0	5.1	3.9	2.7	5.8
	그 외	2	-	100.0	100.0	100.0	50.0	-	-	-
국적별	내국인	373	37.0	36.2	31.6	27.6	4.8	4.0	2.1	5.1
	외국인	79	24.1	26.6	24.1	38.0	6.3	2.5	5.1	2.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9.4	39.1	34.9	33.8	5.8	3.9	2.2	3.3
	기혼	79	57.0	13.9	11.4	11.4	2.5	3.8	5.1	8.9
	사실혼·동거	4	25.0	50.0	50.0	-	-	-	-	25.0
	그 외(이혼/사별 등)	8	62.5	25.0	-	25.0	-	-	-	12.5
장애여부별	유	8	50.0	25.0	-	25.0	-	-	-	-
	무	444	34.5	34.7	30.9	29.5	5.2	3.8	2.7	4.7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46.9	22.4	23.7	19.6	4.1	3.3	3.7	4.1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5.8	55.3	36.8	31.6	7.9	-	2.6	5.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21.7	34.8	39.1	21.7	8.7	4.3	-	8.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15.9	50.0	43.2	40.9	9.1	2.3	-	4.5
	박사 과정	102	23.5	49.0	36.3	49.0	3.9	6.9	2.0	4.9
재학학기별	1학기	94	46.8	29.8	17.0	18.1	5.3	4.3	1.1	2.1
	2학기	128	36.7	35.2	32.0	28.9	4.7	3.9	2.3	1.6
	3학기	57	40.4	21.1	24.6	29.8	3.5	3.5	5.3	8.8
	4학기	58	27.6	39.7	36.2	22.4	1.7	1.7	3.4	10.3
	5학기 이상	40	37.5	27.5	32.5	27.5	5.0	2.5	2.5	5.0
	수료	75	16.0	49.3	42.7	50.7	9.3	5.3	2.7	5.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3.2	43.5	38.0	37.4	5.2	2.6	3.2	3.5
	비전업 대학원생	107	72.0	5.6	5.6	3.7	4.7	7.5	0.9	8.4
경제적 부담 수준	매우 큰 부담	30	20.0	40.0	40.0	36.7	16.7	3.3	-	3.3
	큰 부담	64	26.6	28.1	25.0	43.8	3.1	4.7	3.1	12.5
	다소 부담	49	32.7	24.5	22.4	28.6	4.1	6.1	6.1	8.2
	부담 적은 편	116	36.2	38.8	34.5	23.3	4.3	4.3	0.9	2.6
	여유 있는 편	125	32.8	40.8	36.8	31.2	4.8	3.2	2.4	2.4
	충분히 여유로운 편	68	51.5	26.5	17.6	20.6	4.4	1.5	4.4	2.9

BASE : 전체응답자

주) ① 연구원(프로젝트 참여) / ② 수업조교(TA) / ③ 연구조교(RA) / ④ 학과 행정조교 / ⑤ 학내 기관 소속 자체 직원 / ⑥ 기타

■ 업무 계약서 작성 여부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69.5%가 수행한 업무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작성하지 않음(30.5%)

특성별 분석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73.1%)은 외국인(55.4%)보다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5%, 4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0.1%)보다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더 높게 나타남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은 다른 응답군과 비교하여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로 1학기에서 4기로 갈수록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6.1%)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66.1%)보다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62] 업무 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2024		261	70.5	29.5
2025		275	69.5	30.5
성별	남성	120	70.0	30.0
	여성	153	68.6	31.4
	그 외	2	100.0	-
국적별	내국인	219	73.1	26.9
	외국인	56	55.4	44.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44	69.7	30.3
	기혼	26	65.4	34.6
	사실혼-동거	2	100.0	-
	그 외(이혼/사별 등)	3	66.7	33.3
장애여부별	유	4	25.0	75.0
	무	271	70.1	29.9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18	70.3	29.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0	83.3	16.7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7	64.7	35.3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5	62.9	37.1
	박사 과정	75	66.7	33.3
재학학기별	1학기	48	77.1	22.9
	2학기	78	76.9	23.1
	3학기	31	67.7	32.3
	4학기	36	61.1	38.9
	5학기 이상	24	62.5	37.5
	수료	58	62.1	37.9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53	69.6	30.4
	비전업 대학원생	22	68.2	31.8
인권교육	있음	92	76.1	23.9
경험별	없음	183	66.1	33.9

BASE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행한 응답자

■ 업무 계약서 제공 언어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서가 한국어로 제공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71.0%로 가장 높음
 - 영어(19.4%) > 이해할 수 있는 비영어권 언어(9.7%)

특성별 분석

- 참여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학과행정조교에 참여한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3.2%, 1명)이긴 하지만, 업무 계약서가 한국어로 제공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수업조교(TA)(80.0%), 연구조교(RA)(70.0%), 연구원(프로젝트 참여)(66.7%) 순으로 높음

[표 63] 업무 계약서 제공 언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국어	영어	이해할 수 있는 비영어권 언어	기타
2024		22	77.3	4.5	13.6	4.5
2025		31	71.0	19.4	9.7	-
성별	남성	11	45.5	27.3	27.3	-
	여성	20	85.0	15.0	-	-
	그 외	-	-	-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7	70.4	18.5	11.1	-
	기혼	4	75.0	25.0	-	-
	사실혼 동거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장애여부별	유	1	-	100.0	-	-
	무	30	73.3	16.7	10.0	-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8	50.0	25.0	25.0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	-	-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	100.0	-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9	88.9	11.1	-	-
	박사 과정	13	69.2	23.1	7.7	-
재학학기별	1학기	7	42.9	28.6	28.6	-
	2학기	6	83.3	16.7	-	-
	3학기	5	60.0	20.0	20.0	-
	4학기	5	60.0	40.0	-	-
	5학기 이상	4	100.0	-	-	-
	수료	4	100.0	-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0	70.0	20.0	10.0
비전업 대학원생		1	100.0	-	-	-
참여 프로그램별	수업조교(TA)	10	80.0	10.0	10.0	-
	학과행정조교	1	100.0	-	-	-
	연구조교(RA)	20	70.0	25.0	5.0	-
	연구원(프로젝트 참여)	9	66.7	22.2	11.1	-

BASE :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외국인 응답자

주) 참여프로그램은 복수응답으로 사례수의 총 합이 31명을 초과할 수 있음

■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82.62점으로 매우 적절하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됨
 - 매우 적절하지 않음(3.7%), 적절하지 않음(1.0%), 별로 적절하지 않음(2.1%), 조금 적절함(12.0%), 적절함(34.0%), 매우 적절함(47.1%)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83.24점)은 남성(82.14점)보다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 국적별 응답으로 내국인(82.88점)은 외국인(81.29점)보다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별 응답으로 사실혼·동거 상태인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0.9%, 4명)이긴 하지만, 사실혼·동거(100.00점)는 전체 집단 중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82.74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60.00점)보다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 응답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7.20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음
- 재학학기별 응답으로 3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90.48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 응답으로 전업 대학원생(83.52점)은 비전업 대학원생(72.00점)보다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87.14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80.00점)보다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더 높음

[표 64]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

(단위 : 명, 점, %)

구분		사례수	평균 (100점)	응답비율					
				매우 적절 하지 않음	적절 하지 않음	별로 적절 하지 않음	조금 적절함	적절함	매우 적절함
2024		184	83.59	1.1	-	3.3	12.5	41.8	41.3
2025		452	82.62	3.7	1.0	2.1	12.0	34.0	47.1
성별	남성	193	82.14	6.0	1.2	1.2	10.7	29.8	51.2
	여성	257	83.24	1.9	1.0	2.9	12.4	37.1	44.8
	그 외	2	70.00	-	-	-	50.0	50.0	-
국적별	내국인	373	82.88	4.4	1.3	0.6	11.3	34.4	48.1
	외국인	79	81.29	-	-	9.7	16.1	32.3	41.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83.18	4.1	1.2	-	12.9	32.9	48.8
	기혼	79	75.29	-	-	23.5	5.9	41.2	29.4
	사실혼 동거	4	100.00	-	-	-	-	-	1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80.00	-	-	-	-	100.0	-
장애여부별	유	8	60.00	-	-	-	100.0	-	-
	무	444	82.74	3.7	1.1	2.1	11.6	34.2	47.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84.58	2.4	1.2	2.4	7.2	38.6	48.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7.20	8.0	-	-	8.0	8.0	76.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8.18	9.1	-	-	9.1	45.5	36.4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5.45	4.5	-	4.5	31.8	22.7	36.4
	박사 과정	102	81.20	2.0	2.0	2.0	14.0	42.0	38.0
재학학기별	1학기	94	78.92	8.1	2.7	-	10.8	32.4	45.9
	2학기	128	84.00	3.3	1.7	1.7	8.3	35.0	50.0
	3학기	57	90.48	-	-	-	9.5	28.6	61.9
	4학기	58	73.64	4.5	-	9.1	18.2	45.5	22.7
	5학기 이상	40	78.67	6.7	-	-	20.0	33.3	40.0
	수료	75	86.67	-	-	2.8	13.9	30.6	52.8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83.52	3.4	0.6	1.7	12.5	33.0
비전업 대학원생		107	72.00	6.7	6.7	6.7	6.7	46.7	26.7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87.14	1.4	-	-	11.4	34.3	52.9
	없음	326	80.00	5.0	1.7	3.3	12.4	33.9	43.8

BASE :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응답자

■ 업무량·근무시간 준수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이며, 기타를 제외한 30.6%는 적절하지 않은 업무량 또는 규정시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업무량이 과도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함(12.4%) > 업무량이 적절하나 규정시간을 초과함(9.5%) > 업무량이 과도하나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음(8.7%) > 기타(1.8%)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2.5%)은 여성(64.7%)보다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73.2%)은 내국인(66.2%)보다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3.3%)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세부 항목 중 ‘업무량이 과도하나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석박사 통합과정(석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학기별로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79.2%)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55.6%)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68.4%)은 비전업 대학원생(59.1%)보다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세부 항목 중 ‘업무량이 과도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전업 대학원생(27.3%)이 더 높게 나타남

[표 65] 업무량-근무시간 준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업무량이 과도하나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업무량이 적절하나 규정시간을 초과함	업무량이 과도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함	기타
2024		261	61.3	9.2	16.1	11.1	2.3
2025		275	67.6	8.7	9.5	12.4	1.8
성별	남성	120	72.5	5.8	7.5	12.5	1.7
	여성	153	64.7	10.5	10.5	12.4	2.0
	그 외	2	-	50.0	50.0	-	-
국적별	내국인	219	66.2	8.2	11.0	12.8	1.8
	외국인	56	73.2	10.7	3.6	10.7	1.8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44	66.8	8.2	10.7	12.3	2.0
	기혼	26	73.1	15.4	-	11.5	-
	사실혼 동거	2	100.0	-	-	-	-
	그 외(이혼/사별 등)	3	66.7	-	-	33.3	-
장애여부별	유	4	25.0	25.0	25.0	25.0	-
	무	271	68.3	8.5	9.2	12.2	1.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18	67.8	4.2	11.9	13.6	2.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0	83.3	3.3	6.7	6.7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7	58.8	23.5	11.8	5.9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35	62.9	11.4	14.3	11.4	-
	박사 과정	75	65.3	13.3	4.0	14.7	2.7
재학학기별	1학기	48	79.2	2.1	8.3	6.3	4.2
	2학기	78	73.1	9.0	3.8	14.1	-
	3학기	31	71.0	6.5	12.9	6.5	3.2
	4학기	36	55.6	13.9	13.9	13.9	2.8
	5학기 이상	24	62.5	12.5	8.3	16.7	-
	수료	58	58.6	10.3	13.8	15.5	1.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53	68.4	9.1	9.5	11.1	2.0
	비전업 대학원생	22	59.1	4.5	9.1	27.3	-

BASE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행자

6) 수행 업무 평가

- 업무량·근무시간 초과, 비윤리적 행위 강요,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 지시, 과도한 통제 및 감시 문항은 역코딩을 진행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 수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6.5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 중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지시’에 대한 평가 점수가 88.80점으로 가장 높음
 - 비윤리적 행위 강요(86.84점) > 과도한 통제 및 감시(86.69점) > 업무량·근무시간 초과(75.56점) > 학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68.36점) > 학업 연관성(67.71점) > 임금 수준 적정성(62.18점)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8.50점)은 여성(75.18점)보다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77.80점)은 외국인(71.89점)보다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혼인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77.17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6.87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57.86점)보다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89.14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석박사 통합과정(석사)(72.94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77.73점)은 비전업 대학원생(63.51점)보다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인권교육 경험별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78.85점)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75.46점)보다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더 높음

[표 66] 수행 업무 평가①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종합	업무량·근무시간 초과	비윤리적 행위 강요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지시	과도한 통제 및 감시
2024		261	76.30	73.72	86.82	90.19	85.90
2025		452	76.59	75.56	86.84	88.80	86.69
성별	남성	193	78.50	79.00	88.17	89.83	87.50
	여성	257	75.18	73.07	85.75	87.97	86.14
	그 외	2	70.00	60.00	90.00	90.00	80.00
국적별	내국인	373	77.80	75.53	87.76	90.78	88.68
	외국인	79	71.89	75.71	83.21	81.07	78.9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7.17	75.66	87.13	88.77	86.80
	기혼	79	73.30	75.38	85.38	89.23	85.38
	사실혼·동거	4	71.43	100.00	100.00	100.00	10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61.90	53.33	66.67	80.00	80.00
장애여부별	유	8	57.86	55.00	75.00	90.00	75.00
	무	444	76.87	75.87	87.01	88.78	86.8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4.65	76.27	84.58	85.93	84.7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9.14	86.67	92.67	97.33	93.33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2.94	76.47	91.76	89.41	85.88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4.37	73.14	88.57	90.29	88.57
	박사 과정	102	76.50	70.93	86.13	89.07	86.40
재학학기별	1학기	94	78.10	74.17	82.08	83.33	83.33
	2학기	128	80.15	78.46	89.23	92.82	89.49
	3학기	57	76.59	76.13	86.45	87.10	86.45
	4학기	58	70.48	72.22	88.89	90.00	80.56
	5학기 이상	40	73.81	68.33	87.50	83.33	82.50
	수료	75	75.52	77.59	86.21	90.34	91.38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7.73	76.60	88.14	89.88	87.75
	비전업 대학원생	107	63.51	63.64	71.82	76.36	74.55
인권교육	있음	126	78.85	77.39	89.78	91.74	88.70
경험별	없음	326	75.46	74.64	85.36	87.32	85.68

BASE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행자

[표 67] 수행 업무 평가②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종합	학업 연관성	학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	임금 수준 적정성
2024		261	76.30	68.12	67.82	61.53
2025		452	76.59	67.71	68.36	62.18
성별	남성	193	78.50	70.17	72.00	62.83
	여성	257	75.18	65.62	65.75	61.96
	그 외	2	70.00	80.00	50.00	40.00
국적별	내국인	373	77.80	69.13	69.68	63.01
	외국인	79	71.89	62.14	63.21	58.9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7.17	69.02	69.10	63.69
	기혼	79	73.30	63.08	64.62	50.00
	사실혼·동거	4	71.43	0.00	50.00	5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61.90	46.67	53.33	53.33
장애여부별	유	8	57.86	40.00	40.00	30.00
	무	444	76.87	68.12	68.78	62.6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4.65	65.25	65.59	60.1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89.14	82.67	87.33	84.00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2.94	60.00	56.47	50.59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4.37	61.71	65.14	53.14
	박사 과정	102	76.50	70.13	69.33	63.47
재학학기별	1학기	94	78.10	77.50	76.67	69.58
	2학기	128	80.15	72.56	73.33	65.13
	3학기	57	76.59	65.81	68.39	65.81
	4학기	58	70.48	56.67	53.89	51.11
	5학기 이상	40	73.81	67.50	69.17	58.33
	수료	75	75.52	61.03	63.45	58.62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7.73	68.85	69.49	63.40
	비전업 대학원생	107	63.51	54.55	55.45	48.18
인권교육 경험별	있음	126	78.85	70.65	69.57	64.13
	없음	326	75.46	66.23	67.76	61.20

BASE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행자

❖ ‘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분야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15.5%로 전년도(14.5%) 대비 1.0%p 증가하고 있어 대학원생 구성에서 돌봄 책임을 병행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 특성별로 여성(17.9%)이 남성(12.4%)보다 자녀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여성이 학업 및 연구와 돌봄을 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5학기 이상 재학 중, 비전업 대학원생에서 자녀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 70명 중 4명(5.7%)에 불과했으며, 이들 모두 학내 보육센터(어린이집)를 이용하고 있었음. 수유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연령이 수유실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5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31.4%)’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학내 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자녀 연령이 수유실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50.0%)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27.3%)가 주요 요인이었음
- 대학원 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다수의 대학원생이 현재의 생활은 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 축적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줌. 이어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25.7%),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15.0%),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14.2%),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면 등록금 납부의 어려움(15.3%→14.2%)은 감소한 반면, 기초생활의 어려움(5.6%→6.6%)과 연구 제반 비용 마련의 어려움(8.9%→10.8%)은 증가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이 등록금에서 생활과 연구를 위한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성별로 다른 집단과 다르게 남성, 내국인, 기혼 상태,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비전업 대학원생은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음
-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9%로 대학원생 약 4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지속을 고민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함.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학업 지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성별로 여성(25.3%)이 남성(21.8%)보다, 외국인(24.1%)이 내국인(23.9%)보다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기혼(25.3%)과 사실혼동거 상태의 대학원생에서 학업 중단 고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돌봄생계 책임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 외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4학기 재학 중, 비전업 대학원생에서 학업 중단 고려 비율이 높았음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34.7%로, 전년도(43.3%) 대비 감소함. ‘없음’을 제외하고 대학원생이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34.5%), 수업조교(TA)(30.3%), 연구조교(RA)(2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조교 업무(TA·RA) 및 연구 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성별로 ‘없음’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지원 프로그램 중 연구원(프로젝트 참여),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수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석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석사)는 연구조교(RA)를, 학석사 연계과정(석사)과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박사 과정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50.7%)은 학과 행정조교를 수행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음. 비전업 대학원생(72.0%)은 전업 대학원생(23.2%)보다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전업 대학원생(43.5%)은 연구원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경제적 부담이 클수록 ‘없음’ 비율이 낮고, 경제적 여유가 클수록 ‘없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즉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더 많음.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행정조교 등 근로업무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남
- 전남대학교 지원 프로그램 수행 대학원생 중 업무의 조건(업무 기간, 업무 시간, 보상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전년도(70.5%)에 비해 1%p 감소함. 지속적으로 약 30%는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남성(70.0%)이 여성(68.6%)보다 업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국적별로 내국인(73.1)과 장애가 없는 학생(70.1%)이 외국인(55.4%)과 장애가 있는 학생(25.0%)보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음. 재학 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및 박사 과정으로 갈수록 또한 1학기에서 4학기로 갈수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인권교육 경험자(76.1%)는 무경험자(66.1%)보다 계약서 작성 비율이 약 10%p 높았음

- 외국인 대학원생 중 업무의 조건(업무 기간, 업무 시간, 보상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제공 언어가 한국어인 비율은 71.0%로 전년도(77.3%)에 비해 6.3%p 감소함. 이는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계약서의 한국어 편중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영어 제공 비율은 4.5%에서 19.4%로 증가했으나 보조적 수준에 머무름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82.62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약 6.8%(부정 응답의 합)는 이해에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성별로 여성, 내국인, 장애가 없는 학생, 학석사연계과정(석사), 3학기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업무 계약서 이해 적절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음. 다만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비전업 대학원생,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학기 재학 중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확인됨. 이는 계약서 제공 언어, 형식, 설명 방식의 접근성 차이가 집단별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로 전년도(61.3%) 대비 6.3%p 증가함. 그러나 3명 중 1명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에서 규정 기준을 벗어난 근무 경험이 있으며,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모두 초과해서 근무한 경험의 비율은 11.1%에서 12.4%로 증가하였음
- 특성별로 남성, 외국인,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학기에 재학 중, 전업 대학원생이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의 업무 평가 종합 점수는 76.59점으로 전년도(76.30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수행 업무 평가 항목별로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 지시'에 대한 평가 점수가 88.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윤리적 행위 강요'(86.84점), '과도한 통제 및 감시'(86.69점), '업무량·근무시간 초과'(75.56점), '학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68.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해 업무량·근무시간 초과 항목의 점수 상승폭(73.72점→75.56점)이 가장 컸으며, 임금 수준 적정성(62.18점) 항목이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가장 낮음

- 특성별로 남성, 내국인, 결혼한 적이 없는 대학원생, 장애가 없는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전업 대학원생, 인권교육 경험자가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높았음. 장애가 있는 학생과 비전업 대학원생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업무 평가에 대한 종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집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⑥ 연구환경 및 건강

1) 연구실 건물 문제점

- 학내 연구실 소재 건물의 문제점으로는 공간 부족 응답한 비율이 26.1%로 가장 높음
- 연구실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24.8%임
 - 휴게실 부족(22.3%) > 연구실 낙후(21.0%) > 냉·난방 문제(13.9%) > 화장실 휴게실 낙후(12.2%) > 환기 문제(11.3%) > 승강기 부족 낙후(10.2%) > 소음(8.0%) > 기타(7.3%) > 바닥재 문제(3.3%) > 방재 시설 부족(0.4%)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학내 연구실 건물 문제점에 대해 남성(32.1%)은 문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28.0%)은 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한편, 남성도 '문제 없음' 다음으로 공간 부족을 응답한 비율(23.3%)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학내 연구실 건물 문제점에 대해 내국인(28.2%)은 공간 부족, 외국인(49.4%)은 문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62.5%)은 휴게실 부족,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25.7%)은 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 재학학기별로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42.7%)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25.5%)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전업 대학원생(30.8%)은 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한편, 전업 대학원생도 '문제 없음' 다음으로 공간 부족을 응답한 비율(24.6%)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68] 연구실 건물 문제점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공간 부족	문제 없음	휴게실 부족	연구실 낙후	냉·난방 문제	화장실 휴게실 낙후
2024		504	22.6	18.3	23.0	15.9	25.8	15.5
2025		452	26.1	24.8	22.3	21.0	13.9	12.2
성별	남성	193	23.3	32.1	18.1	20.2	13.5	13.0
	여성	257	28.0	19.5	25.7	21.0	14.4	11.7
	그 외	2	50.0	-	-	100.0	-	-
국적별	내국인	373	28.2	19.6	24.4	23.6	15.3	13.1
	외국인	79	16.5	49.4	12.7	8.9	7.6	7.6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6.0	25.2	21.9	20.8	14.4	13.3
	기혼	79	27.8	24.1	24.1	22.8	8.9	5.1
	사실혼 동거	4	25.0	25.0	25.0	-	-	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12.5	12.5	25.0	25.0	50.0	12.5
장애여부별	유	8	50.0	12.5	62.5	-	25.0	12.5
	무	444	25.7	25.0	21.6	21.4	13.7	12.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2.4	25.7	24.9	19.2	13.5	12.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26.3	15.8	28.9	18.4	15.8	10.5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7.4	26.1	26.1	30.4	4.3	4.3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31.8	29.5	18.2	22.7	22.7	9.1
	박사 과정	102	34.3	23.5	14.7	23.5	12.7	14.7
재학학기별	1학기	94	22.3	27.7	26.6	21.3	11.7	13.8
	2학기	128	28.9	27.3	17.2	21.1	9.4	14.1
	3학기	57	15.8	26.3	28.1	15.8	8.8	7.0
	4학기	58	22.4	17.2	25.9	20.7	15.5	15.5
	5학기 이상	40	15.0	27.5	20.0	10.0	30.0	17.5
	수료	75	42.7	20.0	20.0	30.7	18.7	5.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24.6	25.5	21.4	21.4	14.2	12.8
	비전업 대학원생	107	30.8	22.4	25.2	19.6	13.1	10.3

BASE : 전체응답자

[표 69] 연구실 건물 문제점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환기 문제	승강기 부족 낙후	소음	바닥재 문제	방재 시설 부족	기타
2024		504	10.9	8.9	8.5	1.0	1.8	6.9
2025		452	11.3	10.2	8.0	3.3	0.4	7.3
성별	남성	193	6.2	13.0	8.8	2.6	0.5	6.7
	여성	257	15.2	8.2	7.4	3.5	0.4	7.8
	그 외	2	-	-	-	50.0	-	-
국적별	내국인	373	12.6	11.5	7.5	4.0	0.3	8.3
	외국인	79	5.1	3.8	10.1	-	1.3	2.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12.2	10.5	7.2	3.9	0.3	7.2
	기혼	79	8.9	8.9	11.4	1.3	1.3	7.6
	사실혼 동거	4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8	-	12.5	12.5	-	-	12.5
장애여부별	유	8	-	-	-	12.5	-	-
	무	444	11.5	10.4	8.1	3.2	0.5	7.4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13.1	9.8	7.8	3.3	0.4	8.6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5.8	23.7	7.9	-	-	2.6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17.4	13.0	8.7	4.3	-	21.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4.5	6.8	6.8	6.8	-	4.5
	박사 과정	102	6.9	6.9	8.8	2.9	1.0	3.9
재학학기별	1학기	94	9.6	12.8	6.4	1.1	-	7.4
	2학기	128	10.9	11.7	7.8	3.9	-	7.8
	3학기	57	12.3	5.3	7.0	7.0	1.8	8.8
	4학기	58	22.4	5.2	10.3	3.4	1.7	6.9
	5학기 이상	40	5.0	12.5	15.0	-	-	10.0
	수료	75	8.0	10.7	5.3	4.0	-	4.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11.9	11.0	6.4	3.8	0.3	7.2
	비전업 대학원생	107	9.3	7.5	13.1	1.9	0.9	7.5

BASE : 전체응답자

2) 연구 환경 만족도

- 연구 환경 만족도 평가 항목 중 캠퍼스의 전반적 치안 관리가 78.01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74.65점) > 캠퍼스의 전반적 안전 관리(72.30점) > 전반적 학업 및 연구환경(70.27점)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없는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세부 항목 중 학업 및 연구환경과 캠퍼스 안전관리 항목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 점수가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은 비전업 대학원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표 70] 연구 환경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전반적 학업 및 연구환경	캠퍼스의 전반적 안전 관리	캠퍼스의 전반적 치안 관리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2024		504	68.17	70.71	76.79	74.56
2025		452	70.27	72.30	78.01	74.65
성별	남성	193	74.40	76.48	81.66	77.82
	여성	257	67.47	69.26	75.49	72.37
	그 외	2	30.00	60.00	50.00	60.00
국적별	내국인	373	69.33	70.78	77.59	73.73
	외국인	79	74.68	79.49	80.00	78.99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1.19	72.24	78.56	75.29
	기혼	79	68.35	72.91	76.20	71.39
	사실혼 동거	4	60.00	95.00	90.00	95.00
	그 외(이혼/사별 등)	8	52.50	57.50	65.00	67.50
장애여부별	유	8	52.50	50.00	72.50	65.00
	무	444	70.59	72.70	78.11	74.82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68.98	72.16	77.31	72.6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77.89	76.32	83.16	81.58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2.17	71.30	79.13	78.26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0.00	72.27	79.09	76.82
	박사 과정	102	70.20	71.37	77.06	75.10
재학학기별	1학기	94	73.62	74.47	81.06	78.51
	2학기	128	73.13	75.63	80.31	78.44
	3학기	57	70.18	71.93	75.79	70.88
	4학기	58	64.14	66.55	73.45	66.21
	5학기 이상	40	69.00	69.50	76.50	72.50
	수료	75	66.67	70.13	76.27	73.87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0.90	72.93	78.49
비전업 대학원생	107	68.22	70.28	76.45	71.21	

BASE : 전체응답자

3) 건강 상태 평가

- 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는 72.96점임
 - 육체적 건강(73.85점), 정신적 건강(72.08점)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78.60점)은 여성(68.99점)보다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73.15점)은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62.50점)보다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학석사 연계과정(석사)(79.74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박사 과정(70.78점)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재학학기별로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77.23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고, 반면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66.53점)은 가장 낮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76.17점)은 전업 대학원생(71.97점)보다 건강 상태 평가 종합 점수가 더 높음

[표 71] 건강 상태 평가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종합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2024		504	74.58	75.71	73.45
2025		452	72.96	73.85	72.08
성별	남성	193	78.60	79.48	77.72
	여성	257	68.99	69.88	68.09
	그 외	2	40.00	40.00	40.00
국적별	내국인	373	72.76	73.40	72.12
	외국인	79	73.92	75.95	71.90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72.66	74.13	71.19
	기혼	79	74.43	73.16	75.70
	사실혼 동거	4	80.00	80.00	80.00
	그 외(이혼/사별 등)	8	68.75	65.00	72.50
장애여부별	유	8	62.50	57.50	67.50
	무	444	73.15	74.14	72.1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71.84	72.98	70.69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79.74	80.00	79.47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78.70	83.48	73.9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75.45	75.91	75.00
	박사 과정	102	70.78	70.59	70.98
재학학기별	1학기	94	77.23	77.02	77.45
	2학기	128	77.03	77.97	76.09
	3학기	57	68.95	71.23	66.67
	4학기	58	66.72	68.62	64.83
	5학기 이상	40	76.75	76.50	77.00
	수료	75	66.53	67.47	65.6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71.97	73.04
비전업 대학원생	107	76.17	76.45	75.89	

BASE : 전체응답자

4) 안전교육 경험

- 대학원생 중 26.8%가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27.4%로 나타남
 - 비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15.0%), 잘 모르겠다(29.6%), 기타(1.1%)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30.6%)은 안전교육 경험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34.6%)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29.5%)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외국인(34.2%)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8%, 8명)이긴 하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50.0%)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가 없는 대학원생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29.5%)이 가장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사 과정(33.9%)은 타 응답군과 달리,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33.0%)은 안전교육 경험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비전업 대학원생(41.1%)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72] 안전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받아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기타
2024		504	28.6	14.7	29.2	27.4	0.2
2025		452	27.4	15.0	26.8	29.6	1.1
성별	남성	193	30.6	18.1	26.9	22.8	1.6
	여성	257	25.3	12.8	26.8	34.6	0.4
	그 외	2	-	-	-	50.0	50.0
국적별	내국인	373	26.0	14.2	29.2	29.5	1.1
	외국인	79	34.2	19.0	15.2	30.4	1.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29.1	15.8	23.0	31.0	1.1
	기혼	79	24.1	10.1	39.2	25.3	1.3
	사실혼 동거	4	-	50.0	25.0	25.0	-
	그 외(이혼/사별 등)	8	-	12.5	75.0	12.5	-
장애여부별	유	8	12.5	-	50.0	37.5	-
	무	444	27.7	15.3	26.4	29.5	1.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22.9	12.7	33.9	29.4	1.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34.2	26.3	2.6	36.8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34.8	21.7	26.1	17.4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38.6	15.9	11.4	31.8	2.3
	박사 과정	102	29.4	14.7	25.5	29.4	1.0
재학학기별	1학기	94	27.7	10.6	25.5	33.0	3.2
	2학기	128	30.5	15.6	29.7	24.2	-
	3학기	57	24.6	19.3	29.8	26.3	-
	4학기	58	20.7	12.1	31.0	34.5	1.7
	5학기 이상	40	30.0	12.5	22.5	35.0	-
	수료	75	28.0	20.0	20.0	30.7	1.3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33.0	15.7	22.3	28.4	0.6
	비전업 대학원생	107	9.3	13.1	41.1	33.6	2.8

BASE : 전체응답자

5) 실험실 소속 및 유해인자 취급 여부

- 대학원생 중 절반 이상(59.3%)이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4.6%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40.4%)은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나,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45.1%)은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25.2%)은 외국인(21.5%)보다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석사)(39.1%)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학학기별로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28.0%)은 다른 응답군에 비해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업형태별로 전업 대학원생(31.6%)은 비전업 대학원생(1.9%)보다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73] 실험실 소속 및 유해인자 취급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실험실(연구실)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나,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음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함
2024		504	49.8	27.0	23.2
2025		452	40.7	34.7	24.6
성별	남성	193	35.2	40.4	24.4
	여성	257	45.1	30.7	24.1
	그 외	2	-	-	100.0
국적별	내국인	373	41.6	33.2	25.2
	외국인	79	36.7	41.8	21.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361	36.0	35.5	28.5
	기혼	79	63.3	26.6	10.1
	사실혼 동거	4	25.0	75.0	-
	그 외(이혼/사별 등)	8	37.5	62.5	-
장애여부별	유	8	62.5	25.0	12.5
	무	444	40.3	34.9	24.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245	46.9	31.8	21.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38	15.8	50.0	34.2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23	34.8	26.1	39.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44	22.7	38.6	38.6
	박사 과정	102	44.1	36.3	19.6
재학학기별	1학기	94	35.1	43.6	21.3
	2학기	128	48.4	24.2	27.3
	3학기	57	38.6	43.9	17.5
	4학기	58	44.8	27.6	27.6
	5학기 이상	40	40.0	37.5	22.5
	수료	75	33.3	38.7	28.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345	30.4	38.0	31.6
	비전업 대학원생	107	73.8	24.3	1.9

BASE : 전체응답자

6)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 전남대학교 실험실(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는 81.78점이며, 평가 항목 중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 구비’에 대한 점수가 89.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가 구비되어 있다.’(89.5%) > ‘연구실 안전을 위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88.2%) > ‘실험실 구성원은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87.3%) > ‘실험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86.0%) > ‘안전교육이 연구실 및 구성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81.9%) > ‘실험·실습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내가 소속된 실험실은 안전한 환경이다.’(80.0%) > ‘안전교육이 정규교과 안으로 통합돼 있다.’(78.7%) > ‘모든 상황에서 안전관리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된다.’(77.8%) >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다.’(75.5%) >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유해물질 노출 예방, 보호구 지급 등).’(74.8%)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84.69점)은 여성(80.00점)보다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82.44점)은 외국인(78.07점)보다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가 더 높음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석사)(90.10점)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석박사 통합과정(박사)(78.93점)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 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9%, 2명)이긴 하지만, 전업 대학원생(81.44점)보다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가 더 높음

[표 74]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①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종합	①	②	③	④	⑤
2024		115	78.43	85.91	84.17	72.70	79.83	88.00
2025		107	81.78	87.29	85.98	78.69	81.87	89.53
성별	남성	43	84.69	88.37	86.51	80.47	82.79	89.77
	여성	62	80.00	86.45	85.48	78.39	81.94	89.35
	그 외	2	74.55	90.00	90.00	50.00	60.00	90.00
국적별	내국인	91	82.44	89.23	87.91	79.34	82.42	90.77
	외국인	16	78.07	76.25	75.00	75.00	78.75	82.50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00	81.67	87.80	86.40	78.40	81.60	89.80
	기혼	7	83.38	80.00	80.00	82.86	85.71	85.71
	사실혼 동거	-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
장애여부별	유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무	106	81.61	87.17	85.85	78.49	81.70	89.43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9	80.41	86.94	84.08	78.37	79.59	88.57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3	86.15	89.23	87.69	81.54	87.69	92.31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9	90.10	93.33	93.33	91.11	91.11	95.56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7	78.93	87.06	88.24	72.94	80.00	88.24
	박사 과정	19	80.96	84.21	84.21	76.84	81.05	88.42
재학학기별	1학기	20	81.91	86.00	84.00	79.00	82.00	89.00
	2학기	32	88.07	92.50	91.88	85.00	89.38	93.75
	3학기	10	86.55	96.00	92.00	74.00	88.00	94.00
	4학기	16	73.41	82.50	78.75	77.50	73.75	82.50
	5학기 이상	9	76.57	68.89	80.00	73.33	73.33	84.44
	수료	20	78.27	88.00	84.00	74.00	77.00	89.0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5	81.44	87.05	85.71	78.29	81.52	89.33
	비전업 대학원생	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BASE: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응답자

- 주) ① 실험실 구성원은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② 실험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
 ③ 안전교육이 정규교과 안으로 통합돼 있다.
 ④ 안전교육이 연구실 및 구성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⑤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가 구비되어 있다.

[표 75] 실험실 안전관리 평가②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⑥	⑦	⑧	⑨	⑩	⑪
2024		115	75.30	74.26	82.96	75.83	68.52	75.30
2025		107	80.00	75.51	88.22	77.76	74.77	80.00
성별	남성	43	82.33	80.47	88.37	80.47	85.12	86.98
	여성	62	78.39	72.90	88.06	76.45	67.10	75.48
	그 외	2	80.00	50.00	90.00	60.00	90.00	70.00
국적별	내국인	91	80.00	75.60	89.23	77.58	74.95	79.78
	외국인	16	80.00	75.00	82.50	78.75	73.75	81.2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00	79.60	75.60	88.20	77.60	74.00	79.40
	기혼	7	85.71	74.29	88.57	80.00	85.71	88.57
	사실혼 동거	-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
장애여부별	유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무	106	79.81	75.28	88.11	77.55	74.53	79.81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9	78.78	74.29	86.94	75.92	73.47	77.55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3	84.62	86.15	90.77	81.54	78.46	87.69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9	88.89	84.44	91.11	88.89	86.67	86.67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7	74.12	69.41	85.88	71.76	71.76	78.82
	박사 과정	19	81.05	72.63	90.53	80.00	72.63	78.95
재학학기별	1학기	20	84.00	76.00	90.00	79.00	70.00	82.00
	2학기	32	85.63	83.75	92.50	81.88	83.75	88.75
	3학기	10	86.00	82.00	92.00	84.00	78.00	86.00
	4학기	16	71.25	62.50	78.75	70.00	63.75	66.25
	5학기 이상	9	82.22	77.78	82.22	75.56	66.67	77.78
	수료	20	70.00	68.00	88.00	74.00	76.00	73.0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5	79.62	75.05	88.00	77.33	74.29	79.62
	비전업 대학원생	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BASE: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응답자

주) ⑥ 실험·실습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⑦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다.

⑧ 연구실 안전을 위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

⑨ 모든 상황에서 안전관리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된다.

⑩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유해물질 노출 예방, 보호구 지급 등).

⑪ 내가 소속된 실험실은 안전한 환경이다.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노후장비 교체(55.1%)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함
 -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37.4%) > 안전장비(캐비닛, 비상샤워 등) 확충(22.4%) > 실험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원(21.5%) > 개인보호구 지급(19.6%) > 분야별 안전교육 강화(15.0%) >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안내(12.1%) > 기타(3.7%)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남성(60.5%)은 여성(50.0%)보다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59.3%)은 노후장비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37.5%)은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안내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함
- 재학과정별로 석박사 통합과정(석사)(각 44.4%)은 타 집단과 달리,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안전장비(캐비닛, 비상샤워 등) 확충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7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복수응답)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노후장비 교체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안전장비 (캐비닛, 비상사위 등) 확충	실험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원
2024		115	44.3	43.5	18.3	17.4
2025		107	55.1	37.4	22.4	21.5
성별	남성	43	60.5	37.2	18.6	20.9
	여성	62	50.0	37.1	24.2	22.6
	그 외	2	100.0	50.0	50.0	-
국적별	내국인	91	59.3	42.9	24.2	23.1
	외국인	16	31.3	6.3	12.5	12.5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00	55.0	39.0	23.0	22.0
	기혼	7	57.1	14.3	14.3	14.3
	사실혼 동거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장애여부별	유	1	100.0	100.0	-	-
	무	106	54.7	36.8	22.6	21.7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9	53.1	44.9	20.4	18.4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3	61.5	30.8	15.4	23.1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9	33.3	44.4	44.4	11.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7	64.7	23.5	29.4	29.4
	박사 과정	19	57.9	31.6	15.8	26.3
재학학기별	1학기	20	65.0	30.0	25.0	20.0
	2학기	32	50.0	46.9	21.9	25.0
	3학기	10	70.0	40.0	10.0	20.0
	4학기	16	43.8	37.5	31.3	-
	5학기 이상	9	33.3	33.3	11.1	33.3
	수료	20	65.0	30.0	25.0	30.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5	54.3	37.1	22.9	21.9
	비전업 대학원생	2	100.0	50.0	-	-

BASE: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응답자

[표 7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복수응답)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개인 보호구 지급	분야별 안전교육 강화	실험실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안내	기타
2024		115	24.3	12.2	16.5	6.1
2025		21.5	19.6	15.0	12.1	3.7
성별	남성	20.9	23.3	7.0	9.3	4.7
	여성	22.6	17.7	21.0	14.5	3.2
	그 외	-	-	-	-	-
국적별	내국인	23.1	18.7	13.2	7.7	3.3
	외국인	12.5	25.0	25.0	37.5	6.3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2.0	19.0	16.0	11.0	4.0
	기혼	14.3	28.6	-	28.6	-
	사실혼 동거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장애여부별	유	-	-	-	-	-
	무	21.7	19.8	15.1	12.3	3.8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8.4	16.3	16.3	10.2	6.1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23.1	23.1	23.1	15.4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11.1	22.2	22.2	11.1	11.1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29.4	17.6	17.6	-	-
	박사 과정	26.3	26.3	-	26.3	-
재학학기별	1학기	20.0	25.0	5.0	20.0	5.0
	2학기	25.0	18.8	15.6	6.3	6.3
	3학기	20.0	10.0	30.0	10.0	-
	4학기	-	18.8	12.5	25.0	6.3
	5학기 이상	33.3	33.3	11.1	11.1	-
	수료	30.0	15.0	20.0	5.0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1.9	19.0	15.2	12.4	3.8
	비전업 대학원생	-	50.0	-	-	-

BASE: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응답자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인지와 건강검진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 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대학원생은 67.3%임
 - 알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가 많음(15.0%) > 알지만,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않음(11.2%) > 해당 내용을 모름(6.5%)

특성별 분석

-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 여성(69.4%)은 남성(65.1%)보다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71.4%)은 외국인(43.8%)보다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재학학기별로 수료 상태인 대학원생(90.0%)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별로 비전업 대학원생 수가 소수(전체 응답자의 1.9%, 2명)이긴 하지만, 전업 대학원생(67.6%)은 비전업 대학원생(50.0%)보다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7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인지와 건강검진 실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음	알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가 많음	알지만,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않음	해당 내용을 모름
2024		115	59.1	16.5	11.3	13.0
2025		107	67.3	15.0	11.2	6.5
성별	남성	43	65.1	20.9	9.3	4.7
	여성	62	69.4	11.3	12.9	6.5
	그 외	2	50.0	-	-	50.0
국적별	내국인	91	71.4	16.5	8.8	3.3
	외국인	16	43.8	6.3	25.0	25.0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100	67.0	16.0	10.0	7.0
	기혼	7	71.4	-	28.6	-
	사실혼 동거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장애여부별	유	1	-	100.0	-	-
	무	106	67.9	14.2	11.3	6.6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49	59.2	18.4	10.2	12.2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13	84.6	7.7	7.7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9	66.7	22.2	11.1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17	58.8	23.5	17.6	-
	박사 과정	19	84.2	-	10.5	5.3
재학학기별	1학기	20	35.0	20.0	30.0	15.0
	2학기	32	71.9	15.6	6.3	6.3
	3학기	10	80.0	10.0	-	10.0
	4학기	16	62.5	25.0	12.5	-
	5학기 이상	9	66.7	11.1	22.2	-
	수료	20	90.0	5.0	-	5.0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105	67.6	14.3	11.4	6.7
	비전업 대학원생	2	50.0	50.0	-	-

BASE: 실험실(연구실) 소속이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응답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로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음
 -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28.6%) > ‘건강하다고 생각해서’(25.0%) > ‘실험실(연구실)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위기여서’(10.7%) > ‘기타’(3.6%)

특성별 분석

- 국적에 따른 응답으로 내국인은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서’(34.6%)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외국인은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80.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79]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실험실(연구실)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위기여서	기타
2024		32	31.3	37.5	21.9	3.1	6.3
2025		28	32.1	28.6	25.0	10.7	3.6
성별	남성	13	30.8	23.1	30.8	7.7	7.7
	여성	15	33.3	33.3	20.0	13.3	-
	그 외	-	-	-	-	-	-
국적별	내국인	23	39.1	17.4	26.1	13.0	4.3
	외국인	5	-	80.0	20.0	-	-
혼인여부별	결혼한 적 없음	26	34.6	26.9	26.9	7.7	3.8
	기혼	2	-	50.0	-	50.0	-
	사실혼 동거	-	-	-	-	-	-
	그 외(이혼/사별 등)	-	-	-	-	-	-
장애여부별	유	1	100.0	-	-	-	-
	무	27	29.6	29.6	25.9	11.1	3.7
재학과정별	석사 과정	14	50.0	28.6	7.1	7.1	7.1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2	-	-	100.0	-	-
	석박사 통합과정(석사)	3	33.3	-	66.7	-	-
	석박사 통합과정(박사)	7	14.3	42.9	28.6	14.3	-
	박사 과정	2	-	50.0	-	50.0	-
재학학기별	1학기	10	20.0	30.0	40.0	10.0	-
	2학기	7	14.3	14.3	28.6	28.6	14.3
	3학기	1	100.0	-	-	-	-
	4학기	6	66.7	33.3	-	-	-
	5학기 이상	3	-	66.7	33.3	-	-
	수료	1	100.0	-	-	-	-
학업형태별	전업 대학원생	27	33.3	29.6	22.2	11.1	3.7
	비전업 대학원생	1	-	-	100.0	-	-

BASE: 실험실(연구실) 소속으로 유해인자를 취급하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응답자

❖ 연구환경 및 건강 요약 및 시사점

- 학내 연구실 건물 환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간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2024년과 비교해 냉난방 문제는 25.8%에서 13.9%로 개선된 반면, 공간 부족(22.6%→26.1%)과 연구실 낙후 문제(15.9%→21.0%), 바닥재 문제(1.0%→3.3%)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특성별로 여성은 공간 부족(28.0%)과 휴게실 부족(25.7%)을 주요 문제로 인식한 반면, 남성은 ‘문제가 없다’(32.1%)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국적별로 내국인은 공간 부족(28.2%)을, 외국인인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49.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장애가 있는 학생은 휴게실 부족(62.5%)을, 장애가 없는 학생은 공간 부족(25.7%)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함. 또한 석 박사 통합과정(박사)·박사 과정과 수료 대학원생, 비전업 대학원생에서도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연구 환경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캠퍼스의 치안 관리(78.01점), 캠퍼스 안전교육(74.65점), 캠퍼스 안전 관리(72.30점), 전반적 학업 및 연구 환경(70.27점) 순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전반적 학업·연구 환경 만족도의 상승폭이 2.10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특성별로 남성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5~7점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여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외국인인은 내국인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전반적 학업 및 연구 환경과 캠퍼스 안전 관리 만족도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비교해 20점 이상 격차가 있었음. 또한 비전업 대학원생은 전업 대학원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대학원생의 주관적 종합 건강 상태는 72.96점으로 전년도(74.58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육체적 건강(75.71점→73.85점)과 정신적 건강(73.45점→72.08점) 모두 감소하였음
- 특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약 10점 정도 높게 나타남. 외국인인은 육체적 건강 평가 점수가, 내국인은 정신적 건강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은 육체적 건강 평가 점수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으며, 정신적 건강 평가 점수 또한 낮게 나타남. 또한 박사 과정, 4학기 재학 중 또는 수료 상태, 전업 대학원생이 종합 건강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연구 부담의 누적이 육체적·정신적 건강 저



조사결과

하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함

-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2.4%로 전년도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26.8%로 전년도(29.2%) 대비 2.4%p 감소함. 반면 안전교육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전년도(27.4%) 대비 2.2%p 증가함
- 특성별로 남성, 외국인, 장애가 없는 학생, 전업 대학원생에서 안전교육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장애가 있는 대학원생 2명 중 1명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비전업 대학원생 또한 41.1%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음
-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는 59.3%으로 전년도(50.2%)보다 9.1% 증가함.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된 응답자 중 24.6%가 유해인자를 취급하였으며, 전년도(23.2%) 보다 1.4%p 증가함. 이는 연구실 소속이 확대되면서 유해인자 취급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특성별로 여성은 실험실(연구실) 비소속 비율이 높았으나 유해인자 취급 비율은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음. 외국인은 실험실(연구실) 소속 비율이 높았으나 유해인자 취급 비율은 내국인보다 낮음. 전업 대학원생 3명 중 1명 이상이 유해인자 취급 실험실에 소속되었음. 장애가 있는 학생, 기혼자, 비전업 대학원생은 실험실(연구실) 비소속 비율이 높았으며, 석박사 통합과정과 전업 대학원생은 유해인자 취급 비율이 높아 연구 위험 환경 노출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됨
- 실험실(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는 81.78점으로, 전년도(78.43점) 대비 3.35점 상승함. 세부 평가 항목 중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 구비’에 대한 점수가 89.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가 구비되어 있다.’(89.5%), ‘연구실 안전을 위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88.2%), ‘실험실 구성원은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87.3%), ‘실험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8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해 ‘안전교육이 정규교과 안으로 통합돼 있다.’, ‘연구실 안전을 위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 실험·실습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는 항목은 개선이

확인됨. 반면 ‘내가 속한 실험실은 사회적 약자(임산부·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실험 공간이다’라는 항목은 74.7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남. 이는 유해인자 취급 또는 실험실 환경의 위험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산부·장애인 등이 실험실(연구실) 소속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따라 연구실 내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가 요구됨

- 실험실(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노후장비 교체(55.1%),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37.4%), 안전장비 확충(캐비닛·비상사위 등) 등이 지적되었음. 특히 노후 장비 교체 요구는 전년도(44.3%) 대비 10.8%p, 분야별 안전교육 강화는 12.2%로 전년도(19.6%)보다 7.4%p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응답자는 67.3%이며, 전년도(59.1%) 보다 8.2%p 증가함. 해당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자는 가장 적은 비율인 6.5%로 전년도(13.0%)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특성별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의 인지 및 건강검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 접근성과 언어 장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32.1%)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28.6%)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37.5%→28.6%)가 전년도 대비 8.9%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실험실(연구실)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위기여서(3.1%→10.7%)는 7.6%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내 조직문화적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성별로 여성은 시간 부족과 건강검진 정보 미전달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반면, 남성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함. 특히 외국인은 80.0%가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해 정보 접근성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학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II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1) 학내 인권 상황 인식

- 학내 인권 상황 인식은 73.53점이었으며, 응답자들은 학내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내 인권 상황 인식 항목 중 지도교수의 인권보호 노력이 79.69점(2024년 79.29점)으로 가장 높았음
- 전년도와 비교하면 대학원의 연구 공간 제공 노력과 대학원의 편의시설 제공 노력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 대학원 생활 중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37.6%로 대학원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차별 피해 경험이 2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당한 간섭·강요·협박 피해 경험 24.3%,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20.1%,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경험 15.5% 순으로 나타남
- 차별 피해의 이유로는 성별(1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차별 행위의 주요 가해자는 교수(50.0%), 차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강의실(30.7%)이었음
- 부당한 간섭, 강요, 협박 피해 유형 중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강요’(12.8%)이 가장 높았고 주요 가해자는 교수(62.3%),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5.2%)이었음
- 성희롱·성폭력 및 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8.0%)이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주로 교수(54.4%)였으며, 피해가 주로



결론 및 제언

발생한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2.6%)이었음

- 학업 및 연구 피해 유형은 '지도교수의 일정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지도(논문, 작품 등)를 받기가 어려웠다'의 비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가해자는 교수(79.1%)였으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대학원 연구실(45.5%)이었음

3)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52.7%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및 믿을만한 지인 등에게 알렸으나 공론화하지 않았다'가 31.4%로 나타나 전체의 84.1%가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음
-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31.7%)로 전년도(31.0%)와 유사하게 나타남
- 인권침해에 대응한 이후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경험은 '피해자(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평판이 생겼다'(22.2%)였으며, 전년도(28.6%)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가해자에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75.0%)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해자 2명 중 1명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4) 인권센터 인식 및 인권교육 경험

- 인권침해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평균 만족도 점수는 13.3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인권센터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비밀 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사건 처리 담당자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해서'·'처리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서'가 각각 33.3%(각 1명)로 동일하게 지목되었음
- 향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73.0%는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4명 중 1명 이상은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 인권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2.6%)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인권센터의 우선적 역할로는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61.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27.9%였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평균 점수가 77.14점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는 ‘의무교육이라 형식적으로만 참여해서’(5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교육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53.7%)였음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대학원생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52.7%)이었음

5) 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15.5%로 전년도(14.5%) 대비 1.0%p 증가하고 있어 대학원생 구성에서 돌봄 책임을 병행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 학내 육아 지원 공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 70명 중 4명(5.7%)에 불과했으며, 이들 모두 학내 보육센터(어린이집)를 이용하고 있었음
- 수유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연령이 수유실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5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31.4%)’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 학내 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자녀 연령이 수유실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50.0%)와 공간서비스 존재를 몰라서(27.3%)가 주요 요인이었음
- 대학원 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나 미래를 위해 저축·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할 여력은 없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원 재학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9%로 대학원생



결론 및 제언

약 4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지속을 고민한 경험이 있음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34.7%로, 전년도(43.3%) 대비 감소함. '없음'을 제외하고 대학원생이 경제적 이유로 수행한 프로그램은 연구원(프로젝트 참여)(34.5%), 수업조교(TA)(30.3%), 연구조교(RA)(2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남대학교 지원 프로그램 수행 대학원생 중 업무의 조건(업무 기간, 업무 시간, 보상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전년도(70.5%)에 비해 1%p 감소함
- 외국인 대학원생 중 업무의 조건(업무 기간, 업무 시간, 보상 등)이 명시된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제공 언어가 한국어인 비율은 71.0%로 전년도(77.3%)에 비해 6.3%p 감소함
- 업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82.62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 중 업무량이 적절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로 전년도(61.3%) 대비 6.3%p 증가함
-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원생의 업무 평가 종합 점수는 76.59점으로 전년도(76.30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수행 업무 평가 항목별로 '부적절한 개인적 업무 지시'에 대한 평가 점수가 88.80점으로 가장 높았음

6) 연구환경 및 건강

- 학내 연구실 건물 환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간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 연구 환경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캠퍼스의 치안 관리(78.01점), 캠퍼스 안전교육(74.65점), 캠퍼스 안전 관리(72.30점), 전반적 학업 및 연구 환경(70.27점) 순으로 평가됨
- 대학원생의 주관적 종합 건강 상태는 72.96점으로 전년도(74.58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육체적 건강(75.71점→73.85점)과 정신적 건강(73.45점→72.08점) 모두 감소하였음

-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2.4%로 전년도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26.8%로 전년도(29.2%) 대비 2.4%p 감소함. 반면 안전교육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전년도(27.4%) 대비 2.2%p 증가함
-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는 59.3%으로 전년도(50.2%)보다 9.1% 증가함. 실험실(연구실)에 소속된 응답자 중 24.6%가 유해인자를 취급하였으며, 전년도(23.2%) 보다 1.4%p 증가함
- 실험실(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종합 점수는 81.78점으로, 전년도(78.43점) 대비 3.35점 상승함. 세부 평가 항목 중 '실험·실습에 필요한 안전보호구(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복 등) 구비'에 대한 점수가 89.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험실(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노후장비 교체(55.1%), 실험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37.4%), 안전장비 확충(캐비닛·비상사위 등) 등이 지적되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응답자는 67.3%이며, 전년도(59.1%) 보다 8.2%p 증가함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32.1%)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28.6%)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 제언

1) 대학원생 자치권 확대를 통한 인권 보호 및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전남대학교에는 「대학원생 권리 장전」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권리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원생의 인권침해는 지도교수 중심의 의존적 운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실 운영, 교육 과정 결정, 노동 조건 설정, 인권 정책 설계 과정 전반에서 대학원생이 배제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여, 인권침해가 개인의 감내와 적응 문제로 전가되는 경향이 강화됨. 따라서 대학원 인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 정책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대학원생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과 참여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야 함
- 대학은 대학원생을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공동 의사결정 주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대학 본부, 대학원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연구환경 개선 위원회 등에 대학원생 대표의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특히 연구실 운영 기준, 조교 업무 제도, 인권 보호 정책, 안전 관리 정책 등 대학원생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 참여 없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 자치기구는 행정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은 제한적임. 대학은 자치기구에 공식 협의권, 정책 제안권, 예산 편성 참여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대표 기구로 기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자치기구가 인권 실태 조사, 노동 환경 모니터링, 연구실 문화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예산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는 인권침해를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자율적 보호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됨
- 대학원 인권침해의 주요 발생 공간이 연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실 단위에서도 참여형 운영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연구실 운영 규칙을 구성원 합의로 마련하고, 정기적인 연구실 회의를 통해 인권 문제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갈등 발생 시 자율 조정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권력 집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음

- 대학원생 자치기구와 인권센터가 협력하여 자치 기반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익명 제보 수집, 위험 연구실 조기 경보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침해 발생 이전에 예방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아울러 자치기구 소속 인권 담당자를 양성하여 상담 연계, 신고 지원, 피해자 보호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보다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대학원생의 노동 환경 개선

-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경험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당한 노동 강요, 과도한 업무 부담, 학업과 무관한 개인적 업무 지시, 지도교수 중심의 위계 관계에 의한 노동 착취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 부당한 간섭·강요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보상 없는 노동 요구로 나타났으며, 학업 및 연구 피해 또한 지도교수에 의한 학위 지연, 강제 연구 수행, 저작권 침해 등 노동권 침해 성격을 띠고 있었음. 이는 대학원생이 학습연구자이자 동시에 비공식 노동자로 기능하는 이중 지위에 놓여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
-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조교 및 연구원 등 대학 지원 프로그램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 업무량 초과 근무, 임금 적정성에 대한 낮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노동권 침해로 연결되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현실은 대학원 노동을 개인적 헌신이나 관행의 영역으로 방치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대학 차원의 구조 개편과 인권센터의 실질적 보호 기능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대학은 행정조교, 연구조교(RA), 수업조교(TA), 프로젝트 연구원 등 모든 형태의 대학원생 노동을 비공식 관행이 아닌 공식 고용 관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업무 범위, 근무 시간, 보상 수준, 휴식 권리, 초과근무 기준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 연구 및 조교 업무 부과 기준을 학과 및 대학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업무 초과 발생 시 자동 조정 및 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노동 환경 점검과 익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도교수의 권한 남용 여부를 관리하고, 반복 위반 시 인사 평가와 연계한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적 개선을 유도해야 함



- 대학원생 노동에 대한 최소 보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최저 임금 준수, 주당 최대 근무시간 제한, 휴일·야간 근무 보상 기준, 학업 침해 금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시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함
- 인권센터는 성희롱이나 차별 중심 대응을 넘어 대학원 노동권 침해를 보호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함. 부당 노동 강요, 무급 노동, 계약 위반, 과도한 업무 부과, 연구 성과 착취 등을 공식 인권침해 유형으로 분류하고, 전담 상담 창구와 조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권 침해를 개인의 인내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를 전환하기 위해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함. 업무 범위, 계약 권리, 부당 노동의 기준,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학원생 건강권 보장 및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 대학원생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점수 감소가 확인됨. 박사 과정 및 장기 재학생, 전업 대학원생일수록 건강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연구 부담의 누적이 건강 악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연구실 환경 문제로 공간 부족, 노후 시설, 안전 장비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소속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건강검진 제도 인지율과 이행률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시간 부족, 정보 전달 미흡, 연구실 문화적 압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의 정보 접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연구실별 업무량 가이드라인과 최대 근무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근무 발생 시 자동 조정 및 휴식 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함. 또한 장기 재학생과 전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과 상담을 연계하여 연구 부담 누적이 심리적 소진과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실 환경 문제와 안전 장비 노후화는 건강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은 노후 연구 장비 교체와 연구실 리모델링을 중장기 안전 투자 과제로 설정하고,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함.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임산부, 장애 학생 등)를 고려한 안전 설계 기준을 의무 반영함으로써 연구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검진 미이행의 주요 원인이 시간 부족과 정보 전달 미흡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대학은 연구 일정과 연계한 정기 검진 기간 운영, 연구실 단위 단체 검진 프로그램 도입, 다언어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다언어 건강검진 안내 및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 검진 참여를 개인 선택이 아닌 연구실 안전 관리 필수 절차로 제도화하여 이행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정신적 건강 상태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연구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이에 따라 대학은 대학원생 전담 심리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 연구 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한 정기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도교수 중심 연구 구조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실 갈등 조정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예방 중심 정신건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장애가 있는 학생, 외국인 대학원생, 임신·출산 경험자 등은 건강 위험과 제도 접근성에서 이중의 취약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장애 접근성을 반영한 연구실 환경 개선, 외국인 대상 의료·검진 정보 다언어 제공, 돌봄 부담을 고려한 건강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함

4) 취약 집단 중심 맞춤형 인권 보호 정책 마련

-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박사 과정 및 장기 재학생, 비전업 대학원생은 거의 모든 인권침해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이는 현재의 인권 정책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권력 관계와 자원 접근성의 불평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여성은 성희롱·성폭력과 부당한 노동 강요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은 외모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가 두드러짐. 장애가 있는 학생은 연구실 접근성과 안전 문제에서 구조적 배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비전업 대학원생과 장기 재학생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권침해 누적 위험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인권 보호 정책이 평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취약 집단의 구조적 위험을 직접 겨냥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줌
- 대학은 인권침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취약 집단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성별, 국적, 장애 여부, 학위 과정, 재학 기간, 학업 형태 등을 반영한 인권 현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함

-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실 내 성차별 및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지도교수 변경 제도를 자동 연계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여성 피해자의 경력 단절과 학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학위 일정 보호 제도와 연구 지원 연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인권센터 상담, 신고 시스템, 계약서, 교육 자료를 다언어로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전담 인권 상담 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외국인 대학원생 커뮤니티와 연계한 인권 교육 및 차별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
- 장기 재학생 대상 정기 인권 상담 및 위험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비전업 대학원생을 위한 야간·온라인 상담 시스템 확대, 교육 접근성 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함

5) 인권교육 실효성 강화

- 대학원생의 인권교육 경험률은 27.9%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존재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 다수는 인권의 중요성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상당 비율이 의무교육의 형식성, 추상적 내용, 실제 사례 부족을 문제로 지적함. 특히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장기 재학생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 접근성과 체감 효과가 낮게 나타나, 보편적 교육 방식이 취약 집단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인권교육 콘텐츠를 연구실 위계 관계, 부당 노동 강요, 성희롱·성폭력, 차별 사례 등 실제 대학원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피해 유형별 실제 사례 분석, 대응 방법 시뮬레이션, 신고 절차 실습 등을 포함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함
- 여성, 외국인, 장애가 있는 학생, 비전업 대학원생 등 피해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여성 대상 위계 관계에 의한 폭력 예방 교육, 외국인 대상 다언어 인권 안내 및 신고 교육, 장애 학생 대상 연구환경 권리 교육,

비전업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위계 관계, 노동권, 성인지 감수성, 지도 책임 윤리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인권교육 미참여 주요 원인이 '존재를 몰라서'와 '시간·장소 제약'인 점을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 교육 플랫폼 구축, 야간 및 주말 교육 확대, 다언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신입 대학원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교육으로 편입시켜 초기부터 인권 인식과 대응 역량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내용을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절차와 직접 연계하여, 교육 이수자 실제 문제 해결 경로로 이어지도록 구조화해야 함. 교육 과정에서 인권센터 활용법, 보호 조치, 사건 처리 흐름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6) 인권센터의 실질적 구제 기능 강화 및 신뢰 회복

- 인권침해 경험률이 37.6%에 달함에도 인권센터 신고 경험은 1%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남.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밀 유지 불신'이라는 점은 인권센터에 대한 불신을 보여줌
- 대학원생 다수가 인권센터의 최우선 역할로 사건 처리와 구제를 지목한 만큼, 전문 조사 인력 확충 및 고용 안정성 보장과 전담 사건 처리 조직 구축이 시급함
- 인권센터 운영의 중심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두고,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호 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함. 지도교수 변경 지원, 업무 중단 요청, 학업 불이익 방지 조치, 분리 조치 등을 즉각 연계함으로써 피해자가 문제 제기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함. 아울러 비밀 유지 규정을 강화하고, 사건 접근 권한을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함
- 신고 기피의 주요 원인인 불신과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이 단순히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익명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장되고 신고 이후에도 보호가 지속되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또한 다언어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시 접수 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다언어 안내 및 상담은 필수적 과



결론 및 제언

제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인권센터의 실질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인권센터는 사건 처리 기관을 넘어 인권 위협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허브로 기능해야 함.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연구실 및 취약 공간 모니터링, 고위험 집단 대상 집중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침해 발생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대학원생 인권 환경 전반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침해 경험을 단발적 사건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경험 여부 파악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연구실 사례 조사 등 정성 연구를 병행해야 하며, 대학원생 자치기구와 연계한 참여형 조사 방식 도입을 통해 현장 신뢰도와 응답의 진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실태조사가 단순 보고서 생산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정책 개선 계획과 직접 연계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각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조치, 일정, 책임 부서를 명시한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조사 신뢰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